

제 27 호 / 2003



경북의사회지



제24회 경북의학제

경 상 북 도 의 사 회

謹賀新年

謹賀新年

慶尙北道醫師會

會長	邊永宇	議長	李元基
副會長	劉東明	副議長	金洪祚
"	安吉龍	"	金敎聖
"	李錫均	監事	白明奎
"	鄭弼鉉	"	金洪泰
"	高貞美	"	鄭能秀
企劃理事	鄭萬鎭	公報理事	宋在永
學術理事	李永鉉	情報理事	金璋熙
財務理事	千鍾郁	理事	金東旭
法制理事	白承仁	"	權五一
保險理事	金鍾浩	"	俞炳烈
醫務理事	文信吉	"	白斗鉉

임원명단	3	경상북도의사회 임원명단
	8	시 · 군의사회 회장명단
	10	시군별 종합병원 · 병원장 명단
신년사	15	변영우 / 이원기
축사	18	김병주
서예작품	20	천희두
만화	21	답답증 의사 · 답답증 환자 / 김건우
시	22	찬비속으로 / 손장락
		미로의 골목길 / 김의홍
		목련 / 안길룡
수필	25	새벽골프 / 전경홍
		르완다의 의료현실 / 이규인
		머피의 법칙에 걸려버린 오후 / 정만진
		Kial espero? / 박화중
		국화옆에서 / 정명근
		살(fat)과의 전쟁 II / 전민
		형산강의 밤은 강물따라 흐르고 / 김장희
		영일만 친구에게 / 송광익
여행기	44	촌놈, 맨하탄에 가다 / 박창로
논단	48	악몽의 반추와 새희망 / 김두희
시론	51	우리는 하나가 됩시다 / 신은식
보고서	53	수해지역 긴급의료진료단 활동을 마치고 / 허석
특집	56	「이것은 이런 매력이다」
		仁者樂山 / 최호섭
		Rotary, My Rotary / 성기태
		성악입문 40년 / 배효근
		꼬끼오~~, 멍멍 / 이호근
		우표 수집의 매력 / 전세중
		태극권의 매력 / 송재영
		사진촬영의 매력 / 홍성철
회무لامي치면서	73	투쟁의 3년 세월 / 유동명
		아리랑고개를 넘으면서... / 안길룡
		의학제를 준비하면서 / 이석균
		3년을 보내며 / 고정미
나의애장품	78	나의 Audio system / 윤용삼
유머	79	
의학제삼행시	82	
화보	86	
회무소식	95	
회장동정	133	
결의문	144	
편집후기		

의사 윤리 선언

우리 의사는 사람의 고귀한 생명과 건강을 보전하고 증진하는
숭고한 사명을 인류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았다.

이에 우리는 의사 본연의 사명 수행을 삶의 본분으로 삼아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최고의 의학실력과 윤리수준으로
의술을 행함으로써 의사로서의 품위와 명예를 지킨다.

우리는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환자와 의사 관계를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함으로써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

우리는 동료의사를 비롯한 모든 보건의료인들과 상호 존중
하고 협조함으로써 올바른 의사의 길을 구현한다.

우리는 변화하는 사회상에 걸맞은 의료환경을 온 국민과
함께 추구함으로써 국민건강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드높인다.

우리는 이 다짐을 성실히 지켜 의업의 존재 의미와 의사의
존엄성을 확립할 것을 인류와 국민 앞에 엄숙히 선언한다.

대한 의사 협회



변영우 회장



유동명 부회장



안길룡 부회장



이석균 부회장



정필현 부회장



고정미 부회장



정만진 기획이사



이영현 학술이사



천종욱 재무이사



백승인 법제이사



김종호 보험이사



문신길 의무이사



송재영 공보이사



김장희 정보이사

의 장 단



이 원 기 의장



김 홍 조 부의장



김 교 성 부의장

감 사



백 명 규 감사



김 홍 태 감사



정 능 수 감사

집 행 부



김 동 욱 이사



권 오 일 이사



유 병 렬 이사



백 두 현 이사

❖ 의장단 명단(제11대)

(2000. 4. 1~2003. 3. 31)

직 위	성 명	의 원 명	병원전화	휴 대 폰	주 소
의 장	이 원 기	이원기외과의원	272-1919	011-9593-9507	포항시 북구 죽도1동 41-7
부의장	김 홍 조	김홍조외과의원	452-4239	011-9501-3872	구미시 원평2동 158-8
	김 교 성	김 내 과 의 원	632-0999	017-803-6465	영주시 영주4동 531-4



경상북도의사회 임원명단

❖ 임원명단(제38대)

(2000. 4. 1~2003. 3. 31)

직 위	성 명	의 원 명	병원전화	휴 대 폰	주 소
회 장	변영우	선 린 의 원	742-9960	011-523-9960	경주시 서부동 180-1
부 회 장	유 동 명	유동명정형외과의원	859-6737	011-522-0072	안동시 동부동 152
	안길룡	안 외 과 의 원	432-9999	017-812-8066	김천시 남산동 16-5
	이석균	청 십 자 의 원	(053)815-7077	011-523-7077	경산시 중방동 538-3
	정필현	동국대 경주병원	748-9300	011-518-7229	경주시 석장동 1090-1
	고정미	고 내 과 의 원	272-4455	017-533-9074	포항시 북구 죽도2동 615-2
기획이사	정만진	정만진소아과의원	332-7755	011-506-6427	영천시 완산동 987-41
학술이사	이영현	동국대 경주병원	748-9300	016-9822-5142	경주시 석장동 1090-1
재무이사	천종옥	천 내 과 의 원	771-0503	017-539-0503	경주시 동부동 113-3
법제이사	백승인	백승인소아과의원	746-0002	016-583-0029	경주시 성건동 340-22
보험이사	김종호	김종호신경정신과의원	282-7575	011-511-5090	포항시 남구 대도동 19-18
의무이사	문신길	포항세명기독병원	283-7575	016-837-7576	포항시 남구 대도동 94-5
공보이사	송재영	송재영외과의원	373-0111	011-9373-3684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 478-60
정보이사	김장희	김장희산부인과의원	749-4382	011-548-4592	경주시 동부동 113-10
이 사	김동옥	김 소 아 과 의 원	455-4080	011-9589-4080	구미시 원평2동 96-1
	권오일	중앙산부인과의원	854-6050	011-522-5513	안동시 법상동 208
	유병렬	현 대 제 통 의 원	284-2849	017-234-0328	포항시 남구 대도동 93-4
	백두현	고 령 백 의 원	954-3669	011-522-0614	고령군 고령읍 쾌빈리 500

❖ 감 사

감 사	백명규	백 외 과 의 원	261-9391	011-9586-7843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성리 326-8
	김홍태	김홍태내과의원	533-5858	011-9576-5859	상주시 냉림동 364-11
	정능수	동 산 연 합 의 원	861-0076	016-803-1954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849



중앙(의협)대의원명단

직 위	성 명	의 원 명	전 화	주 소
정 대의원	신은식	신 정 형 외 과 의 원	247-3397	포항시 북구 대흥동 601-29
	이원기	이 원 기 외 과 의 원	272-1919	포항시 북구 죽도 1동 41-7
	변영우	선 린 의 원	742-9960	경주시 서부동 180-1
	유동명	유동명정형외과의원	859-6737	안동시 동부동 152
	정만진	정만진소아과의원	332-7785	영천시 완산동 987-41
	김옥배	김옥배정형외과의원	452-5665	구미시 원평동 534-8
교 체 대 의 원	이용렬	이용렬이비인후과의원	555-4797	문경시 점촌동 245-9
	권세홍	권 방 사 선 과 의 원	855-8444	안동시 서부동 72-2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명단

직 위	성 명	의 원 명	전 화	주 소
위 원 장	김종국	경 북 정 형 외 과 의 원	452-1985	구미시 원평1동 1064-4
위 원	오세진	오세진비뇨기과의원	241-6969	포항시 북구 죽도2동 53-21
	권오일	중 앙 산 부 인 과 의 원	854-6050	안동시 법상동 208
	김대환	베 드 로 내 과 의 원	331-5522	영천시 금로동 584-3
	박문식	포항성모병원신경외과	272-0151	포항시 남구 대잠동 270-1
	이원재	동국대경주병원내과	748-9300	경주시 석장동 1090-1



경상북도 윤리위원회 위원명단

직 위	성 명	의 원 명	전 화	주 소
위원장	신은식	신 정 형 외 과 의 원	247-3397	포항시 북구 대흥동 601-29
부위원장	유동명	유동명정형외과의원	859-6737	안동시 동부동 152
위 원	최종두	최 정 형 외 과 의 원	857-9964	안동시 남부동 169-5
	정만진	정 만 진 소 아 과 의 원	332-7755	영천시 완산동 987-41
	백승인	백 승 인 소 아 과 의 원	746-0002	경주시 성건동 340-22
	문신길	포 항 세 명 기 독 병 원	289-1757	포항시 남구 대도동 94-5
	김종호	김종호신경정신과의원	282-7575	포항시 남구 대도동 19-18
	손병욱	손 병 욱 내 과 의 원	(053)815-7900	경산시 중방동 862-3
	윤태권	윤 소 아 과 의 원	857-6510	안동시 옥동 638-1
	김지흥	김지흥정형외과의원	277-7575	포항시 북구 죽도2동 608-1
	김옥배	김옥배정형외과의원	452-5665	구미시 원평동 534-8
	이용렬	이용렬이비인후과의원	555-4797	문경시 점촌동 245-9
	허 석	김 천 방 사 선 과 의 원	432-3314	김천시 평화동 245-27
	심재철	동 국 대 경 주 병 원	748-9300	경주시 석장동 1090-1



본회 및 시군 사무직원 명단

구 분	직 책	성 명	전 화	휴 대 폰	주 소
경상북도의사회	사무국장	박 재 영	(053)941-7785	011-512-0435	대구시 북구 대현2동 404-4
	대 리	권 순 길	(")941-7785	011-9365-7268	대구시 북구 대현2동 404-4
	대 리	김 태 희	(")941-7785	016-520-8200	대구시 북구 대현2동 404-4
포항시의사회	사 무 장	김 두 중	281-0990	016-502-9786	포항시 북구 죽도2동 45-7
	서 무	이 수 진	281-0990	016-9776-7475	포항시 북구 죽도2동 45-7
경주시의사회	간 사	이 지 형	774-9991	017-530-9992	경주시 서부동 255-31
안동시의사회	간 사	윤 진 영	857-6911	011-9578-6406	안동시 북문동 470
구미시의사회	간 사	박 민 희	457-7646	011-9589-2286	구미시 원평동 534-8
영천시의사회	간 사	김 명 숙	337-8022	016-9833-4209	영천시 창구동 1번지 영천문화원 2층
경산시의사회	간 사	최 보 화	(053)812-0030	016-519-7658	경산시 중방동 538-18



시 · 군 의사회 회장명단

(2003. 3. 1 현재)

시군별	성명	의원명	전화	휴대폰	주소
포항시	이원기	이원기외과의원	272-1919	011-9593-9507	포항시 북구 죽도1동 41-7
경주시	백승인	백승인소아과의원	746-0002	016-583-0029	경주시 성건동 340-22
김천시	박경옥	박경옥내과의원	439-4551	011-9577-4563	김천시 평화동 245-124
안동시	권오일	중앙산부인과의원	854-6050	011-522-5513	안동시 법상동 208
구미시	김중국	경북정형외과의원	452-1985	011-4366-1985	구미시 원평동 1064-4
영주시	이기훈	이기훈정형외과의원	637-5251	011-538-4152	영주시 영주1동 550-4
영천시	김대환	베드로내과의원	331-5522	011-507-3037	영천시 금로동 584-3
상주시	김종술	가톨릭의원	533-1373	011-814-6811	상주시 서문동 4-1
문경시	박승구	박승구소아과의원	555-3023	011-9571-4751	문경시 점촌동 265-11
경산시	장기호	현대연합의원	(053)814-8071	017-520-0628	경산시 정평동 222-83
군위군	김교준	성누가의의원	382-9911	018-517-9921	군위군 군위읍 서부동 390-2
의성군	김일환	김일환내과의원	834-5102		의성군 의성읍 후죽리 472-5
청송군	정철	대구신경과의원	873-1407	011-821-9628	청송군 청송읍 월막2리 357-3
영양군	권영대	영양병원	682-0727	011-523-6547	영양군 영양읍 서부리 100-1
영덕군	서창수	서창수외과의원	733-7595	011-9570-7596	영덕군 영덕읍 남석3리 1-3
청도군	이재동	제일의원	371-2930	016-837-2930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 154-49
고령군	백두현	고령백의원	954-3669	011-522-0614	고령군 고령읍 패빈리 500
성주군	방종경	덕산의원	933-0644	018-553-4469	성주군 성주읍 경산8리 713-4
칠곡군	김영조	김영조내과의원	973-7933	011-525-7933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251
예천군	백승기	성누가의의원	653-5559	019-503-3579	예천군 용군면 읍부리 298-7
봉화군	전우진	동산의원	673-6388	011-522-7948	봉화군 봉화읍 포저리 236-35
울진군	김신일	경북의원	787-7775	011-339-7821	울진군 후포면 삼율리 167-8



시 · 군 의사회장



이원기 포항회장



백승인 경주회장



박경욱 김천회장



권오일 안동회장



김종국 구미회장



이기훈 영주회장



김대환 영천회장



김종술 상주회장



박승구 문경회장



장기호 경산회장



김교준 군위회장



김일환 의성회장



정 철 청송회장



권영대 영양회장



서창수 영덕회장



이재동 청도회장



백두현 고령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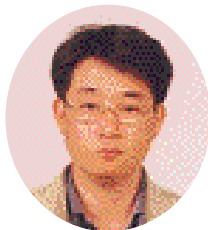
방종경 성주회장



김영조 칠곡회장



백승기 예천회장



전우진 봉화회장



김신일 울진회장



시군별 종합병원 · 병원급 명단

(2003. 3. 1현재)

시군별	병 원 명	원 장 명	전 화	주 소
포항시	동국대포항병원	이 창 우	273-8111	포항시 북구 죽도2동 646-1
	한동대선린병원	이 건 오	245-5000	포항시 북구 대신동 69-7
	포항성모병원	장 식 범	272-0151	포항시 남구 대잠동 270-1
	포항세명기독병원	한 동 선	275-0005	포항시 남구 대도동 94-5
	세명재활의학과내과병원	조 중 훈	283-0815	포항시 남구 상도동 632-2
	포항의료원	변 승 렬	247-0551	포항시 북구 용흥1동 315
	사 랑 병 원	문 충 배	277-3311	포항시 북구 죽도2동 646-15
	늘열린동산병원	박 영 대	262-0770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옥성리 196-1
	여성아이병원	조 기 현	255-5000	포항시 북구 우현동 7B 5L
	포항삼성병원	양 정 호	292-9264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덕리 351-35
	포항여성병원	윤 철 희	274-7775	포항시 북구 죽도2동 640-5
경주시	동국대경주병원	이 영 현	748-9300	경주시 석장동 1090-1
	계명대경주동산병원	편 영 식	770-9500	경주시 서부동 147-2
	안강중앙병원	정 수 기	763-8000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1784-4
	현 대 병 원	김 중 원	745-8118	경주시 성건동 211-4
김천시	김천의료원	송 달 효	432-8901	김천시 모암동 85
	김천제일병원	강 병 직	420-9300	김천시 신음동 462-14
	김천신경정신병원	정 근 재	432-5040	김천시 용명동 957
	신애정신병원	박 민 서	435-6009	김천시 어모면 능치리 632-1
안동시	안 동 병 원	이 윤 호	821-1101	안동시 용상동 1592-31
	안동성소병원	권 영 대	857-2321	안동시 금곡동 177
	안동의료원	신 현 수	858-8951	안동시 북문동 470
	안동여성병원	김 두 표	820-3101	안동시 용상동 1445-1
	류 병 원	류 동 근	851-1000	안동시 풍산읍 막곡리 482
	안동노인전문병원	김 민 성	859-3020	안동시 남후면 무릉리 364
구미시	순천향대학교구미병원	이 길 노	463-7151	구미시 공단동 250
	포천중문의대구미차병원	이 현 우	450-9700	구미시 형곡동 855
	고 려 병 원	신 재 학	453-7575	구미시 원평동 1036-9
영주시	성 누 가 병 원	박 시 균	633-6011	영주시 영주2동 536-4
	영주기독병원	서 익 제	635-6161	영주시 영주1동 547-2



시군별 · 병원 명단

시군별	병 원 명	원 장 명	전 화	주 소
영천시	영 대 영 천 병 원	김 용 진	338-9000	영천시 오수동 307
	마 야 정 신 병 원	김 경 승	336-3311	영천시 북안면 고지리 236-5
	푸 른 솔 병 원	하 만 권	331-5810	영천시 망정동 179-1
상주시	대한적십자사상주병원	김 원 기	534-3501	상주시 남성동 33-27
	상 주 성 모 병 원	성 부 홍	532-5001	상주시 냉림동 350-5
문경시	문 경 제 일 병 원	임 철 재	550-7700	문경시 모전동 188
경산시	경 상 병 원	정 다 출	(053)811-7711	경산시 백천동 4-2
	경산노인전문병원	김 거 형	(053)819-0782	경산시 상방동 242-3
	하 양 삼 성 병 원	금 중 명	(053)857-9114	경산시 하양읍 동서리 757-3
군위군	군 위 삼 성 병 원	이 중 택	383-3531	군위군 군위읍 서부동 111-2
의성군	공 생 병 원	김 선 영	834-3881	의성군 의성읍 후죽동 475-3
	성 심 병 원	이 동 일	834-1048	의성군 금성면 대리리 8-11
	영 남 제 일 병 원	김 인 기	861-9111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924-3
	제 남 병 원	송 오 달	832-2036	의성군 봉양면 화전리 90-21
청송군	진 보 병 원	-	874-7717	청송군 진보면 후평리 66
	청송보건의료원	남 시 현	870-7100	청송군 청송읍 금곡리 1056-54
영양군	영 양 병 원	권 영 대	682-0727	영양군 영양읍 서부리 100-1
영덕군	영 덕 아 산 병 원	김 연 수	730-0151	영덕군 영해면 성내리 133-3
	영 덕 제 일 병 원	-	732-7717	영덕군 영덕읍 우곡리 322-2
청도군	청 도 대 남 병 원	김 세 현	373-0606	청도군 화양읍 범곡리 100-1
고령군	고 령 영 생 병 원	-	955-2661	고령군 고령읍 현문리 201-6
성주군	성 주 세 강 병 원	김 징 군	933-2064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 25
칠곡군	혜 원 성 모 병 원	김 의 원	979-7114	칠곡군 약목면 관호리 910-12
	왜 관 병 원	-	971-1002	칠곡군 왜관읍 왜관10동 174-54
	시 몬 정 신 병 원	박 용 진	976-0402	칠곡군 왜관읍 금남2리 315-1
예천군	예 천 권 병 원	권 규 호	654-6611	예천군 예천읍 동본리 460
봉화군	해 성 병 원	-	679-1234	봉화군 봉화읍 포저리 426-6
울진군	울 진 의 료 원	장 세 국	785-7000	울진군 울진읍 연지리 818
	울진보건의료원	지 청 현	783-1250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563-5
	울 진 중 앙 병 원	지 용 광	787-1212	울진군 후포면 삼율리 530-48
울릉군	울릉보건의료원	김 주 열	791-2110	울릉군 울릉읍 도동2리 176



종합병원 · 병원장

대학 병원 (병원가나다순)



편영식
계명대학교
(경주동산병원)



이영현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이창우
동국대학교
(포항병원)



이길노
순천향대학교
(순천향대학교구미병원)



김용진
영남대학교
(영대영천병원)



이현우
포천중문의대
(구미차병원)



이건오
한동대학교
(선린병원)

병원(지역병원)



박영대
늘열린동산병원(포항)



문충배
사랑병원(포항)



조기현
여성아이병원(포항)



양정호
포항삼성병원



한동선
포항세명기독병원



조종훈
세명재활의학과내과병원(포항)



장석범
포항성모병원



윤철희
포항여성병원



변승열
포항의료원



정수기
안강중앙병원



김종원
현대병원(경주)



정근재
김천신경정신병원



송 달 효
김천의료원



강 병 직
제일병원 (김천)



박 민 서
신애정신병원 (김천)



류 동 군
류병원 (안동)



김 민 성
안동노인전문병원



권 영 대
성소병원 (안동)



이 윤 호
안동병원



김 두 표
안동여성병원



신 현 수
안동의료원



신 재 학
고려병원 (구미)



박 시 군
성누가병원 (영주)



서 익 제
영주기독병원



김 경 승
마야정신병원 (영천)



하 만 권
푸른솔병원 (영천)



성 부 홍
상주성모병원



김 원 기
대한적십자사상주병원



임 철 재
문경제일병원



김 거 형
경산노인전문병원



정 다 출
경상병원 (경산)



금 종 명
하양삼성병원



김 선 영
공생병원 (의성)



김 인 기
영남제일병원 (의성)



송 오 달
제남병원 (의성)



이 동 일
성심병원 (의성)

종합병원 · 병원장



남 시 현
청송보건의료원



권 영 대
영양병원



김 연 수
영덕병원



김 세 현
청도대남병원



김 징 군
성주세강병원



김 의 원
혜원성모병원(칠곡)



권 규 호
예천권병원



지 청 현
울진보건의료원



장 세 국
울진의료원



지 용 광
울진중앙병원



김 주 열
울릉보건의료원

본회 및 시군 사무직원



박 재 영
(경상북도 사무국장)



권 순 길
(경상북도)



김 태 희
(경상북도)



김 두 중
(포항시 사무장)



이 수 진
(포항시)



이 지 형
(경주시)



윤 진 영
(안동시)



박 민 희
(구미시)



김 명 숙
(영천시)



최 보 화
(경산시)

위기를 기회로



경상북도의료사회 회장 변영우

경상북도의료사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2003년 새해를 맞이하여 회원님과 가족 여러분께서 건강하시고 힘찬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일년간 모든 의협 회무와 의권쟁취 투쟁을 모범적으로 참여 해주시고, 특히 김천시지역에 엄청난 수재시에 보여준 헌신적인 진료봉사 활동과 많은 성금을 내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는 국민들을 열광시키고 자존심을 드높인 월드컵 4강 축제와 성공적인 부산 아시안 게임, 그리고 제16대 대통령 선거까지 국가적 대사가 성공적으로 무난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유독 의료계 상황만은 더 열악해지고 의사들은 더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현 준비안된 의약분업은 검증되지 않은 채 시행되어 국민들에게 심각한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남긴 채 더욱 부실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바닥난 건강보험 재정을 보충하기 위하여 사상 유래 없는 진료 수가 인하와 진료활동을 제한하는 수많은 고시와 무자비한 진료비 삭감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정당한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의

협 역사상 유래 없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 모든 회원들이 열심히 참여하였습니다만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정서에 힘입어 노무현 후보가 당선 되었습니다. 새 정부의 의료정책은 의협의 주장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 앞으로 건강보험 의료제도와 의료 환경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의사들의 입지가 대단히 어려워 질 것으로 생각하는 회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누가 되든 어느 당이 집권을 하든지 간에 국민건강을 위한 올바른 의료정책의 우리 주장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며 이를 위한 우리들의 노력도 계속 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우리들의 의권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의사들도 국민들의 변화와 개혁의 바람을 인식하고 스스로 변화해야 합니다. 먼저 새 정부와의 불필요한 갈등을 청산하고 적극적인 대화로 미래 지향적인 좋은 관계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면서 국민건강 수호를 위하여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난 의료 대란시에 의사들은 정부와 일부 언론들의 의사 매도 작전으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많이 잃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얻기 위하여 의사들 스스로 윤리, 도덕 재무장을 통한 뼈를 깎는 자정노력이 필요하며 환자들을 존중하고 더 친절해야 합니다. 또 양질의 진료를 위하여 끊임없이 최신의료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아울러 의료정책연구소와 대외협력위원회의 활동도 강화해야 합니다.

새로이 선출되는 의협 회장을 중심으로 조직을 강화하고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모든 직역간의 대화도 활발히 해야하며 서로간에 협력할 수 있는 분위기로 이끌어 나가야 하고, 회원들간의 친목과 단합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우리는 수년간 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좌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국의 의사가 하나가 되어 위기를 기회로 극복했습니다. 또 위기가 왔습니다. 의료의 주체인 의사로서,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전문가 집단으로서 국가보건의료대계를 위해 흔들림 없는 우리의 소임을 다해야 합니다. 의권은 다른 사람이 지켜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힘과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새해를 맞아 결연한 의지와 단합된 힘으로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의료를 바로 세웁시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해를 시작하며...



경상북도의회 사회 대의원회 의장 이 원 기

월 드컵 4강의 흥분과 대통령 선거를 무사히 치른 대한민국에 새로운 한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흥분과 희망 속에 맞이한 2000년 밀레니엄이 시작된 이래 우리 의료계는 혹독한 시련을 맞이하였으며, 3년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우리 의사들에게는 절망과 좌절의 시간을 보내야만 하였습니다.

1999년 11월 30일 장충체육관의 ‘올바른 의약분업 쟁취를 위한 범의료계 결의대회’를 기점으로 시작된 숨막히는 싸움에서 간신히 얻어낸 모든 전리품과 합의안은 송두리째 없던 것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2000년 의사회장을 구속하고 연이어 투쟁 지도부를 수배하면서 ‘대화를 진행하자’던 정부의 전술에 놀아나 2001년에 들어와 내부분열을 거듭하던 ‘직선제만 되면 모든 것을 얻을 것’으로 외치던 노도같은 대세에 직선제 회장을 뽑았습니다.

그러나 당국은 전능한 힘으로 우리에게 무차별 파상공격을 가하여 우리의 전열은 흩어지고 의원투쟁의 열기는 싸늘하게 식어버렸으며, 의보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한 각종 고시와

시행령으로 의약분업 전보다 더 열악한 조건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그토록 목이 터져라고 외치던 사람들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밤새워 의협 플라자를 메우던 네티즌 선생님들도 침묵을 지키는 현실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의사’로서 살아갈 것이며 모든 시련과 싸울 수 밖에 없는 공동운명체입니다.

우리가 뽑은 회장이나 간부 몇 사람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투쟁의 초심으로 돌아가 한데 뭉쳐야만 합니다.

의협을 중심으로 힘을 모아야만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교과서적 의료를 펼 수 있으며, 우리의 후배들에게 합리적인 의료환경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의사로서 살아갑시다. 그리고 진리를 위하여 몸바칩시다.

감사합니다.



김 병 주 전북의사회 명예회장

尊敬하는 先輩後輩同僚 여러분 安寧하십니까? 마침 今年이 우리 韓國醫師會가 發足한지 100年이라고 합니다. 이 뜻 깊은 해에 貴醫師會에서 道 醫師會誌를 發刊 하신다니 眞心으로 慶賀해 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를 5000년의 歷史와 찬란한 文化를 갖춘 東方禮義之國이라고들 하지요. 上古時代에는 高句麗가 저 滿洲의 南半部와 遼東半島의 넓은 國土를 가지고 있었고 저 中原의 大國 隨나라 하고 對敵해서 勝利한 事實이 있었으며 高句麗, 新羅, 百濟時代의 찬란한 文化와 特히 銅活字, 한글 등 他 先進國에 못지 않는 자랑스런 歷史를 지니고 있었으나 近世 朝鮮時代의 黨爭과 末期의 鎖國政策은 日本의 侵略을 불렀고 形言할 수 없는 屈辱과 彈壓으로 主權을 빼앗기고 36년이란 恥辱의 歲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많은 獨立鬪士와 愛國志士의 犧牲으로 그리고 外勢에 의해서 8.15의 解放을 맞아 비록 國土는 兩斷이 되었으나 大韓民國이라는 民主主權國家가 誕生되었으니 이제는 온 國民은 總團合하고 過去를 대오각성하며 再建에 매진했어야 하거늘 左右政爭으로

오랜 時間과 精力 그리고 經濟的으로 國家 發展에 障礙가 많았습니다. 當時 우리 社會에 있어서 地域主義, 意識, 或은 感情에 있어서 흔히 영호남간 地域감정, 호남인의 소외감, 호남인의 恨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地域감정의 形性的 背景에는 歷史 地緣, 地理的 環境과 社會文化的 側面, 政治經濟的 諸 要因이 影響을 미칠 것입니다. 解放 後 自由黨 時節에는 약간 갈등이 있었으나, 1960년에 軍事 政權이 들어서면서 經濟, 文化, 人事等に 地域갈등이 차차 더해 갔으며 드디어 5.18 慘事가 있었고 영호남의 地域 갈등은 극에 이르러 국민 모두가 걱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985년도로 기억되는데 市道 醫師會長 會議을 光州에서 열게 되어 바로 5.18 民중봉기의 진원지가 이곳 光州이기 때문에 貴道會長 吳三達 先生과 영호남 감정 문제를 이야기하던 중 少醫는 治人하고 大醫는 治國한다는 말이 있는데 慶北과 全北은 緯度로 보아도 거의 같은 線上에 있고 동서 兩端에 位置한 두 도에서 精神과 肉體를 다스리는 우리가 먼저 模範

으로 和親을 하는 뜻에서 자매결연을 하자고 約束한 것이 이 모임의 始作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음해 봄에 1次로 慶北 醫師會 所在地인 浦項의 海岸 日式料亭에서 醫師會 姉妹 結緣式을 舉行하고 盛大한 宴會와 영호남의 親善에 앞장설 것은 勿論이요, 醫療의 主體는 오직 우리 의사라는 것을 確認하고 밤늦도록 飲酒와 歌舞로 취하였고 일요일 早朝에는 慶州에 가 朝鮮컨트리클럽에서 골프를 즐기고 아쉬운 作別을 했습니다. 이날의 大賞은 골프 2년생 장전(현, 醫師會全北議長)會員으로 270미터의 長打賞이었으며 그 거리가 平生의 記錄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 가을에는 全州의 갑중요정에서 情感을 나누고 歌舞를 같이하고 다음 日曜日에는 益山 컨트리클럽에서 골프를 즐기고 다음을 期約했습니다.

위와 같이 每年春秋로 서로 交代해가며 相對方을 尋訪하고 환대하는 사이에 날로 親睦은 더해가고 醫師會의 여러 難題를 진지하게 討論하여 우리의 當面問題를 決議하여 方向을 提示하고 醫協에도 자극을 주곤 하여왔습니다.

그러하기를 7.8년이 지난 것으로 記憶합니다만 每年 2回式 相互 20~30名式이 春秋로

모이는 것이 時間上, 經濟上 負擔이 되어 年1回로 줄이고 Golf도 생략하고 故鄉名勝地, 古蹟의 觀光으로 바꾸었습니다. 거기에다 醫協에서도 이 事實을 알고 醫協會長, 議長, 醫政會長 더러는 理事들이 이 모임에 激勵次 祝儀 金까지 鯨어지고 오셔서 우리의 모임은 마치 醫協의 小委員會를 방불케하는 定例會議가 되었으며 親和는 勿論이요, 醫權問題 健康保險問題 등을 비롯 醫藥分業에 이르기까지 廣範圍한 討論의 場이 되어 會員은 서로 參席하고 저 하는 모임이 되었음을 多幸으로 여깁니다.

특히 制昨年 德裕山の 登山은 1000m 以上の 高地로 나로서는 처음 最高地를 밟은 셈이요, 昨年 慶州 南山의 山行은 높이야 400高地라고 하지만 경사가 상당히 심해서 서로 잡아주고 밀어주고 해서 무사히 山行을 웃는 중에 끝났으며 只今도 그때의 成就感이 記憶이 生生합니다. 끝으로 邊會長任을 비롯 여러 會員任 그리고 家族여러분의 健康과 幸運이 가득하기를 빌며 貴醫師會의 無窮한 發展과 嶺湖南의 敦篤한 和合을 祈願합니다.

(전북 익산/김외과의원)



천 희 두

전북의사회 명예회장

— 작가약력 —

- 제11회 대한민국 서화도에 중앙초대전(한국전, 일본전)
- 미술대상 제정기념 초대전
- 유명작가 유물 기념 특별 초대전
- 국제 서화예술 초대전 (한문부분 우수작 선정)
- 35Lions 문화예술 특별 초대전
- 의인미전 서예부 우수상
- 성균관대학 서예대학원 초청강사
- 제30회 일본 전일서법회 공모전
- 전일전 예술상(일본 동경)
- 현 의협 고문

(전북 전주/노송전주병원)

居安思危

: 편안하게 거할때에 위태로움을 생각하라.

답답증 의사 ~ 답답증 환자



※ 의사는 환자뿐 아니라 그를 위탁받을 의사에게도 확실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환자는 자신의 질병에 대해 자세히 알 권리는 물론 그것을 묻고 숙지할 의무도 필요하다.



대구시북구보건소 김 건 우

찬비속으로..

거리에는 찬비 내리고
무늬 고운 우산 속에
나란히 걸어가는 두 그림자
같은 방향으로 간다는 인연으로
비 맞고 가도 될 일을
눈웃음 짓고는 뛰어 들어
두 사람되어 빗 길을 간다



손 장 락

찬비 속으로
같이 갈 수 있는데 까지 함께 가는
우산 속 두 사람은 말이 없다
향긋한 냄새가 살며시
따뜻한 체온에 실려 풍겨 오고
한쪽 어깨가 비에 젖어도
춥지가 않다

헤어질 때는
고맙다는 인사를 해야지
그 말이 너무 어려워
마음이 하얗게 바래어서
멤돌다 흠어지고
끝내 말이 되지 않아
고개만 꾸벅이고 쫓기 듯 달려간다
비안개 속으로

멈추어 서서 뒤돌아보니
길가는 사람 없고
찬비만 내린다

(안동/손의원)

미로의 골목길

시간이 흐르면
사랑도 가버리고
인생도 가버린다.

세월이 가면
사람도 가버리고
모든 것이 가버린다.

아무 것도
남아있지 않은
기억의 자리엔
무엇이 자리잡을까.

서로 꼭 잡았던
따뜻한 손길도
실타래처럼 풀려버린다.
이어진 것 없이
홀로 남은 것들은
무엇과 연결이 될까.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기억의 저 편
아픈 노정의 길엔
시간만이 덩그러니
홀로 남아 있을까.

한번도 본 적이 없는데
본 것 같고 본 것 같은데
그러나 언제나 낯선
과거의 저 미로
추억이 살았던 그 골목

언젠가는 되살아나야 하는
기억들의 창고
있는 듯이 하다가
사라진 추억의 골목길

누구도 모르고 지나갔던
아무도 모르는 그
꼬불 꼬불하던 길
많이 아픈 삶들을 갈랐던
미로의 공간

빛나는 별은 없었지만
서로의 눈길은 따뜻했던
넓고 깊게 보듬어
안아주고 무언의
사랑을 나누었던 그 곳

보고싶었던 것들이
언뜻 구별없이 지나갔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지금은 다 없어졌다.
말라버린 신기루만 보이고
아픈 허상들만 살고 있다.

누구나 한번 들어가면
두번 다시 나오지 못한다.
조건없이 들어 갈 수는 있으나
나올 수는 없는
아픈 기억의 저 편
결국 혼자만이 있고
그 누구도 도울 수 없는
수수께끼의 미로

절대 누구도 아무도
빠져 나올 수 없다.

사랑도 언젠가는
추억이 된다.



김 의 홍

(구미/김의홍산부인과의원)

목련

황진이가 낮이되어
거문고 가락에 미소지며 피는 꽃
목련은
하얀 버선코 같은 봄입니다.



안길룡

황진이가 낮이되어
옥비녀 머리에 꽃고 피는 꽃
목련은
명월에 취하는 이른 봄입니다.

황진이가 낮이되어
속옷벗고 피어나는 꽃
목련은
내 첫사랑이 떠나간
그때 그 눈물같은 봄입니다.

(김천/안외과의원)

새벽골프



전 경 홍

알람소리에 비상 걸린 졸병처럼 벌떡 일어났다. 골프가방으로 완전무장을 하고 도둑 고양이 내려오듯 뒷계단으로 집을 나왔다. K원장의 차 트렁크에 골프가방을 싣고 아침인사를 건넸다. 그리고 지긋이 눈을 감고 오늘 골프코스의 작전을 머리에 구상했다. 내 마음은 이미 골프채를 쥐고 있다. 골프장 정문에서 출입증을 확인할 때는 비몽사몽이었다.

하우스로 가기위해 언덕을 지나면 차장을 통해 아카시아꽃 향기가 상큼하게 스쳐오고 가슴에 스며들면 슬며시 잠이 깬다. 차에서 내려 카터에 가방을 싣었다. 빠른 걸음으로 안개 낀 어둠을 지나 아웃코스 티-박스 쪽으로 올라갔다. 벌써 두 조가 워밍업을 하고 있다. 오늘 새벽은 안개가 너무 짙다. 급한 팀이 먼저 치고 나가세요. 양보하는 듯 머뭇거린다.

일찍 9홀을 돌아 환자진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먼저 나가기로 했다. 순서를 정하고 내가 먼저 어림짐작으로 540야드 거리의 일번 홀에서 공을 함께 봐주며 치니 “전원장님 잘 치십니다.” 평소 드라이브 샷의 평균거리를 짐작하고 나가보니 내공이 보이지 않아 울 밖으로 나간 듯 싶었다. 공을 찾을 새도 없이 다음 조가 “공을 칠

까요?”하며 고함을 지른다. “기다려요” 외치면서 곧장 밖으로 나갔다고 짐작되는 곳에서 두 번째 공을 쳤다.

시아가 보이지 않으니 방향에 대한 생각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들어 실수를 하고 말았다. 나 뿐 아니라 동료들도 실수를 한다. 같이 웃으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경기를 진행한다. 공을 같이 치다보면 사람들의 인품을 알수 있다.

오래전에 ○○골프장에서였다. 처음만난 분들과 한조가 되었는데 외모로 보기엔 아주 신사였다. 그러나 공치는 매너가 엉망이었다. 다른 사람이 공을 치기 위해서 정신을 집중하고 있는데 담배연기를 뿜어내면서 욕설을 하고 경기를 진행하는 주위 사람들을 불편하게 했다. 어디서 배웠는지 골프의 본 고향 스코트랜드를 다녀와야 깨달을까? 그 날은 공을 치고 나서도 불쾌함이 한동안 기억으로 남아 있었다.

올해는 조기골프 회원들이 대부분 의료인들로 구성되어 있어 분위기가 부드럽다. 새벽에 진행하는 경기라 몸의 컨디션이 좋지 않아 실수하면 군소리 없이 잘못된 원인을 찾아서 성실하게 재도전한다. 매 홀마다 최선을 다하고 서로 격려한다. 공의 방향도 서로 봐주고 환자, 가족,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주고 받는다. 즐겁게 거닐면서 방향이 같으면 만나고 또 헤어진다. 그래서 정이 들었는지 금년에는 우리 네 사람이 한조로 되었다. 일주일에 두 번씩 공을 치기로 합의했다. 3번홀 코스는 큰 연못이 가로질러 있다. 또 포대그린(높은언덕)이라 성적이 모두 좋지 않았다. 그래서 평소보다 한 두타를 더 친셈이다.

먼동이 서서히 밝아왔다. 시야가 100야드 정도 보이기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나는 문득 안개 낀 새벽골프 코스가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의료보험 환경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1977년 7월에 시작된 전국민 의료보험제도의 시작부터 또 의약분업 강제시행은 의료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었다. 의사들이 제약된 조건들로 인하여 소신진료와 양질의 진료를 할수 없게 되었다. 이것을 개선코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등 단결투쟁을 하기에 이르렀다. 7만여 회원들이 국민건강수호와 의권신장을 위한 투쟁이 수차례 전개되었다. 그러나 개선 보완의 구체적인 대화는 단절되고 세계역사에 유래없는 의사집단구속을 단행하였다. 이것은 역사적인 오점이고 또 의사의 특권인 처방전마저 규제되었다.

고가의 약 처방은 삭감되고, 실사도 하고 세무조사 등으로 압력을 가했다. 의사들이 최선을 다해 진료할수 없는 환경을 만들고 국민들에겐 의료혜택이 제한적인 것이다. 의료복지가 아닌 의료

독재국으로 국민을 위한 정부라 하면서도 선진국의 의료정책의 표본을 보고 검토하여 의료복지국가로 가는 지름길을 찾는 정책을 펼 의지는 있는지 정말 오리무중이다.

선진국들의 의약분업 예는 많으나 이웃 일본은 1968년 국민의 뜻을 존중하여 의약분업을 시작했다. 지금까지도 국민을 위한 시행을 계속 정부, 국민, 의사, 약사의 합의하에 진행되어 복지 의료로 표본이 되고 있다.

4번 홀에 오면서 나는 항상 기분이 좋아진다. 그것은 1986년 8월 23일 홀인원의 인연이 있었기 때문이다. 동행이 하는말 “저 건너 키 큰 향나무가 전원장님 홀인원 기념수지요?” “네”, 나는 이 홀에서 니엘리스트(구멍에 가장 가까이 갔다 놓은 것), 홀인원(단 한번에 공을 구멍에 넣은 것)의 경험이 있고, 나의 서재에는 메달리스트(자기 평균타수 보다 가장 적게 친 타수상)등 우승컵이 있다고 자랑을 늘어 놓았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서 공치는 성적이 좋지 않아 변명하기 위한 속셈이었다.

6번 홀에서 공을 친 것이 멀리 날아가지 않았고, 두 번째 친 것이 가까이 보내져 실력이 살아났다. 어느새 7번 홀에 오니 안개가 걷히고 찬란한 햇빛이 골프장 푸른 잔디에 비쳐 골프장이 한 눈에 펼쳐 보이고 G약사가 친 공이 포물선을 그리며 창공을 나르는 멋진 모습도 볼수 있어 ‘굿~샷’하고 외치는 경쾌함도 함께 느끼게 되었다.

8번홀 우측 산을 하얗게 덮고 있는 아카시아 나무에서 풍겨오는 꽃향기는 안개 때문에 경기하기 지친 우리에게 생기를 돌아 주었다. 향기에 만취한 뼈꾸기 가족들은 뼈꾸뼈꾸 합창을 하니 우리 모두의 컨디션도 원상태로 자기실력을 발휘하는 기쁨으로 서로가 만족한 표정들이다. 지금까지 잘못된 것은 다음주에는 더 좋은 성적을 가질 것이라는 자신감도 가져보았다.

의료환경도 언제 개선되어 의사들이 소신과 양질의 진료로 국민의 질병을 치료하고 국민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는 의료복지가 실현될까?

9번 홀은 K원장이 버디(기존 타수보다 한 타 덜친 것)하고, 모두들 파(기존 타수를 친 것)로 끝냈다. 오늘 잘 쳤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인사를 나눴다. 요사이 골프에 심취한 C원장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도 보기 좋았다. 대도시에 살면 예약마저 힘들어 골프를 즐기기 힘들텐데 ○○비행단 이웃에 있어 유대가 원활하여 시간 없는 의사들에게 편리제공을 해주는 ○○부대장과 조종사들에게 감사하면서 비록 안개낀 것으로 골프하기 어려움이 있었지만 만족한다. 동료들이 나에게 슛 게임을 잘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20여년의 경험 탓이 아닐까? 내가 함께 하지 않는 날은 재미가 없다고 아부도 하면서 모두들 나에게 늘 배려와 친절을 베푼다.

새벽 안개의 습기와 흘린 땀으로 흠뻑 젖은 옷을 다시 매 만지고, 질벅거리는 신발을 끌고 귀

가를 서두르는 것은 일찍 오시는 환자분들의 진료와 내식성을 잘 아는 아내가 마련한 식탁에 마주 앉아 꿀맛 같은 아침을 먹는 일이며 시원한 냉커피로 브라보하고 마신 뒤 아내의 배웅을 받으며 진료실로 가야하기 때문이다.

골프하우스 현관 앞으로 승용차가 밀려들어오니 골퍼들은 차에서 내려 락카룸으로 준비하러 가고, 캐디들은 골프가방을 어깨에 매고 줄줄이 조를 이루어 아웃 티-박스로 몰려간다. 남들이 아침일과를 시작할 시간에 골프장에 등장하는 여유있는 저들은 도대체 무슨 직업을 가졌을까? 요사이 중소기업들이 어렵다고들 하는데 혹시 사장님들이 아닐까? 젊은 남녀들이 상쾌한 아침부터 만사를 제쳐놓고 푸른 잔디 위에 공을 굴리는 저들이 정말 멋진 인생일까?

이른 아침부터 한정된 공간이지만 환자의 고통 소리를 달래며 인술을 베푸는 우리가 더욱 값진 인생이 아닐까한다.

(문경/동산가정의학과의원)





이 규 인

르완다의 의료현실



르완다는 중동부 아프리카의 적도 바로 밑에 위치한 인구 800만의 경상남북도를 합친 정도의 크기로 아주 작은 나라이다. 오랜 식민지 통치 후에 1964년 독립 후 계속된 종족 내분으로 이어지다 1994년 100만 이상의 희생을 낸 참혹한 내전을 겪은 나라로 현재는 어느정도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었으나 아직 여전히 좀 불안한 상태이다. 경제적으로도 세계 최 빈국 중의 한 나라로 산업화가 안된 소규모의 자영 농경 사회 상태다.

의료제도는 유럽의 영향을 많이 받은 편이고 의과대학(7년제) 1개에, 자체적인 전문의 수련병원이 없어 전문의가 아주 적으며 전문의가 되려면 외국에 나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보통은 수련 받는데 수련 병원에 수업료를 지불 해야 하며 장학금을 다른 단체나 국가로 부터 받지 못하면 자비로는 엄두를 못낸다)

1차진료는 대개 보건소(dispensary)에서 이루어지며 여기선 간호사가 진료를 전부 담당 하고 의사는 없다. 물론 도시에는 의사가 진료하는 1차 의료기관인 개인 의원도 있지만 수가가 아주 비싸다. 1차 진료기관에서 진료가 어려우면 2차 진료기관인 병원으로 후송되며 여기서 다시 3차

진료기관인 대학병원으로 후송되는 체계를 갖고 있다. 대개 의사들은 개인의원에서 진료하는 수도 있지만,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일한다. 또한 거의 대부분이 일반의이며, 모든 환자를 다 봐야 한다. 예를 들면 주로 소아과를 보는 의사도 때론 분만이나 제왕절개술, 응급외과적 수술, 피부과, 정신과.....등 모든 환자를 다 커버 해야 한다. 여기는 물론 치과도 포함되며 치과 의사는 따로 없고 간호사가 병리기사나 X-ray 기사와 같이 전문 치과치료사의 역할을 한다. 대부분의 병원들이 심지어는 대학병원 조차도 진료기자재나 시설이 아주 열악하다. 의과대학 7년을 졸업하면 바로 진료현장에 투입되며 인턴이나 전공의 과정없이 모든 진료를 행해야 한다. 또한 진료는 여러 가지 이학적 검사나 진단적인 방사선 검사등에 의존하지 못하고 일반적으로 병역이나 진찰소견만이 추가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물론 이는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의료 이용율은 약 30~40% 수준으로 대부분의 환자들이 의료기관을 이용 할 수 없는 실정이며 물론 주된 원인은 돈이 없기 때문이다.(그외 때론 어려운 교통 수단이나 무지도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질병의 유형을 살펴보면 말라리아가 다수(약 60%)를 차지하고 그외 많은 감염성질환(상기도염 폐렴, 뇌막염, 장염등등)과 기생충 질환 특히 소아에서의 수많은 영양결핍 아이들상은 아주 심각하다. 또 이곳은 무엇보다도 에이즈가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유병율이 가장 높은 지역중 하나이지만 그에 대한 대책은 너무나 형편없다 하겠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나라는 아직도 전쟁

후유증에 시달리면서 최빈국의 경제 사정과 많은 질병, 특히 말라리아와 많은 감염성 질환 영양실조, 게다가 최악의 에이즈가 덮쳐 3중 4중의 어려움에 처해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당분간은 이나라 자력으로서는 위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란 거의 불가능 해 보이며 많은 선진국에서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前 이규인산부인과의원)

안녕하세요? 전번 제가 한국 나갔을 때 물심양면의 도움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변영우 회장님과 우리 의사회 전 회원님께 지난번 도움에 제대로 인사도 못드려 너무 죄송해요.

그 도움으로 요사이 에이즈 교육과 보건소 지원사업을 잘 하고 있답니다. 다시 한번 대신 감사말씀 전해 주시고 여기 사정으로 급하게 몇자 적었어요.

앞으로 더 많은 글 성의껏 보낼께요,변회장.

아프리카 르완다에서 이규인 올림



정 만 진



머피의 법칙에 걸려버린 오후



그 날은 참으로 뜨거운 7월의 주말이었다. 서울에서 오후 5시 30분에 개최되는 대한 의사협회 정책연구소 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오전 근무만 하고 오후 2시경에 병원 문을 나섰다. 이렇게 한 달에 한두 번씩 병원 팽개치고 나돌아다니다가 밥 굶는 의사가 되지는 않을런지 걱정이 되었다. 그러나 책임을 맡은 이상 어쩔 수 없지 않는가?

영천에서 서울 동부 이촌동에 있는 의사협회에 5시 30분까지 도착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승용차, 비행기, 전철을 바꿔 타며 분 단위로 정확하게 움직여야 했다.

나는 빠른 걸음으로 D은행 지하 주차장으로 갔다. 그런데 내차 앞에는 커다란 지프형 차 한 대가 버티고 있었다. 지하 주차장에서는 이런 일이 별로 없는데, 핸드 브레이크는 풀려 있었으나 기어가 “P”에 놓여 있어 밀수가 없었다. 차주의 휴대폰에 전화를 하는 소동 끝에 차를 몰고 나올 수 있었으나 10여분이나 지체되었다. 출발부터 순조롭지 못했다. 주말 도로 정체에 부대끼며 대구 공항으로 달렸다. 3시 30분 비행기를 타려면

적어도 3시 10분까지는 공항에 도착해야 하나, 3시 20분에 겨우 도착하여 발권 데스크로 뛰어갔다. 그러나 알고 보니 그렇게 허둥댈 필요가 없었다. 내가 예약한 비행기는 일기 관계로 30분이나 지연되어 있었다.

30분이나 늦게 출발한 비행기가 이륙하자마자 바로 구름 속으로 들어가더니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구름이 끼고 비가 오는 날은 일반적으로 비행기가 심하게 흔들리지만, 오늘처럼 손에 들고 있는 종이 커피잔의 커피가 앞질러지고, 승객들이 공포의 비명을 지를 정도로 기체가 요동치는 경우는 국내선의 짧은 비행에서는 처음 겪어보는 일이었다. ‘별일 없겠지’하면서도 손에 땀이 나고 다리에 힘이 들어갔다. 승용차의 출발부터 심상찮더니 비행기가 또 한 번 애를 먹인 것이었다.

공포의 비행 끝에 김포공항에 무사히 착륙한 A사의 비행기는 서서히 계류장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나는 정책 연구소의 운영위원으로, 인사위원으로, 연구위원으로, 그리고 의협의 일로 이 비행기를 열 번도 넘게 타고 다녔다. 그러므로

이 비행기는 앞문으로만 타고 내린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나의 오늘 자리는 뒤에서 세 번째였다. 지금부터 빨리 서둘러도 회의에 30분 이상 지각할 것 같았다. 마음이 급했다. 그대로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조금이라도 빨리 내려야겠다는 생각에 비행기가 완전히 멈추기 전에 일어나 재빠르게 비행기 앞쪽으로 걸어갔다. 비행기의 거의 중간쯤에 갔을 때 비행기가 완전히 멈추고 사람들이 모두 일어났기에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었다. 앉아서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도 되건만 모두들 통로에 일어서서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스튜어디스의 상냥한 안내 방송이 흘러 나왔다.

“서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앞문과 뒷문을 이용하여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따라 왜 뒷문? 어찌 이런 일이!

가만히 있었으면 뒷문을 통하여 빨리 내릴 수 있었을 텐데, 약삭빠르게 움직이려다 통로 한 가운데 갇혀서 제일 늦게 내리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암체 짓과 에티켓 위반에 대한 벌이었고, 머피의 법칙에 걸려버린 오늘의 세 번째 불운이었다.

공항 출구를 벗어나자 말자 나는 나의 최고 보행속도인 시속 6km로 5호선 김포공항 지하철역을 향하여 몇 백 미터의 지하도를 힘차게 걸어갔

다. 걸으면서 동전을 꺼내서 준비하고, 티켓 자동 판매기에서 700원 짜리 지하철 티켓을 끊고서, 에스컬레이터도 타지 않고 계단을 뛰어내려가는데 전동차의 요란한 소리가 들렸다. 불행하게도 그것은 전동차의 들어오는 소리가 아니고 떠나가는 소리였다. 저 멀리 영등포를 향하여 달려가는 전동차의 꿈무늬를 쳐다보니 힘이 쏙 빠졌다. 오늘의 네 번째 불운이었다. 어찌 오늘은 이렇게도 안 풀린단 말인가? 고스톱에서 땡땡거리며 쓰리 고 부르다가 정말로 드물게 나오는 세 번 설사의 뒷발에 차여서 고 바가지 쓸 재수였고, 옛날 같았으면 호랑이에게 물려갈 운수였다.

신길 역에서도, 용산 역에서도 전철을 바꿔 탈 때마다 타이밍(Timing)이 맞지 않아 애를 먹었으나, 열심히 움직인 덕분에 30분 이상 늦지 않았고, 다행스럽게도 간단히 저녁을 먹고 회의가 시작되었으므로 회의 참석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잘못될 소지가 있는 것은 어김없이 잘못되어 간다”는 머피의 법칙(Murphy's law)에 걸린 것처럼 나쁜 일이 겹쳐서 일어나는 설상가상의 그런 재수 없는 날이 있다. 그래서 신세대 가수 DJ DOC은 “머피의 법칙”이라는 빠른 템포의 노래까지 만들어서 부르고 있다.

“돈 싫어! 명예 싫어! 따분한 음악... 우린 정말

싫어 펑키 비트의 신나는 댄스, - 중략 - 친구들과 미팅을 갔었지, 똥똥하고 못생긴 애 있길래, 우와 재만 빼고 다른 애는 다 괜찮아, 그러면 꼭 개량 나랑 짝이 되지. - 중략 - 오랜만에 꼬질꼬질한 모습으로 우리 동네 목욕탕을 찾은 날은 한 달에 두 번 있는 정기 휴일이 왜 꼭 걸리는 거야. 오~오~. - 중략 - ”며 머피의 법칙에 불잡힘을 노래하고 있다.

운동 경기를 할 때도, 바둑을 두거나 고스톱을 칠 때도, 사업을 할 때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한탄이 절로 나는 그런 때가 있다. 우리가 모르는 4차원의 세계에서 보면 쉽게 보이는 법칙이 있을지는 몰라도, 누구에게나 정말 자꾸만 일이 꼬이는 그런 날이 반드시 있는 법이다. 더 운이 나쁘면 날벼락 같은 지하철 사고에 휘말려 생명을 잃는 경우도 있지 않은가? 그러므로 생활에서 일어나는 조그만 불운들은 생활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것이 마음 편하다.

사람들은 기분 좋게 잘 풀릴 때보다 재수 없게 잘 풀리지 않을 때를 더 오래 기억한다. 우리가 잊어버려서 그렇지 좋은 일만 자꾸 생기는 “샐리의 법칙(Sally's law)”이 적용되는 날도 없지 않다. 택시를 타야겠다고 생각하면 빈 택시가 자기 앞에 오고, 행운권 추첨에서 일등이 되었으면 하고 바라면 일등이 되고, 카드나 고스톱에서 자기가 바라는 카드나 화투장이 기가 막히게 속속 일어나는 샐리의 법칙에 희희낙락 하는 그런 날도 반드시 있다. 그러나 그런 날은 자신이 잘 나서 그런 줄 알거나, 별로 느끼지 못하고 지나가기에 기억하지 못 할 뿐이다.

우리가 머피에 불잡혔다고 해서 너무 안달하거나 신경질 낼 필요도 없고, 샐리에 불잡혀 기분 좋다고 너무 출렁거리거나 우쭐대도 꼴불견이다. 인생이란 어차피 머피도 만나고 샐리도 만나는 그런 것이니까 말이다.

(영천/정만진소아과의원, jmj31@hitel.net)





박 화 종

Kial espero?

(왜 에스페로인가?)

우리 병원의 이름은 에스페로 내과의원입니다. 제 주위의 동료들은 박화종내과라든가 될 것을 왜 굳이 어려운 이름을 붙이느냐 했습니다.

저희 병원을 찾는 할머니 환자분들도 “여~가 에스에스 내과니까?” 하십니다.

젊은 이들은 “기왕이면 그랜저내과라고 하시는 게 더 좋을텐데...” 합니다.

에스페로는 국제어 에스페란토로 希望, 素望이란 뜻입니다.

굳이 우리 말로 하자면 素望內科 쯤 되는 셈입니다.

처음 제가 이 이름을 생각한 것은 대학시절 때 부터입니다.

당시 가정형편상 휴학중이던 저는 복학을 2달 앞둔 1977년 1월 신문광고에서 국제어 에스페란토 공개강습회 광고를 접하고 에스페란토를 처음으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때에 내 인생에 있어 큰 轉換點에 들어선 것도 당시엔 정말 몰랐습니다.

3월 개강 후 저는 校內 學友 108명을 모아서 에스페란토 初級講習을 하였습니다.

入門한지 겨우 2개월 만에 저는 에스페란토 선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에스페란토 동아리를 결성하고 졸업 때 까지 활동했습니다.

당시에 이미 저의 병원 이름은 에스페로였습니다.

그 만큼 에스페란토는 쉽고, 재미있었고...

무엇보다 人類愛主義 라는 에스페란토 精神에 흠뻑 빠져있었습니다.

졸업 후에는 수련의, 전공의 그리고 공중보건 장학생으로 無醫村에서 근무하는라 에스페란토 책을 멀리 하고 지냈습니다. 돈 될 꺼리라고는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1988년 울릉도에서 鬱陵郡 保健醫療院長으로 근무하면서 무료한 섬생활에서 다시 찾은 즐거움이 바로 에스페란토였습니다.

박스 속에서 꺼내어 먼지를 털고 잊었던 단어들을 찾아보며... 행복했습니다.

1993년 2월에 浦項에서 開院하게 되었을 때 저의 병원 이름은 당연히 에스페로 내과의원이었습니다.

대우자동차와는 전혀 무관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내의 기사님들은 이 이름을 무척 쉽게 기억하시고 환자 이송에 적극 협조들을 해주셨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포항에 오셔서 택시기사님께 에스페로! 하시면 그냥... 오십니다.

에스페란토 덕에 저는 가끔 뜻하지 않는 일로 즐겁고 유쾌한 일 때로는 보람있는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것도 전 세계를 돌아 다니면서...

1995년 어느 봄날 일본에서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큐슈 구마모토현의 노무라 타다즈나 선생이었습니다.

일본에서 조개양식업을 하시면서 구마모토현 출신의 일본군들이 壬辰倭亂부터 太平洋戰爭 때 까지 얼마나 나쁜 일들을 많이 했는지 조사하시고 일본은 이런 사실을 덮어두어서는 아니되며 밝히고 반성하여 다시는 歷史에 罪를 짓지 않도록 하자는 일을 하십니다.

사연인즉 당신의 부친은 노무라 기이이찌씨로서 1945년 마지막 浦項의 邑長이었습니다.

자신은 선조들의 행적을 조사하고 밝히는데 막상 본인의 부친이 포항에서 읍장으로 지내시며 태평양전쟁 말기에 挺身隊, 強制徵用, 強制徵兵이 한창일 무렵 조선인들의 탄압에 많은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이 있노라시며 직접 포항을 방문하여 정신대 할머니들께 사죄하고 시청의 기록도 살펴보고 자신이 5학년까지 다니던 포항 중앙초등학교도 방문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팔방으로 다니며 수소문 하여 그의 부친은 당시 포항의 읍민들에게도 인기있는 읍장이었고 많은 읍민들이 아직도 그를 기억하고 있으며日本敗亡 후에도 그 가족들의 일본 귀환에 적극 도와주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읍장을 기억하는 많은 분들은 이미 돌아가셨으며 그들의 후손들 몇 분만 만날 수 있었습니다.

挺身隊 3~4명 할머니들은 직접 대면을 피하셨습니다.

습니다.

포항의 에스페란티스토들과도 많은 대화를 나누었으며 이 후 에스페란토 세계대회에서도 자주 만나 인사합니다.

지난 연말에는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리꼬님은 일본 고오베의 합창단원입니다.

이제 3년 가량 된 합창단이 고오베에서 메시아를 공연한다 합니다.

지난 가을 서울에서 열린 한국 에스페란토 대회에 참석하여 인사하였습니다.

저는 浦項 市民合唱團의 團長입니다. 그래서 금방 가까워 졌습니다.

사연은 올해 81세된 동료 할아버지가 있으신데

에스페란토는 물론 최근에는 한글도 공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달리기를 좋아하시는데 매년 보문국제 벚꽃 마라톤대회가 열리는 것을 아시고 무척 참가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할머니가 아프셔서 올 해에는 못 오신답니다.

할아버지는 은퇴 후에 지역의 醫療組合에서 自願奉仕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醫師라는 말을 들으시고 전공과 관계된 여러 일에 자문을 구하고자 하십니다.

컴퓨터를 못 다루시므로 대신 이-메일을 보내는데 곧 친필로 편지하시겠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八旬의 친구라니...

1994년도에는 비엔나에서 에스페란토 世界大會가 열렸습니다.

저로서는 첫 세계대회 참가였고 첫 해외여행이
었습니다.

어느 공연장에서 앞에 있는 금발머리의 아가씨가
중국부채를 들고 있기에 갖고 간 太極扇을 하
나 주며 이 것은 한국의 부채라고 얘기해 주었습
니다.

알고 보니 독일 여고생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회장 앞에 앉아 있노라니 부모
님과 함께 걸어오던 이 아가씨!

저 한테로 쫓아 오더니 제 손목을 잡고 부모님
께 뛰어가 인사 시키며...

“엄마 아빠, 제 친구예요.”

정말 즐겁지 않습니까? 18세 여자 친구라니...

매년 한 번씩 여름이면 세계를 다닙니다.

한 보름 쯤 병원 문도 닫아버리고 집사람과 둘
이 떠납니다.

한 나라에서 대회가 열린다면 그 주위의 3~4개
나라를 돌아봅니다.

그렇게 돌아 다닌 나라가 20여 나라 쯤 되는군요.

한 십년 더 다니면 온 세상을 다 보게 되겠지요.

에스페란토는 國際語입니다.

1887년 유태계 폴란드인인 자멘호프 박사에 의
해 創案된 人造語입니다.

자멘호프박사는 眼科醫師입니다. 우리 醫師들
이 더 열심히 해야 할 言語입니다.

文法이 간단하고 變音, 重音, 默音이 없으며 不
規則變化도 없습니다.

國際共用語의 조건은 中立의이고, 쉬워야 하며,
모든 表現이 可能해야 합니다.

에스페란토는 國際間的 잘못된 意思疏通으로
인한 誤解를 없애서 人類의 平和와 平等을 이루
고자 하는 希望의 言語입니다.

우리 나라에는 1916년 안서 김억선생이 잡지
“廢墟”의 創刊號에 에스페란토 원작시를 발표하
신 이 후 춘원 이광수선생, 나비박사 석주명선
생, 광복회장 이재현님, 노산 이은상님, 장충식
단국대 총장님, 영남대 홍형의 교수님...

많은 에스페란티스토들이 활동을 하셨습니다.

韓國戰爭 중에는 韓國 에스페란토 協會가 大邱
에 있으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에스페란토
를 알고 있습니다.

오늘 날 비록 英語가 世界語의 위치에 있으나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영어를 배워도 그들을 따
라 가기가 어렵습니다.

強大國은 그만큼 優先權을 가지고 앞서 갑니다.

에스페란토는 우리 弱小國의 言語이며 이러한
不公正을 是正코자 하는 言語입니다.

아직은 비록 돈이 되지 않아 모든 이들이 외면
하고 있지만 언젠가 성서의 바벨리즘(言語混亂)
을 克服하고 1個國 2言語主義를 實現하여 모든
나라의 第 2國語가 되리라 믿습니다. 아니 그렇
게 되어야 합니다.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 더 널리 보급되고 있습
니다.

그 날이 오면 저는 한글날 간판에 대한 고민도
없어질 것 입니다.

(포항/에스페로내과의원)



정 명 군



우리네 의사들의 생활이란 아침부터 진료 마감시간까지 어찌면 환자들과 사투를 벌이는 전장터의 파수꾼이다. 피곤해 지친 심신에 활력을 넣고자 6년전 아내와 함께 시작한 것이 골프, 그러나 골프 자체에 매력을 느끼고 시작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3명의 프로가 바뀔 때까지 기량은 늘지 않고 오히려 무리한 스윙을 감행하다 보니 갈비뼈에 두번씩 금이 가고, 쌓이는 스트레스, 운동엔 둔재라는 자조와 함께 술한 에 피소드를 남긴 채, 자식들 고등학교나 졸업시키고 나이는 50이나 넘기고 다시 시작하겠노라 궁색한 변명을 던지고는 골프채를 가방 깊숙이 넣어 버렸다.

그 후 혈압이 높아지고 기력과 체력에 자신감을 잃어가던 차 인정 많은 후배의 소개로 테니스 클럽에 가입하게 되었다. 대학생 시절, 군의관, 전공의, 봉직의를 거쳐 개원 후 수년간 운동과는 담을 쌓고 지낸 터라 감각을 찾기가 쉽지는 않았으나 따뜻한 봄날 땀을 스치며 달려오는 달콤한 향기의 미풍, 여름날 땀으로 범벅된 갈증을 씻어 주는 막걸리는 감로수(甘露水)가 되고 스산한 가을에도,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는 겨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난 어느새 테니스의 매력이 폭 빠져

버렸다. 더욱이 휴일이나 클럽대항 시합이 있는 날에는 모처럼 맞이하는 태양이 선사하는 상쾌한 선물을 온몸 가득 받을 수 있어 새삼 청춘시절 느꼈던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50대에 들어선 막연한 죽마고우(竹馬故友)로부터 걸려온 전화 한 통, 심장병이 있는 친구는 건강이 악화되었다는 병원의 진단을 받고 운동을 해야겠는데 골프를 같이 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했다. 어떻게 박절히 거절할 수 있었겠는가. 다시 입문하는 겸허한 자세로 이제 시작하면 반드시 이루고 말리라는 웅골찬 다짐을 하고 좀더 부드럽고 업그레이드 된 골프채로 바꿨다. 웃음으로 질책하는 아내의 고마운 마음을 받으니 한층 용기가 채워졌고 간헐적이나마 정겨운 친구의 얼굴을 볼 수가 있으니 더없이 행복했다.

그로부터 10개월이 흐른 어느 날, 나를 가르치던 프로가 엄명을 내렸다. 연습장에서 그토록 열심히 연습에 충실했는데도 진전을 보이지 않자 1개월 동안은 필드에 나가지도 말고 테니스도 삼가라는 것이다. 참으로 기막힌 노릇이다. 연습장 구석에서 빈 스윙만 되풀이 하는 심정이 어떠하겠는가. 다시한번 좌절감이 찾아오려는 그 때



새벽 필드 같이 다니는 동반자 한 분이 내려주는 은근한 충고 한마디 “프로 골퍼가 될 것도 아닌 데 대중 하시죠.” 옳거니! 골프는 무욕(無慾)의 스포츠다! 마음을 비우고 힘을 빼고 부드럽게 돌려야 해! 힘껏 때리려 마음 먹으면 오른 팔에 힘이 들어가게 되고 미스샷이 되어 버려. 일체유심(一體唯心). 모든 것은 마음먹기 나름이지. 유연해져야 한다.

그렇게 마음을 정해버리자 오히려 적극성과 새로운 도전정신이 살아나면서 타수를 줄이겠다는 강박 관념에서 서서히 해방되어 갔다. 마치 웅단처럼 잘 다듬어진 그림같은 그린, 상쾌한 바람 맞으며 저 먼 곳으로 시원스레 뻗어가는 골프공, 땡그렁 홀에 볼 떨어지는 소리..... 이러하므로 꼭두새벽 마다 앓고 라운드 약속을 기다리며 새벽잠을 설치게 되는 모양이다. 우리 문경엔 군부대의 퍼블릭코스가 있어 새벽에 9홀만 돌고 와도 봄·여름에는 진료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하루종일 콧노래 부르며 흥겨운 마음을 유지할 수 있으니 그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처음으로 90대에 진입하던 날, 그날의 기쁨을 잊을 수 없다. 남들이야 웃거나 말거나 주위 모든 이에게 음료수 한잔씩 돌리고.....

하하하.

이제부터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골프와 테니스에 얹힌 온갖 에피소드를 뒤로하고, 낮에는 열심히 성심껏 진료에 임하며 저녁시간이나 공휴일엔 골프채나 테니스 라켓 중 선택할 수 있고, 마음 맑은 사람들과 대화하며, 운동하며, 삶을 얘기하며,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경영할 수 있으니 그야말로 군자삼락(君子三樂)이 무색하리라.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 며 언 먼 젊음의 뒀안길에서 /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평상심(平常心)을 중용(中庸)이라 했던가. 골프와 테니스. 과히 욕심 내지 않고 편중됨 없이 내 인생의 깊은 반력자로 삼으리라. 대략 90세 까지만..... 하하하.

(문경/정명근외과의원)



전 민



살(fat)과의 전쟁 II

아! 요요..... 의료계의 투쟁이 주춤해 질 즈음 나에게도 드디어 말로만 들던 요요씨가 오고 말았다. 지난 2년 동안 그 피나는 투쟁을 통해 쟁취한 60대의 체중이 또다시 70대로 되돌아가 버린 것이었다.

살 빼기계의 선배들이 말하기를 요요씨가 제일 무섭다고 했다. 요요씨는 워낙 세력이 강한 놈이라서 모든 살 빼기 동지들이 그 앞에서는 꼼짝을 못한다고 했다.

아침저녁으로 고구마만 먹고, 캄캄한 새벽에도 캄캄한 오밤중에도 미친놈 널뛰듯이 온 산과 운동장을 마구 뛰어 다녔던 짓이 몽땅 수포로 돌아갔다.

아! 그 놈의 원수 같은 식욕.....

주체할 수 없는 식욕.....

맨밥에다 간장만 있어도 밥 한 그릇을 다 먹는 천부적인 식욕은 60대를 달성했다고 방심하는 사이에 제 세상 만난 듯이 마구 날뛰기 시작했다. 테니스 치고 구운 콩치 안주로 먹는 포항 막걸리는 꿀맛이요, 조깅하고 샤워하고 난 뒤 삶은 두부에다 김치를 싸 말아서 먹는 그 맛은 또 어쩔고, 1주일에 2~3번 대구 집에 가면 老母께서 객지에서 혼자 고생해서 얼굴이 형편없다고 아침마다 맛있는 밥에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미역국에다 삼겹살까지 해주시니..... 이 많은 마구니

의 유혹을 뿌리치기에는 나의 내공이 너무 약해서 그만 요요의 포로가 되어 버린 것이었다. 만나는 사람마다 얼굴 좋아졌다고 한 마디씩 하고, 마누라는 배가 다시 봉실해 졌다고 하고, 목욕탕 가서 저울에 올라가면 어김없이 7자 앞뒤로 바늘이 왔다 갔다 하고, 아! 이제는 요요씨의 영원한 노예가 되어 버렸구나 하는 절망감이 엄습해 왔다. 갈비 구워 먹고 된장찌개에다 밥 먹다가 ‘앗!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비명을 지르는 꿈을 꾸지 않나, 배가 앞산만 해져서 머리감다가 앞으로 떨어지는 악몽이 다시 현실로 나타나게 생긴 것이다.

그러나 의료계의 투쟁은 주춤해 졌지만 나는 여기서 머무를 수가 없었다. 요요씨의 노예로 계속 살수는 없었다. 그래서 나는 포항법원 옆으로 이사를 한 것을 계기로 다시 2차 살과의 전쟁을 시작했다. 마누라가 거금을 들여서 사 준 그 맛있는 생식을 아침마다 사약 마시듯이 들이키고, 아파트 주위에 조성되어 있는 단축 마라톤 코스를 아침마다 뛰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 동안 멀리했던 지긋지긋한 고구마를 다시 삶아 먹기 시작했다. 고구마는 큰 것을 사면 한번에 잘 삶기지도 않을 뿐더러 한꺼번에 많이 먹게 되므로 작은 것을 사서 먹을 때마다 2~3개씩 삶아 먹으면 금방 삶기고 항상 따뜻한 고구마를 먹을 수 있다.

그리고 대구에 가면 마누라가 정성 들여 갈아주는 다시마 과일주스(색깔과 맛이 이상해서 딸은 코를 막고 눈을 감고 먹는다)를 맛있게 먹고 노모께서 해 주시는 밥도 맛있게 먹고 그 대신 포항에 있을 때는 아침은 고구마, 저녁은 안 먹고, 운동할 때는 먹걸리나 한 사발 먹고, 이렇게 한 1년간 요요와 싸우다 보니 체중은 서서히 60대로 접어들기 시작했다. 온 나라가 떠들썩했던 월드컵 기간동안 드디어 60대 초반으로 진입해서 빨간 티셔츠를 입고 몸도 가볍게 폴짝폴짝 뛰면서 응원도 했다.

뜨거운 여름이 지나가고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이 오면서 호시탐탐 침입을 노리는 요요씨는 또 다시 변방을 침입하기 시작했지만 나의 내공도 이제는 상당한 수준이 되어서 그리 쉽사리 당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끊임없는 수련을 통해 내공을 키우는 길만이 요요씨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

겨울이 되면서 야외수련은 어려워졌다. 그래서 돈 안들이고 실내에서 전투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를 궁리했다. 나는 올해 초에 병원을 축소 이전하였다. 그런데 이 자리는 전에는 여성 살 빼기 교실이 있었던 자리인데 망해서 문을 닫으면서 살 빼기 도구들을 옥상 창고에 그대로 버려 두고 갔다.

그 도구들 중에 스텝 보드라는 도구가 있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마치 소 여물통을 거꾸로 엮어놓은 모양으로 생겼다. 이것을 집에만 갖다놓고 아침저녁으로 계단 오르내리기 하듯 음

악에 맞추어서 펄쩍 펄쩍 뛰었다. 한 30분 뛰니까 땀이 비오듯하고, 종아리가 빠근 할 정도로 운동이 되었다. 바로 이거다 싶어서 대구에도 하나 가져다 놓고, 간호사도 하나 가져가고, 의사들 모임에서, 스텝보드로 살빼기를 한다고 하니 까 모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단체로 와서 한꺼번에 몇 개 가져가고, 창고에 수북히 쌓여서 처치 곤란이던 것들이 순식간에 싹없어져 버렸다. 이것이야말로 썩먹고 알먹기, 도랑치고 가재 잡기 아닌가? 효과는 얼마나 있을지는 미지수이나 겨울에 돈 안들이고 실내에서 하는 운동으로는 꽤 괜찮은 것이 틀림없다. 마지막으로 남은 하나는 나를 닮아서 대를 이어 살과의 투쟁을 하고 있는 큰딸에게 보내 주었다. 스텝 보드바닥이 뽕뽕뽕 질하게 윤이 날 정도로 뛰고 또 뛰다 보니, 이제 는 요요씨가 별로 두렵지 않았다. 유비무환이라, 평소에 내공을 키워 놓으면 마구니들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요요씨도 감히 범접을 못할 것이다.

해가 바뀌고 대통령도 바뀌었지만 나의 살과의 투쟁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마구니들의 유혹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고, 요요씨는 탐탐 침범의 기회를 엿



(포항/전민신경정신과의원)



김 장 희

형산강의 밤은 강물따라 흐르고



형산강에 놓여있는 철교위로 전동차가 우르르르 우르르르 소리를 내며 한여름 밤 공기를 가르며 열차 안의 불빛을 철교난간에 반사하며 바빠 경주역 쪽으로 지나간다.

한여름의 형산강 철교아래에는 언제나 밤 낚시꾼들로 붐빈다. 대 낚시꾼과 릴 낚시꾼이 섞여 강가에 장관을 이룬다. 이곳은 경주에서 가장 아파트가 많은 황성동을 옆에 두고 있어서인지 동네 사람들이 남녀 노소 누구나 슬립퍼에 반바지 차림으로 더위를 식힐 겸하여 낚시를 하는 동네 낚시터이다. 더구나 강변을 따라 도로가 개통되어서 강변에 오기 쉽고 그런대로 주차공간도 많고, 가로등은 적당한 조명으로 은은히 강물을 비춰주고 수심은 강가는 약1.5~3 미터 정도이고 유속도 그리 빠르지 않아 대낚시로 밤낚시하기에는 그만이며, 강심은 제법 수심이 깊어서 릴 원투낚시를 하여 대어를 노리기에 아주 좋은 곳이다. 주로 낚이는 어종은 우리 나라 강에 있는 물고기는 거의 다 있으나, 붕어와 잉어가 주를 이룬다. 미끼는 떡밥과 지렁이를 쓰는데 지렁이에는 메기, 피라미, 빠가사리등 잡고기들이 잘 잡힌다.

퇴근 후 저녁식사를 마치고 어둠이 서서히 내려오기 시작하면 주섬주섬 가벼운 차림에 커피를 타 보온병에 넣고 낚시대와 장비가 실려있는 차를 몰아 늘 가던 형산강 가에 도착하여 철교에서

부터 약150미터 하류 쪽에 사람들 사이에 자리를 잡았다. 과거 초보시절엔 릴낚시도 즐겼으나 이젠 낚시대 한 대로 고기와 승부를 한다. 내가 앉은 좌우로는 몇 대씩의 낚시대를 펴서 낚시를 하고 있다. 많이 편다고 많이 낚는 것은 절대 아니다. 우선 받침대를 자리하고 3칸 대를 펴서 봉돌에 맞는 찌를 찌고무에 끼우고 찌끝에 가장 작은 2밀리 케미라이트를 꽂았다. 채비는 미리 집에서 만드는데, 나는 원줄은 가장 가늘게 바늘은 가장 적게 미끼는 가장 작게 다는 것을 좋아한다. 미늘없는 붕어 5호 바늘을 2호 흡입합사목 줄로 묶고 7핀 봉돌을 물린다. 특히 밤낚시를 할 때에는 실수로 손이나 옷에 바늘이 걸려도 잘 빠지는 미늘없는 바늘이 좋다. 우선 봉돌 위에 찌를 위치하여 몇 번 수면으로 투척하여 봉돌을 커트로 깎아내며 케미라이트 끝이 수면에 살짝 보이게끔 영점으로 현장 찌 맞춤을 하고, 다시 수심에 맞게 찌를 올려 수면 위에 케미라이트가 잘 보이게 조절한다. 떡밥을 그릇에 적당히 부어 넣고 손으로 물을 넣어가며 낚시를 만지는 촉감 정도의 뭉기로 반죽을 한다. 처음엔 엄지손톱보다 조금 크게 떡밥을 달아 대 여섯번 던져 넣는다. 그리곤 될 수 있으면 적게 팔알만하게 바늘에 달아 던져 넣는다. 이곳 형산강에는 밤 9시경에 붕어입질이 자주 오고 씨알은 15~25센치 급이 주로 잡힌다.

아직 초저녁인데도 채비가 수면을 치고 바닥으로 내려가면 5치~6치 가량의 전차표나 감잎정도 붓어가 시원스럽게 찌 몸통을 쭈욱 수면위로 올리며 입에 낚시바늘을 물고 올라온다.

“그.. 참 잘 잡아내네. 거기가 포인트인가봐. 내 건 입질은 오는데 통 잡아내질 못하겠네. 아저씨 똥 비법이라도 있능교?” 하며 옆에 있던 나이가 지긋하신 초로의 낚시꾼이 물어오네.

결눈질하여 노인의 낚시대를 보니 글라스로드 대에다 낚시줄은 5호 정도의 굵은 모노필라멘트 사에다 찌는 투박하고 찌 톱이 0.5센치는 뽕만한 튜브 톱이고 채비는 낚시바늘이 5개나 꽂혀 있는 멍통 구리 채비가 아닌가. “아, 예! 별다른 비법이 있겠습니까? 눈으로 낚는 거지요. 이런 채비로는 고기가 스스로 물고 잡아가소 할 때까지는 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예민하게 찌를 맞춘 다음 입질을 파악하여 찌가 쪽 올라오면 그 순간을 포착하여 부드럽게 챔질을 하는 거지요. 이크.. 저거 보세요. 찌가 한껏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제 슬쩍 챔질을 하면 되지요.” 낚시줄이 팽팽해지면서 초리대 끝이 수면을 향하여 곤두박질 친다. 팔목에 힘을 주어 낚시대를 꺾 쥐고 발바닥을 지면에 붙이고 무릎을 약간 굽히고 두 팔을 펴고 낚시대를 세웠다. 쭈쭈쭈쭈, 고기가 마음 먹은 대로 끌려오지 않고 비스듬히 옆으로 차고 나간다. 몇 번을 좌우로 왔다갔다하더니 힘이 빠졌는지 시커먼 등줄기가 물살을 가르며 내 발 밑으로 끌려온다. 25센티급의 토종붕어다. 물가에 도착시켜 받침대위에 낚시대를 올린 후 오른손으로 낚시줄을 잡고 왼손으로 살며시 잡

으니 이놈이 최후의 발악으로 파드득 용을 쓴다. 그러나 이미 내 수중에 온 이상 살림망에 들어가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고기의 식사시간인가 연속으로 온다. 이렇게 채고 낚시대를 세우고 고기를 떼고 미끼를 달아 던지기를 몇 번하고 나니, 형산강 철교위로 새마을 열차가 척뜨거덕 척뜨거덕 거리면서 차내 불빛을 철교난간에 부딪치며 지나간다. 이제 입질이 뜸하다. 아까 옆에 있던 초로의 낚시꾼이 내게 다가왔다. 내가 보온병에 있는 커피 한잔을 권하였다. 더운 커피에 입술을 적시며 커피향을 한 모금씩 입안에 머금는다. 이 노인은 경주가 고향은 아니지만 자식의 직장 따라 경주에 왔다고 한다. 낚시는 과거에 어릴 적에 누구나 하듯이 그저 그렇게 해 본 것 밖엔 없단다. 노인에게 대충 내 채비를 보여주고 섬세하게 맞춰야 고기를 잘 잡을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곤 노인의 낚시대에 다시 채비를 만들어 현장에서 찌 맞춤까지 해드렸다. 얼마 후 고기를 걸어서 내게 보여주면서 “역시 과거 무대포로 하던 낚시하고는 달라. 이 멋있는 찌 올림이 환상적이구먼....” 그리곤 몇 번의 손맛을 더 봤다.

다음날부터 난 이 노인을 형산강 가에서 자주 만나게 되었다.

형산강의 강물은 흘러가고 아! 나는 또 한사람을 낚으로 인도하였다는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다.

(경주/김장희산부인과의원)



송 광 익



그 래 어떻게 지내는가? 꽤나 오래 전에 약속하였던 포항 물회가 그만 말라 비틀어져 포가 될 지경이라는 자네의 항변에 뭐라 할 말이 없네그려. 설부른 어른 흉내를 내자면, 사람 사는 게 다 그 모양이 아닌가도 싶으니. 젊어서 시간이 남을 때 차비가 궁색하고, 나이 들어 호주머니에 조금 여유가 있을 때는 시간이 없어서 찢절매고... 그러다가 어느날 시간도, 찜짓도 제법 남아돌때는 그만 아랫도리에 힘이 없어서 엉거주춤거릴 수 밖에 없는 사람살이가 말일세. 부디 속 넓은 자네가 헤아려주기 바라네.

자네나 나나 어느덧 ‘꺾어진 80’의 중턱을 넘게 되었네그려. ‘나이 40이면 불혹(不惑)’이라는 공자님 말씀에 물건너 링컨이라는 이가 ‘나이 40이면 스스로의 얼굴에 책임을 지라’고 대거리를 하였다지. 아마도 그쯤이면 자신의 삶에 대해서, 혹은 그 삶의 흔적이 새겨진 얼굴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이루고 책임을 지라는 이야기가 아닌가도 싶네. 그러나 그 ‘불혹(不惑)’이라는 구절에서 역설적으로 ‘미혹(迷惑)’이라는 의미를 읽어내는 이도 있더구먼. 성인의 말씀들은 대개 어리석은 필부들에게 경계하라는 뜻이 숨어있기 마련이니, 되려 ‘인생 40에 제발 흔들리

지 마라’라는 이야기 이기가 십상이라는 게지. 그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요즈음 들어서 자주 해본다네. 굳건히 세우라는 삶의 자세는 마냥 흔들거리고 있는데, 엉뚱하게 얼굴 표정만 딱딱하니 굳어있는 내 꼬락서니가 문득 문득 떠올려져서 말일세.

전번 설날 뒷날 의성으로 어느 선배님께 문상을 갈 일이 있었네. 평소 눈물 많고 신명 많은 어느 선배님과 동승을 하여서 말이네. 요즈음 들어 그림 그리기에 부쩍 재미를 붙였다는 그 선배는 시종일관 디지털 카메라로 길가 풍경들을 찍기에 정신이 없더구먼. 입춘(立春)이 바로 코앞에 다가왔다지만, 아직은 을씨년스러운 겨울 풍경이 무엇이 그리 예쁜지, 연신 감탄사까지 내뱉으면서 말이네. 그러던 중 그 선배의 무심코 툭 던진 한 마디가 내 귓가에 내내 맴돌더구먼. ‘예전에는 심상(心象)의 아름다움을 찾노라 마음이 바 났는데, 요즈음 들어 그냥 물상(物象)이 예쁘게 눈에 들어온다’고 말일세. 마주치는 사물에 스스로를 일치시켜 감동을 받기 위하여 온 몸으로 긴장하는 절절함보다는 그냥 스쳐가듯 눈길을 들어 그리 무겁지 않은 감탄을 할 수 있는 자유로움. 나같이 가슴이 허전하고 얼굴이 딱딱해진

놈에게는 마치 구원의 소리인 양 들려오더구먼.

그래, 이미 굳어진 가슴과 얼굴의 완고함을 풀기 위해서 우선은 감탄하는 걸로 시작하자! ‘TO BE, OR NOT TO BE’ - 라는 버거운 탄식 대신에, ‘이제 와 새삼 이 나이에 감동의 눈물이야 있겠냐마는...’ 라는 어느 대중가요의 노랫말이나 흥얼거리며 여행이나 떠나보자꾸나. 그 단출함 만큼이나 되려 더 많은 곳을 기웃거리 볼 수 있지 않은가? 예나제나 뒷감당은 못하면서 일단 저지르고 보는 불치의 천성에 기대어 요즈음 온갖 곳을 다 돌아다니고 있다네. 학생 시절 그토록 강의를 땡땡이 치던 놈이 제 발로 이런저런 강좌도 기웃기웃, 외진 구석의 절집이나 돌탑 구경길에도 쫓레쫓레... 때로는 의사회에서 ‘의사들 못살겠다’라는 소리에도 고개 끄덕, 시민모임에서 ‘의사들 때문에 못살겠다’라는 말에도 고개 끄덕... 옳니 그르니 혹은 잘살았니 헛살았니 따위를 따지는 거야 저쯤 밀쳐두고서,

그저 그렇게 ‘아하 그렇구나’라는 싱거운 감탄사나 내뱉으면서 말일세. 똑 같은 일을 저렇게도 볼 수도 있겠고, 또 사람마다 그렇게도 보일 수 있겠구나! 물론 내심으로야 바람이 잦다보면 언제가는 감동의 소나기 한 자락쯤 걸칠 수도 있겠지 라는 속내가 없지는 않지만 말이네. 우선은 굳어진 이맛살일랑 조금은 풀고서, 덜떨어진 웃음이나 흘리면서 그냥 그렇게 쏘다닐까도 작정이 라네.

그래, 언제고 동해 바닷바람 쐬면서 싸아한 썰 주나 한 잔 나누세그러. 굵든 몸예 장엄한 해돋이 앞에서의 감동적인 장면이야 언감생심 꿈꾸겠냐마는, 그냥 그렇게 넉넉한 해넘이에 외마디 감탄사나 안주 삼아서 한 잔 하세그러. 옥같은 몸과 마음일랑 부디 고이 간직하세그러.

2003년 꽃샘추위 속에서
달구벌 앞산자락에서 굵든소가
(대구/송광의소아과의원, 대구시의사회 공보이사)





박 창 로

촌놈 맨하탄에 가다

지난 여름휴가 때 촌놈이 무려 보름간을 병원 문을 닫고 미국과 캐나다 여행을 다녀왔드랬습니다. 다들 속으로 ‘미쳤구만’ 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었었고 내심 이거 갔다오면 자동폐업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일말의 불안감도 있었지요. 사실 출발 당일 대구에서 김포가는 비행기에서 만난, 인근에 개업해서 성업중인 원장님이 처음엔 워싱턴DC에 간다니깐(마눌과 딸아이를 번갈아 쳐다보며) “에이 웬 농담을...” 이라며 씩 웃더군요. 그날 평소에 과묵해 보이던 그 원장님은 5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더니 결국 김포에 내려 도심공항터미널로 향하는(여기서 미리 수속하면 조용하고 비용이 싸지요) 우리 가족을 보더니만 그제서야 잘 다녀오라는 말을하고 돌아서면서도 속으론 ‘이상한 가족이다’ 라는 의구심이 완전히 가시지않은 얼굴입니다. 그 원장님은 자제분이 모두 캐나다인가에 유학중인 걸로 알고있는데 그냥 병원 문을 닫고 단순히 놀러 간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일 안하고 놀러 다니니 어디 간들 즐겁지 않겠습니까? 나의 마눌의 경우에도 밥 안하고 놀러 다니니 어디 간들 즐겁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이 촌놈의 눈에 비친 뉴욕은 정말 쇼킹하더

군요. 렌트카로 맨하탄 시내로 들어오는 순간, 그 어마어마한 규모에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정말 도시중의 도시랄까요. 경제와 상권, 유행과 패션.... 세상의 진귀하고 탁월하고 값비싼 것은 모두 모여있는 듯한 느낌이더군요. 마눌께서 한마디 거들던데요. “우와 적어도 한달은 더 걸리겠다. 이걸 모두 구경하려면. 이탈리아의 밀라노에 비교하면 서울과 안동 짝은 되겠네... 밀라노는 아무것도 아니네...”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연수중인 절친한 친구를 따라 다니는 여행이지만 그 친구가 워낙 탐험정신이 뛰어나서 무엇이든 지나치는 법이 없는데 친구의 차를 나의 렌트카로 꿈무늬를 따라다녔는데 두 차간의 통신수단으로는 무전기를 사용했는데요 “지지직.... 지금 할렘가로 들어간다. 좌회전하자.... 바짝 따라와라...” “지지직.... 알았다 오바.” 뭐 이런 식으로 다녔는데 할렘가라하니 순간 겁이 덜컥 나더군요. 이거 마약에 취한 흑인이 차를 향해 총질을하며 돌진하지는 않을런지 뭐 이런 상상을하며 운전을 처음 배울 때처럼 핸들을 바짝 땡겨앉아 바짝 쫓아든 상태로 두리번거리며 구경했습니다. 뉴욕 맨하탄에도 이렇게 음침하고 후져보이는 곳이 있더군요. 낡은 건물입구에 쓰러져 자는 홈리스, 팬티를 바짝

땀겨 올려입고 바지를 오히려 그 팬티위로 반 정도만 올려서 허리띠를 하고 (그것도 패션이라고) 귀에는 이어폰에, 손에는 햄버거를 든 비만하다 못해 터질 것같은 몸을 하고 어슬렁거리는 주민. 금방이라도 흑백 2인조 경찰이 나타나 영화에서 처럼 한바탕 소탕전을 벌일 것 같습니다. 지금도 할렘가에 대한 기억이 여전한데요. 영화에서 보았던 장면들과 실제기억이 뒤범벅이된 것 같아요.

아뭇튼 그런 할렘을 지나 남북으로 길게 놓인 센트럴 파크를 따라 차를 몰았지요. 어떻게 이 거대한 빌딩숲에 이렇게 큰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지..... 공원을 들여다보니 한가롭게 개를 데리고 다니며 산책하는 사람들이 있고 조깅을 즐기는 사람들도 많더군요. 그 센트럴파크를 따라 공원 맞은 편으로는 고급 아파트임에 분명할 것 같은 분위기의 주택단지가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또 ‘프리티우먼’이나 ‘뉴욕의 가을’이란 영화에서 본 것같은 분위기 그대로인데 금방이라도 어디선가 리차드기어가 뛰어오고 줄리아 로버츠의 얼굴이 크게 클로즈업 되는 상상을 했지요. 왜 있겠습니까? 건물외벽에 그대로 붙어있는 철제계단을 두고 두 연인이 올라다보고 내려다보다가 누가 그 계단을 타고 오르며.... 어찌고 하는 장면 있겠습니까?

무너진 쌍둥이 빌딩 자리엔 관광객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유가족이 벽에 붙여놓은 유물과 편지 등등을 유심히 살피더군요. 저도 차에서 내려서 한참을 그 그라운드 제로에서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자유의 여신상이 있는 리버티 섬으로 가

는 배를 타는데도 소지품 검사를 비롯하여 검문이 꽤 뽀뽀하더군요. 9.11 테러 때문이죠. 아닌게 아니라 보스톤 로건 공항에서는 제가 반바지에 모자를 쓰고 캠퍼를 어깨에 매고 검은색 슬리퍼를 신고 통과할려다가 검문에 걸려서, 손들어 신발벗어 신발 밑창 보여 허리띠 흔들어 봐 등의 수모를 당했는데, 적극 협조해야지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거 내가 유색인종이라서 특별히 경계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더운 날씨이지만 리버티 섬에 내리니 시원한 바람이 불고 잔디밭이 있어서 팔아이는 뛰어놀고 저는 마눌과 함께 커피와 양파링을 먹으면서 배에서 내리는 사람들을 구경하며 눈앞에 펼쳐진 망망대해를 바라보고 있자니 언뜻 불길한 생각이 들었지요. 그건 다름아니라 저 수평선 끝 푸른하늘에서 비행기가 새까맣게 출몰하여 이 곳 리버티 섬을 향하여 빠바바바방하는 생각이죠.

예술가들의 아지트라고 하는 소호거리를 지났는데 길으로만 봐서는 어떤 분위기인지 도무지 짐작이 되지않더군요. 이윽고 시끌벅적한 차이나타운으로 들어서니 온갖 잡다한 것을 내놓고 파는 난전이 길가에 뽀뽀하게 있더군요. 적당한 중국집으로 들어가서 뭘 먹을 지 몰라서(사실 자장면이 먹고싶는데 그게 어디 있습니까?) 벽면에 종이로 아무렇게나 붙여놓은 투데이스 스페셜을 달라고했는데 그것도 종류가 많아서 번호를 붙여놓았더군요. 소소가 특이한 것이 생각과 달리 맛이 좋았습니다. 백인 손님도 많이 있었습니다.

못하는 영어로 주인에게 질문을 하나 했었는데, 중국인과 한국인의 얼굴 생김새의 차이점이 뭐냐니까 그 주인이 말하길, 한국인이 눈썹을 연결한 선을 옆으로 그었을 때의 이른바 transverse diameter가 더 길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그러고 보니 그런거 같은데 우리가 더 넓덕하다 이런 얘기같아서 괜한 질문을 했다 싶더라고요.

차를 많이 타고 걷고 배불리 먹고나니 노곤한데 저녁 8시 뮤지컬 시간에 맞추어서 바빠 움직였죠. 타임스퀘어에 들어서니 전면에 가장 잘 보이는 높이에 SAMSUNG 이라고 반짝거리는데 반갑더군요. 웬 사람이 그렇게 흘러 다니는지... 경찰 사이렌 소리는 계속해서 울리고 그야말로 인종박람회가 따로 없더라고요.

브로드웨이에선 극장마다 한가지를 장기공연 하는데 미스사이공, 오페라의 유령....등등 알만한 간판을 걸어놓은 극장이 약간의 거리를 두고 군집을 이룬 모양이던데요. 라이온킹을 공연하는 극장입구에 다다르니 사람들이 줄을서서 입장하는데 어디서든 줄을 서는게 자연스럽고 태연자약해 보이죠. 일인당 40불 정도 준 것같은데 2층으로 안내받아 C 석으로 다시 일렬로 쪽 연결된 의자를 비집고 익스큐스미를 연발하며 자리에 앉았는데, 우와... 이거 비행기좌석보다 앞뒤가 훨씬좁고 쫓기는데 게다가 앞뒤 경사가 급해서 거의 목넙히는 자세로 내려다 보아야 하는데 언뜻 드는 생각이 그랬습니다. 야 이거 밑에서(로얄박스) 올라다 보면 마치 내가 천장에

매달린 원숭이로 보이지나 않을까 하는 생각 말이죠.

공연장은 좁으나 음향시설은 물론 잘 되어있고 무대 역시 크지않으나 입체감이 있고 조명이 특히 눈치채지 못할만큼 은근하고 자연스러웠습니다. 막과 막 사이에 무대장치가 변하는 모습이 나 물흐르듯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연출은 역시 장기공연다운 능숙함이랄까 베테랑의 면모가 보이더라고요. 라이온킹이 어떤 내용인지는 확실하게 모르고 그저 심바라는 사자가 주인공인데 아프리카를 배경으로 권력계승에 관한 암투를 다루고있다는 정도로만 알고 봤는데 솔직히 좀 말을 알아듣질 못해서 많이 아쉬웠죠. 며칠전에 딸아이 만화책을 같이 보며 이야기를 맞추어 보니 좀 생각이 새롭긴 하던데요.

막이오르고 초원을 배경으로 기린과 얼룩말 사자 등이 나타나는데 흔히 보아오던 것처럼 사람이 동물가면 전체를 뒤집어 쓴것이 아니라 배우의 얼굴과 근육질 가슴 등이 그대로 노출된 채 모자를 쓴다던지 장갑을 낀다던지... 기린같은 경우에도 두 명의 남자가 목발을 타고 각도를 굽혀 인체의 굴곡과 사지의 선을 그대로 살리면서, 그러면서도 놀랍게도 진짜 초원에서 살아 움직이는 듯한 동물의 형상을 나타내는데요, 우와!..... 저는 첫장면 부터 느낌이 오더라고요. 국물로 치면 진국이고 맛집으로 치면 원조맛집인 셈인데 역시 연극의 본고장 답다는 생각이 드

는데요. 문외한의 눈에도 일순간에 어필하는 흡입력이 분명 있었습니다.

공연은 두시간 가량 이어졌고 솔직히 말하면 워낙 피곤하여 조금씩 졸긴했지만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이런 공연을 언제 또 보겠나 싶어서 졸음을 깨워가며 보았지요. 옆에 있던 마눌의 경우에도 무대장치와 배우들의 자연스러운 분장에 대해서 격찬을 하더군요. 그녀의 말에 의하면 “뉴요커들은 좋겠다. 낮에는 쇼핑하고 저녁엔 뮤지컬보고 잠은 센트럴파크 맞은편 아파트에서 자고.....” 뭐 이런 가당찮은 얘기를 혼잣말처럼 하더군요.

사실 지금도 딸아이가 뮤지컬 라이온킹 얘기를 자주 하는데요 “아빠하고 같이 보았던 것 오래 기억해야돼” 했더니 딸아이 말이 “아빠 ... 아빠는 집에서 돈 많이 벌고있어 난 엄마랑 또 보러 갔다올께....” 나는 속으로 끄 하며 마눌의 눈치를 보니 마눌은 아주 묘한 표정으로 배시시 웃더군요. 나는 그런 마눌을 보고서 터질 것같은 웃음을 참으려해도 억눌러도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는 웃음을 애써 참으며 그 때 그 공연장을 다시 떠올립니다.

무슨 얘기나하면, 마눌은 여행 이후에도 만나는 사람마다 기회있으면 브로드웨이 공연을 꼭 보라고 권하곤 하는데 그녀에게도 아마 뮤지컬 공연이 가장 인상깊었던 모양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그녀는 처음에 각종 동물들이 등장하고 이

터 잠들기 시작하여 정신없이 나의 어깨에 기대어 자다가 정확하게 막과 막 사이에, 누가 깨우지도 않았는데, 정확하게 깨어나서 누구보다도 열렬하게 박수를 치며 이내 다시 태엽이 풀린 인형처럼 스프르 잠들었다가 또 다시 막과 막사이에만 다시 정확하게 깨어나서 놀란듯이 박수를 치곤했는데 아마 그녀로서는 정말 특이한 경험이었던 것같아요. 그렇게 자동으로 시간을 잘 맞춰서 박수를 칠 수 있다는게 말입니다.

10시 쯤 공연을 마치고 거리에 나오니 여전히 사람들이 넘치는데 인근의 가게에 들러 CD 몇장을 사고 여유롭게 좀 거리를 걸어볼 요량이었는데 난데없이 마눌이 나의 팔장을 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자기도 운동 좀 해야겠다. 청년 심바의 가슴근육이 너무 멋지던데” 나는 속으로 끄 하면서도 생각해 보았죠. 청년 심바의 그것은 불가능해도 나의 고질적인 원통형 몸매개선은 좀 해야겠다고.

우리 가족에겐 좋은 추억이 또 하나 만들어진 것이지요. 언젠가.... 아침에 일어나 센트럴 파크에서 조깅하고 저녁엔 느긋하게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또 봐야겠지요. 돈이 좀 없어서 수월하진 않겠지만 언젠가 다시 가면 추억이 더욱 새롭지 않겠습니까?

(안동/박소아과의원)



김 두 희

악몽의 반추와 새희망

우 리 의료계 현실문제를 논하기 전에 과거 정부의 주도이거나 후원으로 사회 개혁을 시도하여 성공적이라 할 수 있었던 사업들을 열거해본다. 월남전 참전처럼 커다란 희생을 치른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전쟁이었다. 새마을 사업, 경지정리 사업, 산림 녹화사업, 아시안 게임과 올림픽, 월드컵 유치 등은 평화적인 사업으로써 사회 발전에 큼직큼직한 획을 그었다. 물론 그보다 작은 사업도 부단히 이루어진 것도 사실이다. 이처럼 사회 개혁을 평화적으로 이루게 된 저변에 깔린 공통분모라 할 수 있는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중 가장 큰 것이 거기에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공감대를 얻은 것은 물심 양면으로 다소간의 이득을 안겨주었다는 사실이다.

의 료문제의 근본도 이와 다를 바 없어야 할 것인데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이처럼 소란하게 되었는가를 가슴에 손을 얹고 곰곰이 생각해 보라. 위 성공 사례와는 반대로 의료인과 국민 모두에게 불이익과 불편을 안겨준다는 인상을 면치 못하였다. 복지국가건설의 선봉이 되어야 할 의료계에 대한 처우를 어떻게 하였는가를! 거기에는 상위법을 무시하고 장관의 고시(告示)

를 우선하는 등 스스로 법치국가의 신뢰를 잃어감으로써 민주주의를 앞세운 사람들의 사상을 의심케 하였다. 의료단체는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이지 GO가 아니다.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복지사회의 꿈을 이룰 때 의료보험제도를 맨 먼저 시행함으로써 이끌어갈 수 있었던 것도 그 사회의 바탕에 인본주의가 깔려있었다고 본다. 그 후 이웃나라에까지 환영을 받으며 북구로 퍼져갔고 따라서 동구에서 불어오는 공산주의를 막게 되었던 역사적 사실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의사들에게만 지나친 희생을 강요하였다. 따라서 진료방법이나 진료비청구권 등 소위 의권(醫權)이라는 자존심까지 건드렸다. 아직도 다소나마 남아있는 히포크라테스 정신을 정책으로 박탈하여 팽개치고 오히려 잘못되는 의료정책의 책임을 의사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 하겠다.

사 전 홍보에 앞서 뻔히 보이는 문제점을 알면서도 검토 없이 의약분업을 강행함으로써 우리 의약계를 참으로 어지럽게 하였다. 그리고 부당한 처우에 항의하는 직능별 데모를 집단적 이기주의라 몰아붙였다. ‘작은 데모는 없는

것보다 낫다'고 한 (민주주의 정착을 유도하던 미국의 유명한 3대 대통령, 벤저민 프랭클린의) 말을 듣지도 보지도 못한 모양이다. 이 말은 자유를 유지하면서 국민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고 아픈 데를 진통시키는 비법이건만 그들에게는 아랑곳 없었다. 또 시민연대라는 대표들이 가세 하였고 변덕스런 언론까지도 합세하여 난간으로 몰아붙였다. 이것은 바로 양심적인 의사들의 분통을 터트리는 행위였다. 우리는 1945년 광복 이후 오늘날까지 민주주의를 배우고 가르치며 또 실천에 노력해 온 세대이건만 어찌 이렇 수가 있겠는가! 적어도 노력하는 것만큼 처우를 받지 못하는 우리 의료계에서는 당연히 항의시위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권력자의 명령은 마치 항상 백성(민주)을 빙자하여 잘 따르지 않은 상대를 처부순 과거 전제주의 사고방식 같기도 하였다. 누구든 간에 자기의 목적을 위하여 진실을 벗어난 위장전술로 이룬 것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역사가 말해 준다. 혹 비양심적인 의료행위가 가끔 있었다고 하더라도 한 나라를 경영하는 사람으로서는 개별 처벌(처벌 규정이 있음)로서 끝낼 일이지 온 집안을 뒤흔들 필요는 없었던 일이었다.

한편 아는 듯 모르는 듯 하는 사이에 정부에서는 능력만큼 이익이 올 수 있게 하는 정책을 펴온 것을 부인 못할 것이다. 그런데 누구의 능력은 인정하고 누구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정부의 자승자박 행위가 되는 것이다.

산업장에서의 적재적소라는 용어를 이해하리라 믿는다. 적어도 비능력자가 스스로 개발하지는 못할 망정 능력자를 시기한다던가 모함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오랜 동안 불러오던 문교부라는 명칭을 교육부로 또다시 교육인적자원부로 이름을 급속하게 바꿔 온 것은 인간의 능력을 최대한 계발하자는 의지로 받아들여지지만 전통사상을 무너뜨리는데 일역을 하였다고 보며, 능력자든 아니든 무한한 경쟁으로 치닫게 하고 있어 정서를 삭막하게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자연계에서는 약육강식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나 인간이기에 능력이 있는 자나 약자나 자신을 인정받으며 서로 도우면서 함께 잘 살아보자는 것이 복지사회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보건사회부라는 명칭이 피상적이라 하여 보건복지부로 바꾼 것도 건강한 복지사회로 한 걸음 나아가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 안도하였던 것이다. 여기에 문화가 있고 철학이 깃 드는 휴머니즘이 넘치는 사회가 안주할 것이 아니겠는가 싶기도 하였다. 의료보험 제도 도입 시에 우리 의료계에서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하여 앞장선다는 기치를 내세운 바도 있다. 정부는 약품 남용에 의하여 병들어 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책임을 지고 의약분업의 의지를 표현하였으면 그 정책입안에 동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백여 년간 쌓아 올린 노하우를 이용하도록 의약전문인 집단에서 스스로 편의점을 찾게 놔두고 잘 되지 않을 때 중재하는 것이 옳다.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준다는 것은 혼란을 자초하는 일이 되는 것을 몰랐다고나 할까.

일단 원천적인 이론은 그만두고라도 복지부 관계자들이 의약분업 전면적 실시 때에 놀라운 사실이 실제로 일어났던 것이다. 이미 분업을 하고 있는 병원급 이상의 내부 약국을 밖으로 내몰았다. 간단한 주사약까지 시중 약국에서 사 오지 않으면 안 되도록 시행한 것이다. 환자들의 불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 자부담 의료비도 의료기관과 약국 양쪽에서 지불하게 함으로써 2중 또는 (보험금까지 합치면) 3중으로 부담하는 감을 주게 하였다. 그러고도 다분히 상승될 건강보험금 지불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최근 다소 완화하였다고는 하나 동네 약국까지 살아남기 어렵게 하였다. 그 후 의료비 체불 빈도가 증가하는데도 정부에서는 일정한 수입원으로 가능하다고 국민들에게 호언하였다. 눈덩이처럼 쌓여 가는 적자 이유를 의사들의 과다진료 때문이라고 호도하고 그 책임을 의료계에 전가하며 부적절한 비율로 진료비를 깎아 내리기 시작하였다. 그 동안 선심만 베풀어오던 의도(醫道)는 아연 실색하였다. 그 적자는 정부 보조로 이루어지리라는 믿음도 사라지고 결국 우려하였던 일들이 오고 말았던 것이다. 가만히 앉아서 어이없는 누명을 쓰고 어이없이 빼앗겼던 의권에 대한 명예 회복에 온 힘을 기울이다보니 이는 숙명적이라 할까! 일제히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최근에 와서 다소 완화의 길이 차차 열리고 있는 점이 보이기에 다행한 일

이라 할 것이나 아직 그 방향을 종잡을 수 없으며 지난 2년간은 그야말로 의료계의 악몽임에 틀림없다고 하겠다.

성급한 정치인들이 저질러 놓은 일들의 결과는 국민들의 혼란과 불안을 조성하게 하였다. 이럴 때 대선(大選)을 맞이하게 되었으니 국민들은 어떤 사람을 선호하겠는가. 그것은 뻔하다. 모든 사람들의 심리는 불안한 나(自身)에게 좀 더 안정을 찾게 해주고 따뜻하게 해 주겠다는 사람을 택하게 되어있는 것이다. 오늘의 유권자는 그 이전의 유권자가 아니었다.

대외적으로 많은 난제가 있지만 대내적 국민복지를 위한 새 정치에 바램이 있다면 의료계의 안정이 최우선이라 하겠다. 지배적 통치개념을 벗어나 국민의 참여라 하였으니 정부와 백성들은 특수 경우를 제외하고 각자의 건강(정신, 육신, 사회, 영적)을 위하여 노력하고 투자하여야 한다.

뒤틀어진 의료분업시행에서 그 종사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게 해주고 사랑과 자비심 넘치는 일터가 되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경북대학교 명예교수(예방의학)



신 은 식

나라에는 헌법이 있고 사회단체에는 그 단체에 알맞은 정관이 있다. 모든 국민은 마땅히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경영하는 위정자도 이를 따라야 한다. 우리의사협회도 우리에게 가장 훌륭한 정관을 마련하고 모든 회원은 이를 지키고 우리의사회를 단합과 강력한 힘을 가진 사회 단체로 육성되기를 희망하면서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헌법개정이라는 것이 어려움과 마찬가지로 우리 의사회의 정관을 개정하는데도 상당한 어려움과 노력이 뒤 따라야 한다.

의협정관 제19조 3항에 정관개정은 재적대의원 3분의2이상 출석에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가결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런 어려움은 집행부나 특정집단의 임의대로 정관을 쉽게 변경하지 말자는 근본뜻이 있는 것이다. 우리의사협회란 명칭이 과거에는 대한의학협회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대한의사협회로 개정하자는 의견이 대두되어 “학”자를 “사”자로 글자한자 바꾸는데 수년간의 논의 끝에 긴급동의형식으로 겨우 통과된 사실이 있으며 의사회장 직선제를 놓고 수많은 진통을 겪은 후에 겨우 통과되어 현재 직선제 회장을 선출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금번직선제 회장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유권자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점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복지부 면허 발급수는 약8만명에 가까우나 우리의사협회에 신고 되고 실제 의사로

서 활동하는 의사수는 의협신고회원수 5만6천여명(2003년도 의사합격자제외)이나 투표유권자수는 3만 2,700여명에 지나지 않는 다니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그토록 어렵게 개정한 회장직 선제에 투표권자의 수가 이 정도라니 정말 깊이 생각 해야 할 문제인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정관 제1조, 이 협회는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사회의 중앙회로서 대한의사협회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5조 대한민국의 의사면허를 취득한자는 협회의 소속회원이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6조에는 회원의 권리와 의무가 명시되어 있는데 국민이면 납세 병역등 기타 의무가 있고 참정권 언론결사의 자유권등 기타의 권리가 있으며, 우리회원의 경우는 회비납부 회원신고 각종집회의 참가의무가 주어지게되며 회장 피선거권 선거권 회원권의 보호권등의 권한이 있다. 많은 회원이 이를 깊이 인식하고 집행부의 활동에 적극참여하고 솔선하여 회무수행에 큰 힘을 실어주는 반면 극히 일부회원들은 회무수행에 조그만한 불만이 있다고 회무신고를 기피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이 있음을 보고 많은 회원들이 안타까운일로 생각하고 있다. 아무리 개인적인 불만이 있다한들 의사의 중앙회를 구심점으로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서로 독려하고 집회에 참가하여 불만을 토로하고 시정하도록 노력하면서 일단은 의무

부터 시행해야 할 것이다.

작년 4월27일 제5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 정족수 미달로 예산안처리를 할 수 없었던 일이 있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것은 각지역의사회원이나 직능을 대표하여 필히 참여하여 소속회원의 권익을 위하여 충분한 의견을 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의무를 다하지 않은 대의원들의 책임도 있지만 집행부의 세밀한 사전조율과 대의원참여의 독려 및 이탈 방지를 못한 책임도 있다고 보아 상호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중앙회의 감사로서 감사를 실시해본 결과 우리 경상북도 회원은 모든면에서 가장 열성적이고 모범적인 회원들의 집단이라고 평가 하고 싶다. 본인이 경북회원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모든 통계자료가 증명하고 특히 의사협회 모든집회의 참가율이나 회비납부 비율 공제회가입비율 각종기금모금 학술대회 참가등 어느것 하나 뒤떨어짐이 없는 것을 보고 가슴 뿌듯함을 느꼈다. 전통적으로 집행부를 중심으로 단합과 화합을 이루는 우리 경북회원들에게 격려와 찬사를 보내고 싶다.

회원신고를 철저히하고 각종기금을 납부하는 것은 우리회의 힘을 키우고 나아가서 대외 활동을 원만히 수행함으로서 우리의 권익을 찾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사회가 될 것이다. 나 개인의 조그마한 불만으로 회무에 협조하지 아니하면 우리의협의 힘은 약화되고 결국에는 타율에 의한 지배를 자초하게 될 것이다. 최근 일부 개원의 협의회에서 의료보험제도의 조그마한

불만으로 의협회비납부 거부운동이 있다가 다행히 철회되기는 하였으나 이런 생각의 발상자체가 우리 협회의 힘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될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불만은 협상으로 타결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회비납부거부라는 말 자체를 거론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절대로 회비문제를 압박수단의 무기로 삼지말자.

의협집행부는 각종기금과 성금모금에 철저한 계획과 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2002년 의협발전기금을 거출하기로 하여 초기에는 다소 실적이 있는 듯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실적이 저조하여 1차년도 목표액에 훨씬 못미치는 기금을 확보하였으니 앞으로 의료 정책연구소운영 등의 재원조달에 어떻게 대처 해야 할것인지 다시한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의협집행부는 어떻게하면 회원의 권익을 되찾고 의료 보험수가의 현실화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회원들의 회무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회원이 회원등록을 실시하여 모든회원이 투표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다. 한 이웃에 있는 회원이 등록을 하지 않으면 도미노현상으로 많은 회원으로 확산되고 나아가서는 의협회무에 중대한 자질을 이르게 회원권익보호에 적신호를 이르킨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서로 독려하고 동료로서의 애정으로 회무에 참여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회원은 지성인 단체답게 나 개인을 떠나서 전회원을 위하여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의협감사, 포항/신정형외과의원)

수해지역 긴급의료진료단 활동을 마치고...



허 석

“우 리 인근에 1대부터 16대까지 조상묘를 가지런히 잘 다듬어 놓은 산소가 있는데, 이번 홍수에 다 씻겨 나갔어요. 한 세대를 30년으로 잡고, 약 500년 동안 이런 비는 처음이란 말 아닙니까?” ---지레면진료소에서 팔꿈치 봉합치료 받은 68세 남자

“거동이 시원찮은 노인 남매가 안보여서 젊은 소방대원을 보냈지요. 방안에 물이 차서 장통이 물에 뜨니, 두 노인이 이걸 양쪽에서 붙잡고 얼굴만 쳐들고 있더라고요.” ---지레면보건지소 간호사

주위에 산이 많은 김천은 경북 북서부에 위치하며 추풍령아래 높은 지역이어서 인지 큰 비가 드물고, 웬만한 비가 와도 하류로 쉽게 흘러가는 지형이다. 김천을 가로지르는 감천은 평소 강폭의 10~20% 정도의 물이 강 바닥으로 흐를 정도여서 충분히 여유가 있는 편이다. 그런데 2002년 8월, 태풍 “루사”가 몰고 온 집중호우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다.

당시의 상황과 김천시의사회 의료지원단의 활동과 느낀 점을 적어본다.

8월 31일(토요일)

8월 30일부터 내리던 비가 31일 시간당 72.5mm의 기록적인 폭우로 변하고, 31일 오후 8시 경 김천시를 가로지르는 감천과 직지천의 제방 붕괴로 도시가 침수되고, 정전. 단수가 되고 전화가 일부 불통되었다. 경부선 김천철도 교각 2개가 파손되어 경부선이 단절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방도로는 모두 단절되고, 대덕면의 교량 64개중 63개가 파손될 정도로 읍, 면 마을이 고립되었다. 산사태 등으로 17명이 사망하고 많은 환자도 발생하였다.

이런 재앙의 상황에서 발생하는 환자를 위하여 지역의사회 차원에서 해야 할 조치를 생각해 보았다.

9월 1일(일요일)

시청상황실을 통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휴일이지만 전 회원에게 전화연락하여 즉시 병·의원 의 문을 열고 지역적으로 발생하는 환자에 대비 하라고 알리고, 경상북도의사회와 연락하였다.

9월 2일(월요일)

12시 30분,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변영우 경상

북도의사회장 참석하에 김천시의사회 긴급이사회를 열고 수재민을 위한 긴급의료지원단을 구성하기로 결의하였다.

(긴급이사회 결의 내용)

1. 9월 3일부터 수해가 특히 극심한 지례면과 개령면에 각 1개소 씩, 1주일 예정으로 2개소 무료진료소를 열고 봉사활동을 한다.
2. 각 진료소에는 내과계열 전문의 1명과 외과계열전문의 1명 이상을 파견하고, 각 회원은 간호사 1명 이상을 동반한다.
3. 진료시간 :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4. 진료에 필요한 의약품은 대한의사협회에서 지원 받는다.
5. 진료에 필요한 기본기구는 각자 지참한다.(예: 외과전문의는 봉합세트와 드레싱세트 준비)
6. 수해를 당한 회원과 연료회원을 제외한 모든 회원이 참여하여 교대로 봉사한다.

긴급이사회 이후, 보건소에 연락하여 위 내용을 통보하고, 임시진료소 설치장소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다.

회장과 총무는 개령면 현지를 답사하여 개령초등학교에 진료소 설치할 것을 결정하고 면장에게 주변에 홍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지례면은 도로유실 관계로 답사하지 못하고 중도에 돌아왔다.

오후 11시 대한의사협회에서 트럭으로 보내준 의약품(1500만원 상당)이 도착하여, 약품 분류하였다.

9월 3일(화요일)

오후 1시에 오늘 참여할 2팀 인원과 모여 상황을 설명한 후, 각각 목적지로 출발하였다. 흙을 쌓아 임시로 다진 길로 지례면에 도달하여, 다행히 침수되지 않은 지례면보건지소에 임시진료소를 정하였다.(총무가 동반한 팀은 예정대로 개령초등학교에 도달)

도중의 도로는 군데군데 유실되고 물이 아직 넘쳐있으며 토사가 쌓여있었다. 침수되었다가 물이 빠져나간 지역의 가옥 방안이나 길에는 10cm 두께의 빨갈은 오염된 진흙이 덮혀 있었고, 가재 도구, 이불, 옷가지와 뒤섞여 있었다. 산사태가 난 지역에는 사람 몸체보다 큰 바위가 널부러져 있었고, 물이 휩쓸고 간 논밭은 자갈과 모래로 덮혀 경계를 가늠할 수가 없었다. 평소에 자주 애용했던 감천가 매운탕 집은 흔적도 없고, 다리 난간마다 흘러온 부유물이 끼어 있었다.

첫날 진료소를 찾은 환자는 열상, 좌상, 염좌가 많았다. 갑자기 불어난 물속에서 놀라 허둥대다가 넘어지거나 부딪힌 것 같았다. 생사의 기로에서 놀란 상태의 신경증 환자도 많았다.

9월 7일까지 양 진료소에서 332명의 환자를 보았으며 점차 환자수가 감소하고, 보건지소의 기

능도 회복되므로 9월 8일은 대덕면으로 자리를 옮겨 진료하기로 하였다.

9월 8일(일요일)

대덕면 가례1리와 2리에 각각 진료소를 설치하여 91명의 환자를 진료하였다. 이제는 산간 오지를 제외한 마을은 대개 길이 소통되고, 타지의 진료단이 속속 도착하였기에 우리 진료단의 활동은 끝내기로 하였다.

총진료일수 : 6일

총의료진(연인원) : 64명(전문의 26명과 회장, 총무(매일 참석),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26명

총진료환자수 : 423명

앞으로 유사한 재앙이 발생했을 때, 개원의 중심의 지역의사회(시·군·구 단위)가 긴급히 대처할 방법에 대하여 느낀 점들을 적어본다.

1. 타지의 의료지원단이 도달하기 전에, 지역의 상황과 지형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그 지역의사회의 인력이 신속히 활동하여야한다.
2. 의협과 시·도의사회와 연락하여 협조를 구한다.
3. 필요한 약품은 의협에 요청하여 신속히 확보되어야하고, 의협은 재앙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약품목록을 구비해 놓아야한다.(필요한 약과 공급된 약의 종류에 차이가 많아, 활동에

참여한 회원의 의견을 모아 목록을 작성할 예정이다.)

4. 시장, 보건소장, 면장 등 행정 실무진과 연락하여, 행정적 협조를 구하고, 환자안내에 대한 홍보를 부탁한다.
5. E-mail을 이용하여 시청, 경찰서 등 관공서와 신문, 방송사에 활동상황을 알린다.
6.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약봉지를 싸는 인력이 더 필요하다.
7. “대한의사협회” 마크가 새겨진 조끼 같은 것을 입고 활동하였으면 의사와 의협에 대한 국민의 시각이 많이 달라질 것이다.

처음 당해본 일이라 두서없이 진행했으나, 비교적 신속히 재난지역 환자에게 접근했다는 데 보람을 느꼈다.

위로의 말씀과 함께 성금을 보내주신 신상진 의협회장님과 타지역 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시종 조언과 격려를 해주신 변영우 경상북도의회 회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정대로 봉사활동에 참여하신 김천시의사회 회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김천/김천방사선과의원)

특집

이것은 이런 매력이 있다

의사들은 여러가지를 함께 할 수 있는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의과대학 입학이 어렵고, 시험과 시험으로 연결되는 학생시절이 힘겹고, 생사를 넘나드는 존엄한 생명을 다루며 인내의 한계를 시험받는 수련과정이 힘들고, 성숙한 의사로서의 진료현장 또한 스트레스와 긴장의 연속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사회 봉사 활동에 헌신하거나, 문화 예술에 심취하거나, 자신만의 독특한 취미를 가꾸어 나가는 회원들이 많습니다. 열심히 하다보니 봉사활동의 책임자가 되기도 하고, 아마추어의 수준을 지나 전문가의 경지에 이르기도 합니다. 봉사활동이나 문화, 취미 생활은 따분한 일상의 권태를 희석시키는 촉매제이자, 생활의 활력소 같은 존재입니다.

콘크리트 바닥같은 현대인의 행로(行路)에 향나무를 심고, 곤난(困難)의 의도(醫道)를 걸으면 서도 길옆의 들국화를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진 의사들!

오늘 우리는 이런 회원들이 들려주는 그것들의

매력과 그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듣기 위하여 “이것은 이런 매력이 있다”라는 특집을 마련하였습니다.

사회 봉사, 문화예술, 취미분야에서 일가견을 가지신 우리 경북의 동료 의사 여러분이 가감없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말입니다.

신문이나 방송에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솟아나는 이야기로 넘쳐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이야기이고, 우리는 덜 전문적이고 약간은 미숙하더라도 우리 이웃, 우리 동료들이 들려주는 매력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경북 의사회원들 중에는 봉사 활동, 문화 예술 그리고 취미 활동을 하시는 분이 매우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북 의사회지에는 7분의 이야기만을 특집으로 실었습니다. 차후 더 많은 회원들의 이야기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촉박한데도 성심껏 원고를 보내주신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편집자 주)

<차 례>

- 등 산 / 최호섭(최호섭내과의원)
- 로 타 리 / 성기태(성기태정형외과의원)
- 성 약 / 배효근(한동대선린병원 내과)
- 토종가축 / 이호근(고려산부인과의원)
- 우표수집 / 전세종(세종정형외과의원)
- 태 극 권 / 송재영(송재영외과의원)
- 사진촬영 / 홍성철(홍성철성형외과의원)

「이것은 이런 매력이 있다」

仁者樂山 (인자요산)



최 호 섭

등산의 매력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대답하기 어렵다. 매력이 너무 많아서일까?

의예과 다닐때 처음으로 등산에 입문하여 2년간 주말마다 근교산을 열심히 올랐다. 비슬산, 팔공산, 운문산, 가야산, 내연산, 속리산 등 그러다가 거의 20년간 옳은 등산을 하지 못하다가 78년 포항에서 개원하자마자 포항에서 가장 역사 깊은 포항산악회에 가입을 하면서 서서히 등산 활동이 시작되었다. 仁者樂山, 智者樂水란 말이 있는데, 내 나름대로는 [산을 좋아하면 어진 사람이 된다]라고 해석한다. 대자연의 품속에 안겨 맑은 공기와 아름다운 경치속에서 심신 단련을 하면서 등산을 하다보면 온갖 모험과 시련을 겪으며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성취감과 기쁨과 행복을 맛보게 되고 정신적인 수양을 하게 되니 어진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88년도엔 호세비(浩世飛)산악회를 창립하여 워킹등산클럽으로서 가장 힘든 산행을 하는 산악회로 명성을 날리고 있다.

회명이 금방 이해가 되지 않을수도 있는데 첫째는 누구 이름하고 비슷하고, 호연지기를 기르면서 세상을 날아 다닌다는 뜻이다. 창립때 부터

비회원 동참을 환영하여 좋은산을 소개하고 등반기술, 지식을 공유한다. 등산로 개척과 로프 설치 등 봉사활동도 하고 있다.

포항등산학교를 창립한지도 만 10년이 되었다.

산악 동호인은 해마다 불어 나는데 등산에 대한 무지, 준비부족 등으로 각종 사고와 사망사건이 빈발하는 등 안타까운 현실을 직시하고, 등산학교 창립을 결심했다.

창립 후 1년 되었을때 이 지역 명찰 보경사가 자리잡고 있는 내연산 등산로에 50m줄자로 실측하여(교직원과 졸업생이 함께)이정표를 설치함으로서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 하고자 했다.

지금까지 약 500여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고 그들은 직장이나 산악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등산학교에서 배운 기술과 지식을 바탕으로 길 잃은자에게 안내자가 되고 조난당한 사람을 구조해 주고 위급한 환자에게는 응급처치를 하는 등 구조 활동을 하면서 숭선 수범하는 산악인으로써 활동하고 있다. 한편 해외원정등산팀을 구성하여 히말라야를 비롯한 전세계 고산등반에도 적극동참 하고 있다.

작년 가을부터 이 지역 의사들의 등산을 적극 권장하기 위해 포항시 의사 산악회를 창립하여

매월 1회씩 등산을 하고 있다. 올 가을엔 경북의 사 산악인들이 한자라에 모여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고 심신단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구상중이다.

한반도엔 산악도 많고 사계절에 따라 등산의 묘미도 가지각색이다.

특히 겨울산행이 멋지다. 작년 11월 첫 일요일에는 경북의대 동창회에서 주최한 구미 금오산 등산에 포항에서 11명이 참석하여 전원이 정상에 올랐다. 약사암 앞에서 중식을 하는데 함박눈이 펄펄 내려 노송과 암벽들이 함께 조화되어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 해낸다.

정상에 오르지 않았다면 11월초 남쪽 구미에서 서설(瑞雪)을 만끽할 수 있었겠는가?

결론적으로 산행에 열심히 동참하여 직접 체험

해 봐야 등산의 매력과 묘미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등산경력)

- '78년 3월 포항산악회 입회
- '88년 1월 호세비산악회 창립
- '90년 5월 대만 옥산 등정(3,997m)
- '90년 8월 일본 북알프스 등정(3,190m)
- '90년 12월 포항산악회 회장 취임
- '91년 7월 말레지아 키나발루 등정(4,101m)
- '92년 7월 백두산등정(2,750m)
- '92년 8월 포항등산학교 창립
- '94년 1월 스위스 필라투스등반(2,132m)
- '96년 7월 대한산악연맹 경북연맹 자문위원

(포항/최호섭내과의원)



<사진 설명>2002년 10월 20일, 충북단양 제비봉(710 m)포항시 의사 산악회 창립기념등반 앞줄 맨 왼쪽이 필자, 뒷쪽에 보이는 물은 충주호

「이것은 이런 매력이 있다」

Rotary, My Rotary



성 기 태

내가 1979년 5월에 고향인 구미에 와서 개원을 하고, 그 동안 동경하던 봉사단체였던 로타리 클럽에 입회한 것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24년의 세월이 흘렀다.

로타리에 대한 글을 써 달라는 원고청탁을 받고 한편 반가우면서도 주저되는 바가 없지 않았다.

기실 로타리는 내생활의 일부가 되어 있지만 내가 아는 것과 남에게 표현하는 것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다.

연전에 “당신은 왜 로타리안 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로타리 코리아』誌에 발표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엔 로타리안이 아닌 분들에게 로타리를 간단명료하게 설명(?)해야 하니 어려움이 따른다.

로타리는 우선 직업을 통한 봉사를 중요시 한다. 다시 말하자면, 전문직업인의 세계적인 단체이다. 로타리의 매력은 뭐니뭐니 해도 모든 것의 rotation에 있다. 클럽회장이든, 지구 총재든 더 나아가 국제 로타리 회장이든 일년 단위의 임기가 전부이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합의 장소도 직책도 모두 순환을 원칙으로 한다.

로타리의 봉사의 폭은 너무나 넓고 다양하다. 세계 164개국 35개 자치령의 31,400여개의 클럽들이 있고 122만명의 회원을 가진 세계적인 봉사단체이다.

로타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世界平和이다.

로타리는 人道主義와 교육적인 사업과 프로그램을 갖고 연구단 교환, 친선사절 장학금, 청소년 교환프로그램 등 수천 명의 청소년을 매년 국내외에서 지원함으로써,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로타리는 창립 100주년이 되는 2005년에는 地球上에서 소아마비를 완전박멸하기 위해 20년 가까운 세월동안 미화 10억 달러 이상을 썼다.

로타리 국제연구 센터는 70명의 장학생을 세계유수의 8개 대학에 보내어 평화와 분쟁해결을 위한 석사과정을 연구하게 하는 등 『로타리의 꿈』은 가히 그 끝간데를 모른다.

또 한가지 로타리의 매력은 가변성과 진취성이다. 100년 전의 로타리와 지금의 로타리는 엄청나게 다르다. 그것은 우리들에게도 변화와 전진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다음 한 세기를 준비하며 오늘의 로타리를 가꿀 것이다.

『로타리의 꿈』을 이룰 것이다.

2003~04년도 국제로타리 조나단 마지악베 회장의 연도테마는 “이웃에 도움의 손길을!” (Lend a Hand)이다.

우리는 가까운 곳 우리가정에서부터 클럽으로,

클럽에서 지역사회로, 더 나아가 국제 사회로 『사랑의 씨앗을 뿌리고』도움의 손길을 내밀 것이다.

우리들의 선배의사이며 그 역시 Rotarian이셨던 20세기 아프리카의 聖者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한 말이 새삼스럽다.

“21세기에도 로타리는 필요한 조직이 될 것이다.”라고.

나는 내 생의 마지막까지 로타리를 사랑할 것이다. 갈수록 더 큰 모습으로 나타날 나의 로타리를!

(구미/성기태정형외과의원)



「이것은 이런 매력이 있다」



성악입문 40년



배 효 군

성악을 전공하고자 했던 고등학교 2학년부 터 의예과 시절까지 약 3년간 성악수업을 받았던 연고로 본인은 지금까지도 ‘프로’도 아니고 ‘아마추어’도 아닌 어정쩡한 의사 성악가로 대접받고 있다. ‘프로’와 ‘아마추어’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프로’가 그것으로 생업을 유지한다면 본인의 경우처럼 일년에 한 두번 받는 약간의 사례금(?)은 ‘아마추어’ 성악가에 대한 예우라고 나름대로 자부하고 있다.

1963년부터 노래에 관계되는 몇 가지 기억나는 일화들을 회고해 본다. 당시 대구에서는 통칭 KG홀이라고 하는 대구방송국 2층 연주 홀(현재 대구시민회관 자리)이 유일한 무대였다. 고교 2학년 때부터 수 차례 노래를 부른 곳이었는데 무대 뒤에는 연습실이나 대기실도 별로 없었던 것 같다.

성악 은사였던 홍춘선 교수님의 배려로 북성로 백조다방에서 연습 한 번 하고 KG홀로 갔던 적도 있었다. 1967년 의예과 음악회에서는 합창지휘도하고 독창도 하는 강행군을 했는데 독창 2곡을 한 후 예상치 못했던 ‘앵콜’이 쏟아졌다. ‘프로’ 성악가의 연주회라면 앵콜곡도 보통 준비를 하겠지만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라 곡을 그 자리에서 정했는데 당시 반주를 맡았던 효대학

생이 윤용하의 ‘보리밭’을 하자고 하였다.

아직 record판이 나오기 전이라 대구에서는 처음 소개되는 곡이었다. 본인이 홍 교수님께 lesson 받을 당시 한 번 써먹을 수 있을 곡이라고 소개 드렸던 곡이기도 했다. 그 해 가을 홍 교수님도 그 곡을 ‘앵콜’로 불러서 대단한 반응을 일으켰고 지금까지도 옛날 추억을 잊지 않고 있는 친구들은 그 때의 ‘보리밭’을 불러달라고 부탁을 하곤 한다. 1969년 쯤으로 기억된다. 의과대학 예술제 때 KG홀 무대위로 당시 미국유학 준비 중 이시던 최우명 선배님이 찾아오셨다. 10년만에 음악에 미친 후배를 보게되어 반갑다고 오신 것이었다.

최선배님은 미국에서 치료방사선학을 하시며 관현악단 지휘자이시기도 하다. 본과 2학년 여름방학 때 었다. 무의촌 진료팀에 같이 갔다가 집에 오니 급히 학교로 나오라는 연락이 왔다. 사연인즉슨, 전국 대학생 음악 콩쿨대회가 서울 시민회관(그 후에 화재로 없어지고 그 자리에 현재 세종문화예술 회관이 들어서 있다.)에서 문공부주최로 있을 예정인데 영남지역 예선을 경북 대학교에서 하라는 정부의 공문이 내려왔다고 했다. 전공자들을 제외한 대회였는데 당시에는 경북대학교에는 예술대학도 없었으며 학생회관

에 grand piano 한 대만 달랑 있는 것이 전부였다. 그런데 부산·대구의 예선 콩쿨을 주최하니 얼마나 난감했겠는가. 주최하는 경북대학교에서는 한 명이라도 출연을 시켜야 할 입장에서 수소문 끝에 본인에게 출연하라는 명령(?)이 내려온 것이다.

그때는 학교공부 때문에 노래를 하지 않을 때라 당장 pianist를 구하기조차 난감했다. 어쨌든 부랴부랴? 작곡가 이흥렬, 하대응 교수님들의 예선심사를 받고 학교에서 주는 두둑한 출장비를 받아서 서울로 갔다. 올라가서는 서울음대에 다니던 친구들의 배려로 그곳 연습실을 이용할 수 있었는데 콩쿨대회 2, 3일 전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놀다가 저녁 9시 넘어서 동대문 야구장을 지나가니 처음보는 고교야구 야간경기가 한창이 아닌가. 들어가서 구경하는 중, 찰찰한 가을날씨에 비가 제법 내렸고 이것이 화근이 되어 된통 감기에 걸려버렸다. 그 넓은 무대에서 감기걸린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으니 등수에 들어가면 오히려 이상할 일이었다.

1976년 대구 동산병원에서 인턴생활을 시작했다. 당시는 서울 MBC의 '직장대항 노래자랑'이라는 프로가 대단한 인기였을 때였다. 클래식 성악으로 직장끼리 대결하는 형식인데 병원에서

본인을 중심으로 팀을 짜서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다. 한 번 이기면 다음에 또 출연하게 되었는데 대구 MBC에서도 인기가 있으니 같은 프로를 시작했다. 윤덕화씨가 방송으로 뜨기 전에 대구 MBC 사회를 맡았다는 것을 수년 전에야 알게되었다. 하여튼 서울 MBC, 대구 MBC에서 수 차례 노래가 나갔으니 옛날 친구들로부터 연락이 오는데 의사가 된 것이 의외라는 연락이 대부분이었고 한 친구는 당시 박봉의 전공의에게 교통비를 빌려달라고 온 적도 있었으니 방송의 힘이 크긴 큰 모양이다.

1980년 중반부터는 경북의대, 계명의대 양학교의 관현악단이 각각 발표회를 할 때마다 출연을 하였다. 포항에서 대구까지 가서 연습을 하는데 순수한 아마추어들이고, 서로 호흡이 잘 맞지 않아서 고생을 많이 했지만 의학도인 후배들과 같이 음악을 나눈다는 보람도 있었다.

1993년에 기회가 있어서 포항에서 추계음악회, 신년음악회 등에 출연하게 됨으로서 본격적인 성악가의 길을 가게되었고 1999년에는 포항시립교향악단과 협연을, 근래에는 경북 opera단 「갈라 콘서트」에 프로 성악가들과 같이 연주하여 뜨거운 반응을 일으켰었다. 2001년도에는 오페라 '춘향전'에 출연제의를 들어왔으나 적어도

2개월 이상 연습을 해야하니 병원을 그동안 비울 수 없어 부득이 거절하였다. 본업이 성악이 아니니 어쩔 수 없으나 지금 생각하여도 아쉬운 마음이 없지않다.

40년간 노래와 함께 지낸 사람으로서 생각나는대로 적어나갔으나 사실상 아직도 발성에 자신이 없음이 솔직한 고백이다.

그러나 이정도 까지 성악도로 자리 매김한 것은 어린 시절부터 수확한 여러 은사님들의 덕분이라 생각한다. 의사의 입장에서 성악에 관심이 있는 분들께 소개하고 싶은 분이 있다. 세브란스 의전 출신 ‘이인선’ 선생님이 그 분이시다.

졸업 후 해주에서 3년간 개원한 후 이태리로 성악유학을 떠나셨는데 해방하여 귀국한 후 「베르디의 춘희」라는 제목으로 한국초연의 opera를 기획하고, 소프라노 김자경씨와 같이 출연하신 분이기도 하다. 그 분에게 개인 lesson을 받은 분들이 지금은 80세 정도 되는 우리 성악계의 거목들이시다.

이 분의 노래를 듣고 자기도 성악공부를 하겠다고 미국을 갔던 분이 있었는데 미국의 성악교수가 ‘성악가의 길로 가지말고 계속 의사의 길로 가라’는 조언을 하여 지금은 은퇴한 유명한 순환기내과 교수가 된 분도 있다. Big 3 tenor 중

에 백혈병으로 골수이식술 후 생명을 되찾은 ‘호세 카레라스’가 본인과 동갑으로 30일 생일이 빠르다. 세 사람 모두 정상에서 내려오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티토 스키피’라는 테너가 수는 70세 넘게까지 현역생활을 한 신화를 남겼고 당시 카루소도 이 분의 연주회는 꼭 갔었다고 한다. 바라건데 본인도 계속 연마하여 10년 정도 더 노래를 할 수 있다면 하는 것이 작은 나의 소망이다.

(포항/한동대선린병원 내과)



〈사진 설명〉경북 오페라단 갈라 연주회시 바리톤 목성상씨와 오페라 이중창 모습



이 호 군
(포항 · 고려산부인과의원)

「이것은 이런 매력이 있다」



“머리에에는 로마 근위병의 모자 같은 붉은 관을 쓰고, 목덜미에는 화려한 붉은 갈색의 목도리를 휘감고, 검은 꼬리를 치켜세우고, 노랑고 붉은 날개를 펼치면서 암탉 주위를 빙빙 돌며 자신의 위용을 과시하는 토종 장닭의 카리스마! 이 얼마나 허풍과 기백이 넘치는 남성다운 기상입니까? 노란 병아리들을 양지바른 곳으로 데리고 다니다가, 행여나 추울세라 따뜻한 품으로 감싸고 앉아 있는 다소곳한 암탉의 모습! 그것은 아기를 품에 앉고 무조건적인 사랑의 시선을 보내며 젖 먹이고 있는 옛날 우리 어머니 상(像)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몇 백년을 우리 백의 민족과 함께 살아온 진돗개와 삼살개의 단아하고 예리한 모습도 성형 미인의 모습처럼 잘 다듬어지긴 했지만 순수성이 없는 수입 견(犬)들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토종들만이 가지고 있는 순박하고 순수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 토종 가축 기르기의 매력입니다.”라고 말하는 이호근 원장님의 모습도 잘 생기고 심성 좋은 토종 한우처럼 듬직하고 믿음직스러워 보였다.

이호근 선생님은 포항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지성미 넘치는 부인과 함께 20여 년 동안 포항

에서 산부인과를 개원하고 있는 토종 포항 사람이다. 50여 년 전 꼬마시절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꼬리를 흔들며 반겨주는 강아지와 따뜻한 봄날 울망쫄망한 병아리들을 몰고 다니는 암탉의 모습이 너무나 귀여웠다고 한다. 그런 연유로 항상 토종 가축에 관심을 갖고 있었으나, 학창시절과 전공의 시절에는 바쁜 여건상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었다. 다시 고향 포항으로 돌아와 산부인과 개원을 하고 나서 토종 가축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처음에는 병원 옥상에 토종닭과 재래종 개 그리고 비둘기 몇 마리를 길렀다고 한다. 그런데 시내 한 가운데 병원 옥상(屋上)에다 가축을 기르자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다. 시내의 밝은 불빛 때문에 닭들은 시도 때도 없이 ‘꼬끼오~’하고 울어대고, 개들은 심심해서 그랬는지 저 아래로 지나가는 차나 사람을 보고 마구 짖어대고, 비둘기들은 아침마다 보도 위에도 배설물을 쏟아냈다. 옥상에 축사를 지었기에 가축들이 쏟아내는 배설물을 치우는 일도 보통 문제가 아니었다. 치우고 치워도 끝이 없었고, 가축 분뇨 냄새가 사방으로 퍼져 나갔다. 흐리거나 비가 오는 날이면 분뇨의 악취가 훨씬 심해져서 도저히 견

딜 수가 없었다. 처음 오는 환자들은 어디서 이런 지독한 냄새가 나는가 하고 사방을 두리번거리기 일수였고 이웃들의 눈초리도 심상치 않았다.

옥상에서의 가축 기르기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10여 년 전 포항 교외에 1,000여 평의 땅을 사고 축사를 지어 본격적인 토종 가축 기르기를 시작하였다고 한다. 지금은 토종닭이 10여 종, 진돗개와 삼살개 그리고 풍산개는 물론 수입견인 라보라도와 비둘기도 여러 마리 기른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빈터에는 잔디를 심었고, 소나무와 은행나무 그리고 여러 가지 관상 수(樹)를 심었다. 주택까지 마련하여 주말은 물론이고 시간이 날 때마다 거기에서 가축을 돌보면서 지낸다고 한다.

토종 가축 기르기는 이 선생님의 독특한 취미 생활이다. 다른 사람들이 주말에 산을 찾고, 골프를 치는 것이 즐거움이었듯이 이 선생님에게는 토종 가축들과의 교감이 더 할 수 없는 즐거움인 듯 싶었다.

편집자는 여기에서 기르는 가축이 순수 토종 가축이 맞느냐고 물어보았다. 그랬더니 이 선생님은 순수 혈통을 구하기 위하여 토종을 연구하는 교수들과 교류를 하고 있으나 순수 혈통을 구

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토종개의 경우에는 그래도 공인된 단체에서 검증이라도 해주고 있지만, 토종닭의 경우에는 연구가 체계화되어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며 안타까워했다. 이 선생님은 기르고 있는 토종 가축을 분양해 주기도 하는데, 분양 후에 혈통 지속이 의심스러울 때가 많다고 하였다. 한번은 토종닭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안동댐 속의 첩첩산중 비 포장길을 몇 시간씩 헤매며 고생한 일이 있다는 일화를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항상 긴장과 stress가 쌓이는 의사 회원들은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취미를 가지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혹시 토종가축 기르기에 관심 있는 회원이 있다면 사육법은 물론 순수 혈통 감별법과 질병 대처에 관한 비법을 전수하고, 언제든지 Consult에 응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였고, 성의 있고 자격이 검증되는 회원들에게는 자신의 토종들을 분양해줄 수도 있다고 하였다.

이 선생님은 늘 자연과 가축을 가까이 하고 있어서 그런지 언제나 듬직하고 순박하고 넉넉한 농부 같은 느낌이 들었다. 우리 편집인들이 축사가 있는 교외의 집을 찾았을 때 언제 준비했는지 작고 단단해 보이는 토종달걀 한 꾸러미씩을 선

물해 주셨다. 마치 고향 온 아들딸에게 농산물
보따리를 쥐어주듯이.

취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서 이게 진짜 토
종달걀이라고 자랑하며 집사람에게 건네준 달
걀이 다음 날 아침 밥상에 올라왔다. 그 맛은 지
금까지 내가 먹어왔던 달걀의 맛과는 확연히 달

랐다. 약간은 단단하고 고소하고, 달콤한 향내가
나는 것 같기도 하였다.

아! 그것은 인정미(人情味)였고, 토종의 향기였
었나 보다.

(편집 · 정리/정만진 편집위원)



「이것은 이런 매력이 있다」

우표 수집의 매력



전 세 종

초등학교 시절 소중히 간직했던 우표 책 한 권이 있었다. 대학생살을 객지에서 하는 중에 동생이 친구에게 주었다는 말을 나중에 듣고 며칠을 잠을 못 이룬 적이 있었다.

서울에서의 수련의 생활 중, 월급을 탄 주말이면 회현동 지하상가의 우표상에 들러 우표상이 문을 닫을 때까지 그 당시 수집 테마였던 스포츠, 의학 관련 우표를 수집했었다.

나의 전문적인 우표 수집은 군의관 생활과 봉직의를 마치고 개업을 한 후인 1992년도부터이다. 수집 테마는 ‘교통 안전’으로 정하고 세계 우표 도감을 구입하여 관련 우표를 찾아 목록을 만들고, 국내의 우표상을 돌아 다녀보았지만 외국의 미사용 우표를 국내에서 구입하기는 무척 힘들었다. 국제 우표 전시회에 딜러로 참여한 외국 우표상과 연락이 되어 필요한 우취 자료를 구입하고, 외국 경매 책자를 정기 구독하여 경매를 통해 구입하기도 하고, 세계적인 우취 교환 클럽인 4C에도 가입하고, ATA(미국 테마 우취 협회) 회원 가입, 그리고 최근에는 화재에 관한 우표에도 관심이 있어 Fire에 대한 우표를 전문적으로 수집하는 외국 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우표 수집의 초보 단계는 general collection이라 하여 모든 우표를 수집하는 단계이고, 두번째

단계는 관심 있는 한 분야를(동물, 스포츠, 의학, 비행기 등) 수집하는 topical collection, 그리고 세번째 단계는 thematic collection이라고 하여 한 주제를 정하여 이에 관한 우표, 소형시트, 엽서, 연관된 기념 일부인이 소인된 편지봉투, 전보용지 등 여러종류의 다양한 우취 자료를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분류 및 연구하여 A4용지 크기의 종이 80장에 정리하여 우표 전시회에 출품하는 것이다. 심사 규정도 매우 엄격하여 목차, 논리적인 전개 및 배열, 우취 자료의 희귀성, 체계적인 연구 등에 100점 만점으로 항목별로 심사를 한다.

외국의 우표 친구로부터 편지를 받을 때나, 경매에 낙찰된 물품을 받는 날이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다. 진료 중에도 받아 놓은 내용물에 온통 정신을 빼앗기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기념우표가 발행되면(일년에 약 30회 발행)한번에 약 70여 통의 편지를 외국에 보내야 한다. 이들은 꼬박 편지를 쓰고, 주소 쓰고, 교환 할 우표를 챙겨 넣고, 우표 부치고,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기념 도장을 찍으러 우체국에 들린다.

현재의 나의 생활 패턴은 진료와 우취 생활의 연속이다. 진료 중 시간이 나는 대로 우취 자료



를 정리한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퇴근 후에도 수집한 우표를 분류 정리하고 인터넷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입수하고 마감 시간에 맞춰 경매에도 응찰한다. 휴가는 매년 8월 초순 열리는 전국 우표 전시회에 맞추어 시원한 ‘코엑스(COEX) 전시실’에서 휴가도 즐기고 취미생활도 아울러 즐기고 있다.

인터넷은 나의 수집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외국의 우표 친구와 메일을 통해 바로 바로 상대의 원하는 내용을 알게되고, 경매에도 바로 응찰(전에는 편지나 팩스를 이용)하게 되며 무엇보다 다양하고 새로운 우취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오랜 기간 혼자서만 우표를 수집했지만, 수년 전부터는 동호회에 가입하여 지금은 한 달에 두 번 대구에 우취 단체의 월례회 모임에 참석한다. 국제 우표 전시회에는 두번 참여하여 2001년 벨기에 ‘뵚루셀’에서 열린 전시회에서는 ‘은상’을 수상하고 2002년 월드컵을 기념하여 서울에서 개최된 세계 우표 전시회에서는 ‘대은상’을 수상하였다.

최근에는 수집 분야가 늘어서, 교통안전, 금연, 불조심, 말라리아, 탈(Mask)에 관하여 수집하고 있다. 우표 수집을 하는 선배를 보면 은퇴 후에

도 바쁘게 보낸다고 한다. 수집 해 놓았던 우취 자료를 정리하고, 동호회의 월례회에 참석하고, 우표 전시회에 구경도 다니고, 물론 여유가 있으면 국제 우표 전시회에 구경 가서 여행도 하고, 취미 생활도 할 수 있다면 더 없이 즐거울 것이다.

노후를 대비하여 연금에 가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별한 취미가 없으신 분은 지금부터라도 관심 있는 분야의 우표를 수집해 보는 것도 은퇴 후의 생활에 큰 활력소가 될 것이다.

매년 10월 초 안동에서는 국제 탈춤 페스티벌 행사가 있는데, 올해에는 행사 기간 중 우표 전시회도 같이 열린다. 금년 가을 주말을 이용하여 안동에 한번 방문하는 것은 어떨까? 탈춤 구경도 하고, 우표 전시회도 구경하는 즐거움을 느껴보자.

(수상경력)

- 1997년 전국전 은상
- 1999년 전국전 금은상
- 2001년 벨기에 세계전 은상
- 2002년 서울 세계전 금은상

(안동/세종정형외과의원)

「이것은 이런 매력이 있다」

태극권의 매력



송재영

전날 마신 술 때문에 오후 늦은 시각까지 비
몽사몽간에 환자를 보던 어느 날. 어쩐지
자꾸만 리듬이 깨지고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느
낌이 강한 불안감으로 엄습해왔다. 학창 시절은
물론이고 병원생활을 통털
어 우리들의 일상이란 무리
하고 지친 피로의 나날들이
아니었던가! 잠시 눈 붙일
틈도 없이 울어대는 콜벨 소
리는 우리로 하여금 인간 의
지의 한계를 본의 아니게 넘
어서기를 요구하지 않았던
가?

군의원 시절과 이어진 개업
의 생활. 때론 앓아있던 의
자를 박차고 나가 한번 고향
이라도 맘껏지르고 싶던 갑

갑한 순간이 어디 한두 번이었으랴. 이런 저런
생각이 지워지지 않아 한 동안 침울해져 있었
다.(소위 개업 우울증이라고 진단되는 증후군)

그러던 어느 날 신문의 주말 판에 소개된 태극
권에 관한 유럽발 기사가 눈길을 끌었다.

태극권은 명상과 요가와 무술을 합한 운동으로
태극권 30분이 테니스 3시간의 운동량이며 건

강을 지키기에 아주 적합한 유산소 운동이라는
얘기. 태극권을 연마하는 사람의 평균 수명은 이
운동을 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해보았을 때 상당
한 차이를 보인다는 대략적인 소개였다.



그 후 집사람 친구가 중국
에서 태극권을 배우고 막
돌아온 관장에게서 태극권
을 배운다는 얘기가 대화
중에 나왔다. 태극권이란
말에 즉시 알아보라고 특
명. 이리하여 지금 나의 사
부와 태극권과의 인연이 시
작되었다. 6년 전의 일이다.
한마디로 줄이자면 6년 간
해봤는데 참 좋더라 인데
쓰고 보니 장황해져버렸
다.(^^;;)

태극권 이전에도 테니스, 골프, 수영, 심지어 스
쿠버 다이빙 까지 이것저것 다양한 전력이 있었
지만 명상하듯 고요를 느끼며 유연한 몸 동작을
이어가는 태극권은 내겐 단순한 운동을 넘어서
어떤 감동이 있었다.

태극권의 유래는 지금부터 약 500년 전 (명말
청초기)에 진왕정이란 분이 이제 까지 자신이 배



〈사진 설명〉북경 진식 태극권 제4대 전인 권민범 관장, 나, 뒷줄은 집사람과 딸내미 그리고 사형간인 김계옥 선배님

운 무술과 도가의 황정경, 노자 도덕경 등을 종합하여 하나의 무술로 집대성한 것에서 부터 시작되었다. 그 후 대를 이어 진가구 진씨 일족들에게만 전해져 오다가 14대 진장흥에 이르러 금기를 깨고 하인이었던 양노선에게 전수해 주었다. 이후 양노선은 계속 권법을 연마하여 심오한 원리를 체득, 진씨 태극권의 기초 위에 양씨 태극권을 창편하게 되고, 북경에서는 황제와 그 가족에게 무술을 가르친 후 건강이 아주 좋아진 것을 계기로 전 중국에 퍼지게 되었다. 그 후 많은 유파로 발전하였는데 우선 진씨, 양씨, 오씨, 무씨, 손씨 등 많은 계파로 나뉘어 졌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수 많은 사람이 배우고 있고 대부분의 건강 서적에 소개되고 있다.

태극권을 해보니 내 몸에도 감지되는 변화가 있었다. 우선 무지하게 잠이 잘 온다는 것이다. 바닥에 등만 닿아도 곧 잠이 들어버릴 정도로. 그리고 밥맛은 또 왜 그리 있는지.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평생 같이 갈 것 같더니 씻은 듯이 사라졌다. 그 외에도 마스크의 보도에 따르면 대구 시내 어느 보건소장인 여의사 분은 관절염을 비롯해서 주렁주렁 달고 다니던 병이 치유된 것을 이야기하였지만 내 일이 아니라서 확실하게 말은 못하겠다. 그렇지만 확실히 밝힐 수 있는 또

하나 비장의 무기에 대해서는 각자 상상 하시압~

또 하나 더 들 수 있는 태극권의 장점.

등산은 산에 가야하고 수영은 물을 만나야 하고 골프는 잔디가 없으면 골프가 골프 일 수 있는가? 그렇지만 태극권은 사방 3m정도의 공간만 주어지면 맨손으로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내 경우는 아직 세상 때가 묻지 않은 관장 덕택에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최고의 질의 수업을 받고 있다.

참고로 위 사진을 유심히 보시면 또 한 분 낮은 분이 계시실 것이다.(구미 김계옥 피부과 원장님)나보다 월등한 30년 공력의 대 선배와 동문 수학함을 항상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다. 더욱 생생한 뭔가를 듣고 싶으시면 그리로 문의해 보시라. 두드리면 얻을 수 있을 것을 확신한다.

마지막으로, 중국에서 태극권으로 평생 연마한 100세 가까운 노사들 경우 병 없이 단정히 사시며 평소처럼 지내시다, 그대로 좌화(앉아서 돌아가심) 하신 얘기가 많다. 나에게도 이런 복을 감히 바라며 늘 옹맹 정진 할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함께.

(청도/송재영외과의원)

「이것은 이런 매력이 있다」



사진 촬영의 매력



홍 성 철

내가 사진을 찍기 시작한지도 벌써 15년째가 되는 것 같다. 1987년 서울 백병원에서 인턴 생활을 마치고 성형외과 레지던트에 입문하게 되었는데 아버님께서 성형외과 레지던트는 카메라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그때 당시 최신 카메라인 니콘 F501을 사 주셨다. 내가 하고 싶었던 성형외과에 들어간 것만 해도 너무나 날 듯이 기분이 좋았는데 새 카메라까지 사 주시니 기쁨이 배가 되었다. 그 때는 카메라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었다. 성형수술 하기전과 하고 난 후 술전 술후 사진을 반드시 찍어두어야 하는데 처음에는 단순히 증명 사진처럼 실내에서 찍는 사진도 어떤 때는 어둡게 어떤 때는 너무 밝게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떻게 찍으면 사진의 반은 까맣게 그리고 반은 선명하게 찍히기도 해서 애 먹었던 기억이 난다. 2~3개월 지나면서 차츰 차츰 카메라에 익숙해지면서 이전 술전 술후 사진은 어느정도 선명하게 큰 무리 없이 찍을수 있었다.

백병원 레지던트를 마치고 한동대 선린병원에 근무하게 되면서 사진 동호회에 가입하였는데 가입 첫날 사진을 찍으러 출사가던 날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에 남는다. 따듯한 봄날, 통도에 있는 통도 환타지아로 첫 출사를 갔는데 1시간 정도의 간단한 카메라 작동법에 대해서 배우고

난후 사진을 찍어보았는데 카메라에 붙어있는 타이머와 조리개가 왜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지 그 의미를 조금씩 익혀가는데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은 얼마나 사람을 흥분시키는지...

이때부터 진료실에서 그냥 단순히 술전 술후 사진을 찍던 수준에서 벗어나 예술적인 감각이 포함된 사진을 찍는 계기가 되었다. 정말 처음에는 그저 사진을 어떻게 하면 잘 나올수 있는지 카메라는 어떻게 다루는지 모든 것이 신기하고 궁금해서 시작을 하였는데 이제는 공모전에 한 두점 입선이 되는 짜릿한 쾌감을 맛 보기도 하였다.

주중에는 시간을 낼수 없는 병원 생활을 하면서 주말이면 틈틈이 출사를 다녔다. 동해 바다의 일출에서 해 지는 서해 바다의 일몰과 남으로는 제주도 북으로는 삼척 태백 그리고 설악산 등등 발 닿는곳이면 그곳이 멀던 가깝던 달려가서 열심히 셔터를 눌렀다.

카메라를 통해서 연출된 이 세상의 조화는 영원한 신비가 아닐수 없다. 사진은 우리의 정서 함양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자연의 영상을 재현하여 우리 삶의 질을 높여주며 생활에 신선한 활력소를 제공하고 기록성과 조형성을 동시에 갖춘 중요한 예술의 한 분야이다.

사진 촬영을 하다보면 수시로 변하는 태양 광선과 피사체의 움직임 등을 순간순간 포착하기 위해 셔터를 쉽 없이 눌러대고 때로는 햇빛이 구름에 가려지기만을 기다릴 때도 있다. 사진은 숨 가쁜 순발력도 필요하지만 한두번 실패로 포기하지 않는 인내심도 필요하다. 뭔가 하려고 노력하는 자에게는 행운이 따른다는 말이 있다. 사진은 머리카락으로 찍는 것이 아니라 발로 찍는다는 말이 있듯이 돌아다녀야 피사체를 만날 수 있다는 뜻이다. 계절에 따라 식물도 각종 행사도 사람들의 생활도 변화한다.

사진을 찍으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정말 가슴 깊이 느껴보게 된다. 사진을 하면서 미에 대한 심미안이라고 하는 안테나를 늘 연마할수 있어서 좋다. 우리나라의 풍부한 사계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느낌을 잡을 수 있다. 봄에는 만발하는 꽃들과 들판에 작업을 하는 농부들이 피사체가 되고 여름에는 초여름의 연꽃에서부터 잠자리와 열매 맺힌 풍성함이 우리를 기다린다. 가을에는 오색찬란한 단풍과 온갖 가을 축제 행사장이 우리 사진인들의 좋은 촬영 장소가 된다. 겨울은 눈덮인 자연과 일출이 멋진 촬영지이다. 언제 어디서든 좋은 행사가 있다면 단순히 구경만 하고 오는 것이 아니고 행사장에서 멋진 장면을 기록으로 남길수 있으니 일석이조가 되는 셈이다.

밤잠을 설치 가면서 자는둥 마는둥하고 새벽에 눈을 비비고 일어나 물안개 오르는 멋진 장면이나 일출 한컷을 찍어 보겠다고 새벽 공기 마시면서 정신없이 액셀레이터를 밟으면서 대왕암 바닷가와 청송 주산지를 찾아 가본적도 많지만 그때마다 날씨 때문에 허탕치고 돌아온적은 얼마

나 많았던가. 정말 멋진 장면을 찍었다고 흥분하면서 필름을 감지 않고 카메라 뚜껑을 열어서 필름이 시커멓게 탄적은 몇 번이던가.

사진을 찍고나서 현상하고 인화하여 그런데로 괜찮은 작품은 확대 인화하여 전국 사진 공모전에 출품하고 나서 발표가 날 때 까지 기다리는 마음은 아마 로또복권하는 마음과 같은 설레임이 있다. 입선자 명단이 나왔을때 2~3번씩 내 이름을 확인하지만 아무리 훑어 보아도 이름이 없을때의 허탈감과 비록 입상은 아니지만 입선이라도 되어 이름이 보일때는 뽕뽕이 기뻐지는 것이 사진을 하는 작은 기쁨이기도 하다.

예술이라는 것이 모방이 아니라 창작이라 사진의 매력에 빠져들수록 쉽지 않고 어렵다는 것을 알지만 쉽지 않기 때문에 도전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오늘도 카메라를 닦으면서 멋진 작품 촬영을 위해 주말을 기약해 본다.

이번 주말에는 기어코 멋진 장면을 한 장 찍으리라!

(포항/홍성철성형외과의원)



<사진 설명>문화예술회관에서 무대 촬영. “월월이 청청”이란 제목으로 제47회 경북 미술대전 사진 부분에 출품하여 입선한 작품



투쟁의 3년 세월



유 동 명

우선 경북의사회 집행부의 일원으로서 의사 단체를 위해서 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임기 동안에 의료계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들이 1999년 11월을 기점으로 일어난 것이다. 집회 군중에 우리들도 놀란 올바른 의약분업을 위한 서울 장충동 대집회, 잘못된 의약분업을 바로 잡으라는 흑한의 여의도 모임, 잘못된 의약분업 저지를 위한 무더위속 과천벌 결의대회, 국민건강권 수호 및 의료개혁 원년을 선포하면서 가진 폭풍우속 보라매 공원 회원대회 등 크고 작은 여러 집회 행사에, 경북 의사회원의 많은 참여와 보다 높은 투쟁열기가 너무나 인상 깊었다.

타 어느 지역보다 집회 참석율 및 성금모금에서도 단연 경북의사회가 최고를 기록한 것이다.

그러기에 임원의 한사람으로서 힘은 들었지만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비록 회장의 동분서주에 비하면 조족지혈이지만.....

이제 이 직책을 조용히 마무리 해야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아직도 회원의 기본의무인 회비를 납부하지 않아 회원 명부에 이름이 누락될지도 모르는 일부 회원이 우리 곁에 있음에, 마음 한구석 아픔을 금할 길 없다.

우리 의사단체가 살아 남기 위해선, 내부적으로 단결하고 집행부에 힘을 실어 주어 외적 장애 요소와 싸워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도태되어 의료발전은 커녕 생존자체에 매달리게 될 것이다.

(안동/유동명정형외과의원 · 경상북도의사회 부회장)



안길통

아리랑 고개를 넘으면서...



2000년 1월 1일 새천년이 시작되는 날, 나는 뉴질랜드 남섬 카와라와 다리에서 번지점프를 했다.

새 천년 첫날, 낭떠러지 강물로 거꾸로 떨어져 서인지, 2000년 벽두부터 파업과 폐업, 투쟁, 사발, 시위가 시작되었고, 그 한가운데에서 온몸으로 느낀 시간이 잊혀지지 않는다.

아직 상황은 호전되지 않고, 가야할 길은 먼데 해가 저문다.

뜻하는 바는 이렇게 어렵고, 원하지 않는 시간이 흘러, 투쟁의 열기와 분노는 모래에 물이 스미듯 하여, 나는 휘파람을 불면서 아리랑 고개를 넘는다.

앞으로 우리들이 가는 길에 넘어야 할 아리랑 고개가 다섯이나 되는지? 열이나 남았는지?

우리들은 낮없이 주저앉아 먼 하늘을 쳐다보

고, 굴욕스럽게 유린당하고 있지만, 고함칠 기운이 없다.

나라 잃은 일제 때, 연약한 유관순이 전국방방곡곡 만세의 들불을 일으키듯, 4.19혁명 때 철부지 고교생 김주열이 독재정권을 뒤엎듯, 미약한 만주의 독립군이 대한민국 독립을 이루듯, 거대한 승리의 시작은 작은 불씨하나였었다.

우리들 개개인의 관심과 참여와 열성이면 꿈은 이루어집니다.

이제 나는 싸우던 투구를 벗고, 갑옷도 벗지만, 이순신 장군이 백의를 입고 병사의 신분으로 전쟁을 치르던 그분을 그리면서, 이제는 나 자신, 한 병사로서 한쪽 가슴에 화살이 박힐 때까지 우리들이 가야하는 길을 나는 갈 작정입니다.

(김천/안외과의원, 경상북도의사회 부회장)

의학제를 준비하면서



이 석 군

생 각지도 않았던 부회장직을 맡은 지 3년이란 세월이 훌쩍 지나는 것 같다. 의학분업 전후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자신을 버리고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는 자부심을 가진다. 3년을 지나면서 돌이켜 생각해 보면 역시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요. 이겼다고 생각될 때 한편으로 패배의식을 가지게 됨은 어쩔 수 없다. 본인은 아마 투쟁에는 능력이 부족한 것 같다. 아니면 심성이 약해서일까. 투쟁의 결과는 상생이 아니라 패배자만 있을 뿐이다. 우선은 이긴자도 언젠가는 승리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현 임원진에 대한 평가는 회원에 따라 천차만별일 것이다. 나에 대한 평가는 아마 투쟁시는 “부정적”이요. 평온시는 “긍정적”으로 평가될지 모른다. 그러나, 본인은 투쟁시던 평상시던 최선을 다해 의사들의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는 점이다. 3년동안 대외

적, 대내적 행사에는 빠짐없이 참석하여 정보와 운영의 묘를 접목하여 경북의사회 뿐만 아니라 다른 모임의 활성화에도 기여할려고 하였다.

가장 기억에 남는 행사는 의학제가 아닐까 생각된다. 2000년도는 전해와 같이 코오롱 호텔 실내에서 거행된 후 2001년부터는 의학제를 개선했다는 회원들의 생각과 본인이 수년전부터 의학제를 개선하자는 주장이 맞물려 의학제개선특위가 발족되고 위원장을 맡으면서 본격적인 준비작업이 시작되었다. 우선 타지역의 의학제 및 타모임의 체육대회 준비 사항을 취합하고 실제 참석도 하여 장단점을 파악한 후 의학제의 장소와 시간 및 회원들의 정서를 감안하여 종목선정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시간과 장소 선정의 어려움으로 2001년도는 시사삼행시와 야외 폐회식만 색다르게 진행 되는데 그쳤다. 2002년도는 회장님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로 장소가 화랑교육원 국궁장으로 결정되었다. 200m

의 잔디밭에 걸맞는 종목이 선정되었다. 바둑, 윗놀이, 시사삼행시, 테니스에 족구, 골프피칭, 줄다리기, 2인 3각경기, 부인과 어린이를 위한 투호등 새로운 종목을 추가함으로서 새로운 의학제가 선을 보였다.

의학제를 준비하면서 몇가지 중점사항은 첫째 회원들을 위한 경기와 여흥, 둘째 부인들을 위한 경기와 선물, 셋째 아이들을 위한 놀이를 선택해야하며 이런 행사를 위해 장소를 선택하는데 많은 고심을 하였다. 회원들의 후일담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앞으로도 계속적인 개선이 있으면 경북의학제는 많은 회원이 참석하는 훌륭한 행사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줄다리기 중에 K모 회원의 목에 부딪쳐 우측수부혈관파열이 있었다. 즉시 압박붕대를 감았다면 예후가 좋았을 것인데 이순신 장군이라도 되는 양 진행에 지장이 있을 까봐 끝까지 붕대를 감지 않았다가 약 한달간 고생이 많았다.

즉흥적으로 떠오른 시제가 장원에 뽑혀 부상으

로 튀김기를 받아 지금도 잘 이용하고 있다.

경북의사회에 발을 붙인지가 벌써 12년이 지났다. 해가 갈수록 임원진이 젊어지고 있으나 임원들의 역량이나 책임감이 향상되지 않고 있다. 광역의사회나 지역의사회를 막론하고 직책을 맡으면 자신을 떠나 전체를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해야 한다. 이사회나 행사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참석을 해야 하고, 자기주장과 상반되는 의견이 채택되더라도 따를 줄 알아야 한다. 현재 의사회를 보면 개개인의 주장이 너무 강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상대방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고 존중하여 위급한 현실을 슬기롭게 넘길 수 있도록 다함께 뭉쳐야 한다. 모든 회원이 의료현실에 관심을 가지고 의사회의 운영에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자기 임원진도 역량 있고 술선수범하는 회원이 임명되어 최고의 경북의사회가 되도록 기원한다.

(경산/청십자의원, 경상북도의사회 부회장)



3년을 보내며...



고 정 미

처음에는 그냥 쉽게 생각하고 받아들인 자리였다. 어떤 것인지 심각하게 생각지 않았다. 그러나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우리 의사회는 고난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김재정회장님의 갑작스런 파업철회 발표로 시작해서 크고작은 집회들이 끊임없이 이어졌고, 그러기 위해서 사전 계획들을 위한 회의는 정말 많았었다. 회의 참석을 위해서 대구로 경주로 다닌 기억들을 돌아보니 새삼스럽다.

회의를 마치면 밤 12시가 넘어서 집에 오기 일쑤였으나 이런 투쟁 속에서 우리 의사들은 다시 한번 심각하게 의사라는 직업과 윤리 그리고 미래를 생각해야 했다. 보다 나은 진료환경과 환자를 위해 학창시절에도 못해본 데모를 남녀노소 불문하고 참석할수 있는 오기를 가질수 있었던 것 같다. 또한 열심히 참여해주신 회원들은 일하는 우리 임원들에게 큰 힘과 격려가 되었다.

많은 집회중에서도 특히 뜨거운 여름의 과천집회와 폭우속의 보라매집회는 잊을수가 없었다. 악조건의 환경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열기가 있었다. 세무서나 경찰, 보건소들의 협박성(?)멘트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했던 것 또한 잊을수 없다.

밖에서 일하는 것을 보기만 할때와는 달리 실

제로 일을 한다는 것은 정말 여러 가지를 감수해야 했다. 열심히 한다해도 우리의 힘이 너무나 부족함을 느껴야했고 내가 처한 위치와 환경에 따라 이해관계가 다를 수밖에 없었던 것들은 참 안타까웠던 부분이다.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일하신 변영우회장님과 임원들께 항상 미안한 맘이다. 여의사가 때문에 여러 힘든 상황에서는 배려해 주신 것 감사드린다.

특히 이런저런 일들로 바쁜 엄마를 이해해 준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고맙다.

예전보다 여의사수가 많아졌고 그래서 여의사들의 생각과 이해를 위해 주신 이 자리에 과연 얼마나 감당했는지 3년을 돌아보니 부끄럽다. 그러나 이런 경험을 할수 있어서 의사회에 관심과 애정을 가질수 있어서 감사드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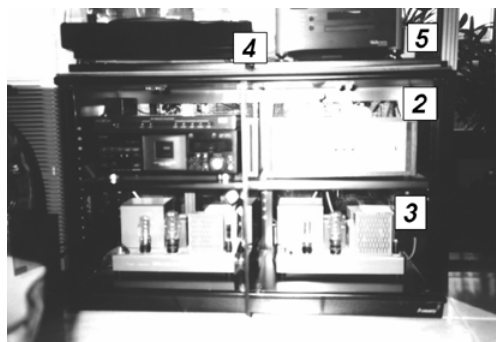
바라는게 있다면 앞장서서 일하시는 분들의 수고와 희생을 회원여러분께서 이해해주시고 잘 협조해 주셔서 보다 나은 의사회가 되고 그걸 바탕으로 보다좋은 진료환경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

(포항/고내과의원, 경상북도의사회 부회장)



윤 응 삼

나의 Audio system



인간의 육성이나 악기소리 또는 자연의 소리는 아날로그든 디지털이든 전자장비를 거치면 왜곡되게 마련이다. 이를 원음에 가깝게 재생하는 것이 audio phile의 꿈이다.

그러나 원음이란 너무 주관적이라 자기 귀를 만족시키는 것을 기준으로 하니 취향에 따라 수많은 오디오기가 있다.

물론 가격도 천차만별이다.

나의 시스템은 vintage(문외한에겐 골동품)이라 할 수 있는데 현대 시스템과 비교하면 그림과 사진에 비유할 수 있겠다. 스피커는 고능을 대형이며 앰프는 저출력 진공관 앰프를 matching하는 것이 vintage system의 일반적인 경향이며, 현대스피커는 저능을 소형이며 고출력 앰프를 요구한다.

vintage system은 가능한한 그 시대의 스피커에 그시대의 앰프 그시대에 녹음된 LP로 듣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명품은 소수이며 고가라 구하기가 쉽지 않다.

1. speaker - Patrician IV : 1950년대 초 미국 ElectroVoice사 제작 4 way 5speaker, all horn system이며 mono시대의 고능을 대형 speaker이며 classic이나 jaz음악재생



시 웅장한 사운드와 환상적인 음색을 들을 수 있다.

2. pre amp : Marantz 7C : 1960년대 초 미국 Marantz사 제작, no. 17108 진공관식. 사용진공관 : 12A×7 telefunken

3. power amp - Shindo 300B single

mono block Limited : 1991년 일본 Shindo Lab에서 1960년대 WE사 제품을 재현한 제품이며 그 시대의 부품과 진공관을 사용하여 좀 현대화 것이라 할 수 있다. 출력 8W

진공관 : WE300B 1988년, WE274B 1944년각인, WE310A 1972년, WE311B 1977년식

4. ADP - turn table : VPI HW19 MKII, tone arm : SME3010, step up trans : patridge 7438, catridge : Ikeda 9C IV, SPU gold reference.

5. CDP - Wadia 21

6. cable - speaker cable : transparent music wave ultra.

interconnector cable : transparent music link ultra

7. soft ware - CD 약 1200장, LP 약 600장 (오디오 연륜이 짧아 수집품이 많지 않음)

(포항/윤내과의원)



Humor is the best medicine

[아버지 이름]

학생이 전학을 왔다.
 담임 선생님이 학생기록부를 작성하려고, 학생에게 아버지 이름을 물었다.
 선생님 : 아버지 성함이 뭐니?
 학생 : 예, 김가진입니다.
 선생님 : 이 녀석아, 부모님 이름을 그렇게 막부르면 쓰냐?
 학생 : 죄송합니다.
 선생님 : 다시 말해봐!
 학생 : 예, 아버지 성함은 김짜 가짜 진짜입니다.

[헌혈하라고 잡혔을 때]

국회의원 아들 : 체중미달이라서 안 되다고 우긴다.
 강 패 : 자신은 쌍코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피가 부족하다고 우긴다.
 악덕업주 : 나는 찢러도 피 한방울 안 나온다고 우긴다.
 골 초 : 자신의 피는 임신부나 자라는 아이한테 해롭다고 우긴다.
 술 끈 : 혈중 알코올농도가 높아서 안 된다고 우긴다.
 공해업자 : 자신의 피는 재활용이 불가능하다고 우긴다.

[계급장의 의미]

1. 이병! 작대기 하나 : 혼자서 능히 한 명의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다.
 2. 일병! 작대기 두올 : 혼자서 능히 두명의 적을 상대할 수 있다.
 3. 상병! 작대기 세엿 : 혼자서 능히 세명의 적을 엿앨 수 있다.
 4. 병장! 작대기 네엿 : 네 명이 모여야 한 명의 적을 상대할 수 있다.

[연예인들만 사는 섬]

독도와 울릉도 사이에 연예인들만 사는 섬이 있다.
 그섬의 이름은? 설운도
 그섬에 있는 약수는? 오연수
 그섬의 종은? 최수종
 그섬의 우물은? 길은정
 그섬에만 사는 새 두마리는? 양택조, 조광조
 그섬에서 생산되는 쌀은? 김지미
 그섬에서만 관측되는 별은? 전유성
 그섬의 국기 이름은? 홍록기
 그섬에 있는 돌은? 유재석, 강석, 서경석
 그섬에서만 쓰는 거울은? 성시경
 그섬에서만 뒹굴고 있는 낙엽은? 신동엽
 그섬에서는 메뚜기는? 유재석(별명이 메뚜기니까)
 그섬에서 사용하는 실은? 이경실
 그섬에 있는 질병은? 최불암
 그섬의 나라이름은? 장나라

[돈버는법]

- ① 1,000원짜리 지폐를 펴놓고 지폐에 그려진 퇴계 이황 선생의 얼굴을 30분동안 두드린다. 그러면 퇴계 이황선생이 화가 나 얼굴이 벌개져 5,000원이 된다.
- ② 이렇게 5,000원짜리가 되면 1시간 정도 더 두드린다. 그러면 과랴게 질려서 1만원짜리가 된다.
- ③ 이것을 가지고 한강으로 나가 실에 매달아서 물에 집어 넣을까 말까를 몇번 반복하면, 하얗게 질려서 10만원짜리 수표가 된다.

[4가지 유형의 공주병]

1. 이순신 장군 유형 - 나의 미모를 적에게 알리지 말라.
2. 안중근 유형 - 하루라도 예쁜 척을 안 하면 온몸에 가시가 돋는다.



3. 맥아더 장군 유형 - 공주는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4. 나폴레옹 유형 - 내 사전에 '주너'라는 낱말은 없다.

[넌센스퀴즈]

1. 숫자 9를 본 스님을 3글자로 줄이면? 구본승
2. 당신은 촌에 삽니다를 3글자로 줄이면? 유인촌
3. 우유를 여섯 글자로 하면? 송아지 쭈쭈바
4. 아몬드가 죽으면? 다이아몬드
5. 애널다가 죽은 여자를 4글자로 줄이면? 다이애나
6. 쥐가 4마리 모이면? 쥐포
7. 3개의 다른 나라 말을 동시에 하면? 핸들 이빠이 꺾어

[건망증 환자]

중년남자가 정기검사를 받기 위해 의사를 찾아갔다. 잔뜩 얼굴을 찌푸린 남자를 보고 의사가 먼저 어디 이상이 있느냐고 물었다. 남자가 대답했다. “글쎄요. 사실은 기억력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서..... 어떤 때는 차를 어디에 주차했는지도 기억이 안날 때가 있고, 편지에 답장을 했는지도 생각이 안나요. 간혹 전에 찾아갔던 곳도 기억이 안나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의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우선은 진료비부터 계산한 후에 처방을 해드리도록 하면 어떨까요?”

[아가씨 6% 주세요]

불링을 치는데 음료수 내기를 하였다. 세 사람이 청량음료인 2%를 원했다. 진 팀 대장이던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에 우리 모두는 넘어가 버렸다. “아가씨, 6% 주세요.” ㅋㅋㅋㅋ (청량음료 3개의 합이 6%)

[마징가Z 주제가(한자버전)]

기운 센 천하장사 무쇠로 만든 사람
高精力 天下之壯 爲鋼鐵 製造人間
(고정력 천하장 위강철 제조인간)

인조인간 로봇트 마징가 Z
人造人間 鐵戰士 馬嘯巨 Z
(인조인간 철전사 마진거 을)

우리들을 위해서만 힘을 쓰는 착한 이
斷爲吾等 精力浪費 善人間
(단위오등 정력낭비 선인간)

나타나면 모두모두 덜덜덜 떠네
一斷出現 男女老少 全身之 痙攣
(일단출현 남녀노소 전신지 경련)

무쇠팔 무쇠다리 로케트 주먹
鋼鐵腕 鋼鐵脚 遠隔操縱 之拳
(강철완 강철각 원격조종 지권)

목숨이 아깝거든 모두모두 비켜라
與生命 危殆直感 男女老少 急避身
(여생명 위태직감 남녀노소 급피신)

마징가 쇠돌이 마징가 Z
馬嘯巨 金石君 馬嘯巨 Z
(마진거 금석군 마진거 을)

[세계 최고의 언어]

고등학교 때 일이다. 화장실의 변기 칸에 들어갔는데 친구가 날 불렀다.

친구 : “똥싸?” (똥싸냐? - _ - ::)

나 : “똥싸.” (그래. - _ -)



친구 : “똥싸~?” (진짜? 담배 피는 거 아냐? - _
- a)

나 : “똥싸--!!” (똥 싸다니까!)

친구 : “똥싸~” (알았어. 먼저 교실에 가 있다.)

말 한 마디로 끝까지 대화가 가능한 역시 한국어는
세계 최고의 언어다.

[어떤 여자의 전화]

어떤 여자가 우리집에 전화를 하고 대뜸 “수희 있
어요?” 하는 것이었다.

우리집에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는 “몇번에
거셨는데요?” 라고 물었다. 그러자 그 여자 왈
“한 번에 걸었는데요.”^^

[엽기적 꼬마]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으로 발령받은 유치원에서
생긴 일입니다. 미술시간이었는데 특별히 주제가
생각나지 않아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
는 걸 그려 보세요!”라고 말을 했더니 다들 열심히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꽃을 그리는 아이, 나비를
그리는 아이 등등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검정색 크레파스를 짙게 움켜잡
고서 스케치북에 있는 힘을 다해 마구 휘젓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순간 저 아이가 자폐증을 앓고
있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어서 조심스레 다가가 다
정하게 물었습니다.

“지금 뭘 그리고 있니~? ^^;” 그 아이가 대답하기
를....

“김 그리는데요!” ○○

[수 의 사]

내노라하는 의사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그 가운
데에는 수의사 한사람도 끼여 있었다. 늘상 권위

세우기를 좋아하는 한 의사가 수의사가 못마땅해
내쫓을 생각으로 이런 말을 했다.

“당신은 개나 돼지만 고친다면서요?” 그러자 수
의사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네, 그렇습니다만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병원 앞 벤치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밟는 두 의사가 점심을 먹고 나
서 병원 앞 벤치에서 쉬고 있었다.

그때 어떤 남자가 안짱다리에 두 팔을 뒤흔고 고
개를 기묘하게 꼬면서 걸어오는데, 푸르텡텡한 얼
굴에는 땀이 비 오듯 했다. 그것을 본 의사들은
의사1 : “안됐어. 뇌성마비환자로군.”

그러자 다른 의사가 대꾸했다.

의사2 : “천만에! 편두통성 간질이야”

그런데 잠시 후 그 두 사람 앞에 멈춘 그 남자가
더듬더듬 물었다.

“저... 화장실이 어디죠?”

[엄마 나 왜 먹었어?]

어느 날 작은 아들이랑 사진을 보다가 있었던 이
야기입니다.

사진 속에 배가 불러있던 저와 첫째 아들만 나와
있으니까 작은 아들이 “엄마, 나는 어디 있어?” 하
기에 “응, 엄마 뱃속에 있지?”하고 답하니, 우리 작
은 아들 왈,

“엄마 나 왜 먹었어?”

(발체 · 편집/이경수 편집위원)

- 삼행시 장 원 -

참 된 의 사

참담하고 암울한 의료현실 하에서도

된서리 엄동설한 삭풍이 몰아쳐도

의사로서 한평생 의롭게 살려하니

사랑과 믿음으로 영원히 인내하리

이석균(경산, 청십자의원)

- 삼행시 차 상 -

■ 시 제 : 참된의사

참으로 힘들었던 지난 2년간
된다 안된다 말도 많았던 의료현안들
의사들의 참된 마음 한데모여
사르르르 눈녹듯이 해결 되었으면

전 민(포항, 전민신경정신과의원)

참된 의사로 살린다
된다서리 맞아도 참된의사로 살린다
의사로 사는 것이 힘들다 하여도
사명감으로 시작한 길 참된의사로 살린다

김도형(안동, 현대산부인과의원)

- 삼행시 차 하 -

■ 시 제 : 앞선의술

앞산노을 고운 빛은
선술집 처마끝을 맴돌고
의료행정 멍든 가슴
술잔속에 가득하네

김광숙(안동, 윤소아과의원 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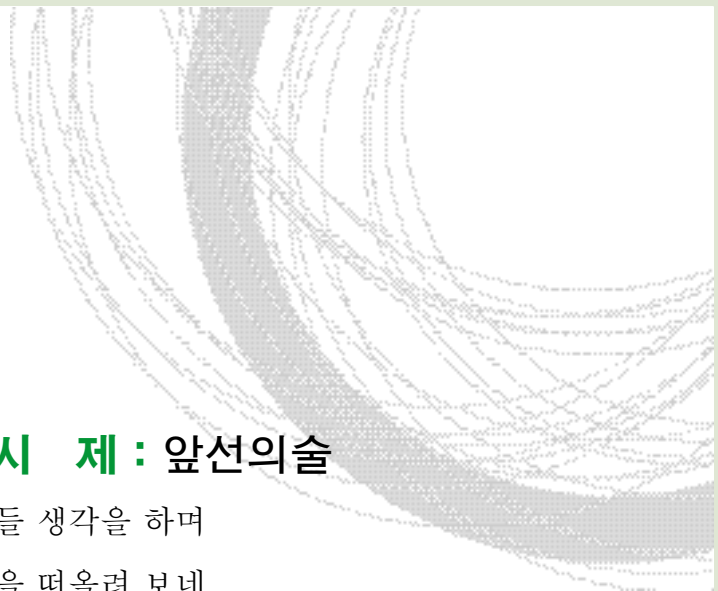
■ 시 제 : 참된의사

참의사 실천자 되고자
된고생 이겨내며 노력했지
의사의 진료생활 본분은
사랑과 기쁨을 나누는 것

최유근(안동, 최유근안과의원)

참으로 현 의료계 상황은 안타까우나
된서리 맞은 화초마냥 풀죽지 말고
의사의 숭고한 본분을 다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여 지키자. 우리의 의권!

허 석(김천, 김천방사선과의원)



■ 시 제 : 앞선의술

앞서가신 선현들 생각을 하며
선배들의 업적을 떠올려 보네
의사로서 살아갈 길 암담하지만
술수나 잔피를 부리지 맙세!

이원기(포항, 이원기외과의원)

앞으로 몇일 남은 월드컵에서 우리나라 선수들
선전하여 16강에 진출하고
의료인들 단합하여
술술 잘풀리는 한해되게 하소서

양사규(영천, 현대의원)

■ 시 제 : 참된의사

참꽃이 피면 오리라던 우리의 소망은
된서리 찬 바람에도 지지 않고 피어나
의료인의 참 마음으로 함께 하였네
사랑으로 함께 하리라 오직 하나된 마음으로

이은희(경산, 박산부인과의원 가족)



10. 27 전국의사결의대회 행사장 전경



단상의 시도의사회장단



누구위한 분업인가 국민에게 물어보자



10월인데도 웬 추위가!



의협회장에게 서명지 전달



대선관련 행동지침 발표



행사장에 입장하는 의료계 대표들



의료계를 말살하는 의약분업 철폐하라



화랑교육원 국궁장에 마련된 의학제 본부석



일동 차렷!(열중쉬어도 있군)



족구경기(웬 헛발질)



모야 모야, 또야 또야!



한마음 한뜻(2인 3각경기)



back이야 fore냐?



심사숙고, 장고 끝에 악수나올라!



부디 head up하지 마세요.



자전거 한 대의 행운을



폼 만든 명궁(국궁시범)

의료계 탄압행위 강력저지 결의

의협 의료정책 적극지원 다짐

- 제51차 정기대의원총회서 -

경상북도사회는 지난해 3월 29일 오후 4시 경주 힐튼호텔에서 제51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1,000만명 서명운동등 의협이 전개하고 있는 모든 정책에 적극 동참하기로 결의했다.

대의원 67명과 내빈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원기의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이날 정기총회는 변영우회장의 인사에 이어 신상진의협회장의 격려사와 이의근 경북지사(안윤식 정무부지사 대독), 박길수 의협의장등 내빈축사가 있는 다음 의협회장상과 본회 발전에 공로가 많은 대내외 인사에 대한 시상이었다.

속개된 본회의에서는 의료현안을 비롯한 4.17 전국 의사 1차 파업투쟁과 관련해 신상진 의협회장과 대화의 시간이 있는 다음 2001년도 감사보고와 회무보고 및 결산보고에 이어 2002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 심의에서는 집행부에서 마련한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회칙개정에서 최근 3년간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임원구성에 이사 4명을 정책이사 10명 이내로 개정하는 것은 통과시키고 회장 직선제와 상근문제에 대해서 장시간 토론 끝에 표결결과 부결되었다.

의안토의에서는 △잘못된 현행 의약분업철폐 △건강보험 관련제도 개선 △의료분쟁조정법 조속제정 △의료기관 조세제도 개선 △감염성폐기

물 관리업무 간소화 △폐수 배출시설 운영일지 면제 △의원단독 정화조 규정완화 △신용카드 진료비 수수료 인하 △각종성금 특별회비 의무화 △개설시 소속의사회 경유제도 의무화 △사회복지법인 환자유치행위근절등 11개항에 대해서는 의협 건의안으로 채택했다.

이날 의료현안과 관련한 결의문을 통해 "부당한 진료비 삭감과 도덕교과서 날조사건"등 잘못된 의료계 탄압을 개탄하면서 의협이 보다 강력하게 대처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현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의협을 중심으로 단결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의협사랑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시상자 명단>

□ 의협회장상 : 안길룡(김천, 안외과의원)
신내철(경주, 신내철산부인과의원)

□ 경북회장상

대외인사 : 김태웅 / 경상북도 보건과장
진덕희 / 심 평 원 심사부장
박승구 / 대한의협 의사국장
오윤수 / 의협신보 차장

회원표창 : 최을임 / 포항, 최소아과의원
오진석 / 경주, 한마음의원
김재왕 / 안동, 김재왕내과의원
이상식 / 구미, 이상식산부인과의원
김인환 / 영천, 김인환내과의원
유성호 / 문경, 평화산부인과의원

모범분회 : 영덕군 의사회

화 제51차 대의원총회 이모저모 보



이원기의장의 개회사



신상진 의협회장 격려사



변영우회장의 인사



박길수 의협의장 축사



정능수 감사의 감사보고



안윤식 정무부지사 축사



모범회원에게 표창장 수여



대외 시상자에 감사장 수여

2002년도 춘·추 종합학술대회 성료

춘계학술대회 5월 경주코오롱서
추계학술대회 12월 경북대병원서



본회 학술부 주요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된 2002년도 춘계학술대회는 5월 경주코오롱호텔과 화랑교육원에서 추계학술대회는 12월 대구경북대학교병원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의학발전과 회원보수교육을 위해 열린 학술대회는 개원회원들의 임상진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학술연제와 의료현안과 관련한 특강 및 시청각 교육으로 구성되어 실시했다.

춘계학술대회는 본회 변영우회장의 의사윤리와 신상진 의협회장의 특강이 있는 다음 중앙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료현안에 대해 김방철 상근부회장과 안양수 정책이사, 주수호 공보이사가 해당분야 업무에 대하여 소상히 보고했다.

그리고 추계학술대회에서는 경산대학교 김종대 객원교수(전·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로부터 「의료보험 재정파탄의 원인 및 책임규명과 개혁방안」에 대한 특강이 있었다.

춘계학술대회는 5월 25일 26일 양일간 개최되어 연수교육평점 11평점이 인정되었고, 추계학술대회는 12월 1일 하루에 6평점이 인정되었다.

〈춘계학술대회 연제 및 연사〉

■ 5월 25일(土) 14:00

▲노인의학 = 비디오 ▲의사 윤리 = 변영우 · 경상북도의사회장 ▲응급한 감염질환의 일차진료 및 Bioterrorism = 김신우 · 경북의대 감염내과 ▲대장암 = 배옥석 · 계명대의대 일반외과 ▲소아의 파행(다리저는 아이) = 김세동 · 영남의대 정형외과 ▲의료현안에 대하여 = 신상진 · 대한의사협회장

■ 5월 26일(日) 09:00

▲두통의 진단과 치료 = 이동국 · 대구가톨릭신경과 ▲전신질환과 안저소견 = 김인택 · 경북의대 안과 ▲크로이츠펔트 야콥병의 발생역학과 대책 = 정해관 · 동국의대 예방의학과 ▲신장내과 = 비디오 ▲40대 돌연사 = 비디오

〈추계학술대회 연제 및 연사〉

▲의사 윤리 = 변영우 · 경상북도의사회장 ▲호르몬 대체요법의 최근 문제점 = 박일수 · 경북의대 산부인과 ▲천천성 심장질환의 치료 = 이광숙 · 계명대의대 흉부외과 ▲임상의가 본 단 순흉부 X-선 사진의 판독 = 이관호 · 영남의대 내과 ▲당뇨와 관련된 안 합병증 = 김윤영 · 대구가톨릭 안과 ▲의료보험 재정파탄의 원인 및 책임규명과 개혁방안 = 김종대 · 전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

2002년도 연수교육 결과보고

의사연수교육은 의료법 제23조 제2항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임상에 종사하는 모든 의료인은 연간 8평점 이상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회원친목과 화합의 경북의학제

제24회 대회 동부·서부지구 공동 우승

화랑교육원 국궁장에서 펼쳐져

- 회원 및 가족 250여명 참가 -



회원상호간의 친목과 건강증진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제24회 경북의학제가 지난해 5월 26일(일) 오후 1시 경주화랑교육원 국궁장(잔디운동장)에서 선수 및 가족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의학제에서 테니스, 윷놀이(선수), 족구경기에서 우승한 동부지구와 바둑, 윷놀이(임원), 골프피칭 경기에서 우승한 서부지구가 공동우승하고 3위 남부지구, 4위는 북부지구가 차지했다.

이제까지 실내경기 위주에서 탈피하여 금년에는 화랑교육원 잔디운동장에서 전선수 및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경기종목도 족구, 골프피칭, 2인 3각릴레이, 줄다리를 추가하고 가족을 위한 번외경기와 어린이 경기를 비롯한 최다 참가상을 신설했다.

그리고 골프, 탁구, 테니스, 등산은 앞으로 동호인 모임을 활성화해 별도의 단일 행사로 발전시키기로 했다.

시사 삼행시에는 「참된의사, 앞선의술」 2개 시제에 50여명의 작품이 출품되어 장원에는 이석

균회원(경산.청십자의원)이 차지했다.

최다 참가상은 동부지구(63명), 북부지구(47명), 남부지구(42명), 서부지구(25명)가 각각 차지했다.

마지막 행운권 추첨에서는 경품으로 자전거 15대를 걸어 놓아 회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종합성적 및 등위표

경 기 종 목	동부지구	서부지구	남부지구	북부지구
제24회 테니스대회	50	40	20	30
제22회 바둑대회	30	50	40	20
제16회 (선수조)	50	30	40	20
윷놀이 (임원조)	30	50	40	20
제1회 골프피칭대회	40	50	20	30
제1회 2인3각릴레이	20	30	40	50
제1회 족구 대회	50	20	30	40
제1회 줄다리기대회	50	50	50	50
총 합 점 수	320	320	280	260
총 합 등 위	1위	1위	3위	4위

행운권 당첨자 명단

- ☐ 부부 행운상: 박무근, 이상도, 서보균(포항)
이봉구(경주), 양사규(영천)
- ☐ 회원 행운상: 신은식, 김중호, 권세일,
성승모, 김주현(포항)
김장희, 조종섭, 민정기(경주)
라중호(구미), 김신일(울진)

영·호남 친선행사서 “합심투쟁” 결의

11월 9일 경주 코오롱호텔서

- 의료현안과 관련한 결의문 채택 -



본회와 전북도의사회는 지난해 11월 9일(토) 오후 7시 경주코오롱호텔에서 제17회 영호남 의료인 친선행사를 개최하고 현행 잘못된 의약분업을 철폐하고 잃어버린 의권을 되찾기 위한 투쟁을 계속키로 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친선행사에는 내빈다수와 양도의사회 회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빈 및 회원소개에 이어 본회 변영우회장의 환영사와 전북도의사회 김명웅회장의 답사가 있는 다음 신상진 의협회장을 대신한 김방철 상근부회장의 축사와 박길수 의협회장, 박희백 의정회장의 축사가 있었다.

의료현안과 관련한 결의문에서는 최근 의사들을 무시하고 자존심을 짓밟으며 오직 건보재정에만 초점이 맞추어진 왜곡된 보건의료정책을 개탄하고, 영호남 의료인들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우리들의 견해를 밝히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서 우리는 1999년 장충체육관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2002년 10월 27일 과천 집회까지, 고통과 좌절을 감내하면서 잘못된 의약분업을 바로잡고 잃어버린 의권을 되찾기 위한 투쟁을 계속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왜곡된 통계자료에 의한 수가인하는 절대 수용할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만일 강압적으로 시행한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끝까지 투쟁키로 하고, 10. 27 과천궐기대회에서 마련한 12월 대선 행동지침에 따라 적절한 후보를 선택하기로 했다.

의협에 대해서는 지치고 회의감에 빠진 모든 의료인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소신을 갖고 분명한 행동을 해줄 것을 촉구하고, 회원들에게는 행동은 하지 않고 막연한 기대만 하는 기회주의적인 행동은 최대의 장애물이 될 수 있으므로 모두가 단합하고 준비하고 행동을 실천할 때만이 기회가 온다는 사실을 명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주 남산 산행으로 우의다져

경상북도의사회 주관으로 열린 제17회 영·호남 의료인 친선행사는 양지역 의료인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튿날인 11월 10일(일)에는 서라벌 남쪽에 우뚝솟은 경주남산을 연세가 많으신 원로회원과 산행을 한 후 내년 전북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고 오후 4시경 아쉬운 작별의 인사를 나누었다.



수재민에 사랑의 의술과 온정펼쳐

본회 및 시군서 성금 1억2백만원 기탁 김천시의사회는 수재민 무료진료



지난해 8월 31일 제15호 태풍 「루사」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100여명의 인명피해와 5조원이 넘는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사상 최악의 수해가 발생했다.

본회에서는 김천시의사회와 9월 2일(월)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국민과 함께 봉사하는 의사상 구현을 위해 김천시의사회 회원으로 구성된 진료팀을 수해가 가장 심한 지례면과 개령면에 파견했다.

진료반은 매일 1개 지역에 개원회원 2명과 간호사 2명으로 1주일간 연인원 74명이 참여하여 총 431명의 수해지역 환자를 진료했다.

한편 본회 변영우회장과 허석 김천시의사회장은 지난 9월 26일 박팔용 김천시장을 방문하고 회원들로부터 모금한 수재의연금 500만원과 수재의연금품 1천만원 상당(모포 700매, 의협·경북)과 가정용 구급낭 100개를 기탁했으며, 김천시의사회에서도 수재의연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특히 제15호 태풍과 관련하여 본회 및 시군의사회에서 수재의연금으로 49,940,000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52,335,000원등 총 102,275,000원을 기탁했었다.



본회 및 의협 수재의연금 모금

본회와 의협에서는 지난해 전국적인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수해와 관련하여 수재민과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하여 회원들로부터 수재의연금을 모금 했다.

본회에서는 회원을 대상으로 5천원씩 모금기로 한 성금 450만원은 의협에 납부하였으며, 제15호 태풍 「루사」의 영향으로 수해가 심한 김천지역 수재민을 돕기 위한 수재의연금을 회원당 1만원씩 모금 했었다.

2002 밝은세상 새로운 희망

- 본회, TBC와 무료개안수술 -

**65세 이상 노인환자 대상으로
대구·경북지역서 50명 수술**



경상북도의사회와 대구시의사회가 함께하는 2002년도 TBC 무료개안수술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대구·경북지역 노인환자 총50명(대구 36명, 경북 14명)에게 인술을 베풀어 밝은 세상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에 이어 이번 무료개안수술도 대구·경북의사회와 TBC가 공동 주최하고 대구·경북안과개원의협의회가 주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로 저소득층 65세이상 노인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행정기관의 시군보건소를 통해 9월 16일부터

10월 17일까지 20일간 신청을 마감한 결과 총 115명(대구 58명, 경북 57명)이 신청해 내과적 술전검사를 거쳐 11월 15일부터 수술에 들어갔다.

특히 이번 무료개안수술을 맡은 안과 및 내과 의료기관에서는 본인부담금과 공단청구분까지 전액 무료로 봉사했으며, TBC에서는 수정체 대금을 지원했다.

무료개안수술에 대한 중요성과 대국민홍보를 위해 TBC에서는 11월 15일 오전 7시부터 1·2부로 나누어 “2002 밝은세상 새로운 희망”이라는 주제로 생방송으로 보도했다.

이날 의료인으로는 본회 변영우회장과 대구시의사회 김완섭회장, 대구·경북안과개원의협의회 조영수회장이 TBC 대구방송에 출연했다.

TBC(대표이사 이길영)에서는 2002년 무료개안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칠수 있도록 협조에 대한 고마운 뜻을 담아 지난해 12월 본회에 감사패를 보내왔다.

〈무료개안수술 자원봉사기관〉

시군별	성명	의원명	수술인원
포항	이재백	이재백안과의원	1
	이우석	영동안과의원	3
경주	김형일	성모안과의원	2
구미	송효철	밝은안과의원	4
	진익도	진안과의원	2
영천	박남규	박안과의원	2

실패한 의약분업 철폐를 위한 궐기대회

2만여 회원 총력투쟁결의 10. 27 과천종합청사앞서



강한 바람과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실패한 의약분업 철폐를 촉구하는 전국 의료인들의 하나된 함성이 과천벌을 뒤흔들었다.

지난해 10월 27일(일) 오후 2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열린 실패한 의약분업 철폐를 위한 전국 의사 궐기대회에서 의협은 성명을 통해 잘못된 의약분업으로 초래된 재정과탄을 만회하기 위하여 의사 뿐만 아니라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할 국민들까지 죽이고 있다고 천명했다.

그리고 국민들이 정당한 진료를 받을 권리와 의사들의 소신진료가 사라져 버린 작금의 의료 현실을 개탄하고 규제일변도의 의료정책을 남발하고 있는 정부에 대해 끝까지 투쟁해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8만 의사 주장에서는 △보험요율 10%이상 상향조정 △정부의 수가인하 음모 즉각 중단 △의대입학정원 감축이행 △전공의 처우개선등 모두 11개 항목의 대정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이날 본회 변영우회장(대외협력위원회 기획분

과위원장)은 12월 대선은 한국의료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선거이므로 전회원이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대선 행동지침」을 대내외에 천명했다.

한편 본회에서는 시군 의사사회에서 대절한 관광버스 1대당 50만원씩 경비를 지원하였으며, 이날 버스 22대에 767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시군별 참석회원 현황〉

시 군 별	참 석	비 율	버 스
포 향 시	167	75%	4
경 주 시	80	66.7%	2
김 천 시	35	67.3%	1
안 동 시	50	80.6%	1
구 미 시	124	80.5%	3
영 주 시	41	95.3%	2
영 천 시	41	72%	1
상 주 시	30	91%	1
문 경 시	25	78%	1
경 산 시	62	56.4%	2
군 위 군	3	60%	
의 성 군	9	53%	
청 송 군	2	29%	
영 양 군	1	100%	
영 덕 군	5	38.5%	
청 도 군	9	60%	
고 령 군	2	33.3%	
성 주 군	8	61.5%	
칠 곡 군	30	81%	1
예 천 군	5	41.6%	1
봉 화 군	5	83.3%	
울 진 군	4	22.2%	
울 통 군			
전 공 의	29		1
경 북 도			1
계	767	74%	22

4.17 전국의사 1차 파업투쟁 중국 민항기 추락사고로 무산

본회 전단지 제작배포 준비완료

의협은 의약분업 전면 재검토와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의·정협의체 구성등에 대한 의료계의 정당한 주장을 묵살하는 정부의 행태에 분노하면서 4. 17 1차 전국의사 파업투쟁을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4월 15일 중국민항기 추락사고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국민의 아픔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4월 16일 전격적으로 파업투쟁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의협에서는 5월초까지 의쟁투와 같은 투쟁체를 구성기로 하고 만일 투쟁체가 구성되지 않으면 신상진 회장은 의협회장직을 사퇴키로 한다는 회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공지했다.

본회에서는 불편하기 그지없고 돈은 돈대로 들고 이런 잘못된 의약분업을 철폐하기 위하여 “4월 17일은 잘못된 의약분업 거부の日”로 정하고 병원문을 닫기로 하였다.는 홍보용 전단지 30만매를 제작해 중앙 및 지방일간지를 통해 도민에게 배포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완료하였다.

경상북도 도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의사들이 병원 문을 닫아가며 그렇게도 반대했던
잘못된 의약분업 강행 1년 9개월!
오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편리해 지셨습니까?
돈이 적게 듭니까?
보험 재정이 안정되었습니까?

불편하기 그지없고, 돈은 돈대로 들고,
보험 재정은 파탄 났습니다.

이제 이런 잘못된 의약분업을 철폐하고,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기 위하여
4월 17일을 “잘못된 의약분업 거부の日”로
정하고 병원 문을 닫기로 하였습니다.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도민 여러분과 함께 이 잘못된 의약분업을
고치고 싶습니다.

급한 환자 분은 가까운 응급실을 이용하십시오.

경 상 북 도 의 사 회

“의약분업?”

누가 관절 아픈 노인들의 고통을 알겠어?”

의약분업한다고 해서 나라에서 어떤히 알아서 할까 생각했었지
우리 의사선생들이 왜 반대를 하는지 이해도 안됐고
더 좋아진다고 해서 정말 좋아지는 줄 알았는데 -
워가 좋아졌는지 전혀 모르겠어
오히려 나같은 관절염 환자는 병원에서
약국으로, 약했다고 하면 다시 병원으로 -
병원 다녀 온 날이면 몸이 더 아파
공짜를 못해요
돈은 돈대로 더들고 약도 제대로
치여 주는지 모르겠고 -
누가 의약분업하자 했는지,
나이들어 아파지면 우리 심정을 알까 -



심대한 의약분업 여러분의 힘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전국의 병원에서 의약분업철폐 1000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국에서 100만명 가까이 서명을 하였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경상북도의사회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 유족돕기 성금 본회, 매일신문에 1천만원 기탁

**최악의 지하철화재사고로 기록
엄청난 희생에 전국민이 애도**



경상북도의사회서는 지난 2월 18일 대구지하철 화재사고로 숨진 유족과 부상자들을 돕기로 하고 회원들로부터 모금한 1천만원의 성금을 2월 24일 매일신문사에 기탁했다.

이번 대구지하철 화재참사는 사상유례를 찾아볼수 없는 최악의 지하철 화재사고로 기록될뿐만 아니라 엄청난 희생에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본회에서는 대구지하철 화재참사와 관련하여 2월 19일 긴급회장단회의를 개최하고 뜻밖의 참사로 인하여 아까운 인명을 잃고 실의에 빠져 있는 우리고장의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성금을 모금기로 했다.

중국 민항기 사고 유족에 애도

지난해 4월 15일(월) 오전 11시 40분경 중국 민항기가 김해 신어산 추락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본회 회원가족으로는 박종근회원(구미, 박종근 산부인과의원)의 부모님과 조용수회원(김천, 하나산부인과의원)의 일가족이 민항기사고로 유명을 달리했다.

한편, 본회 변영우회장은 조문과 아울러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고인의 명복과 유족에 애도를 표했다.

謹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과

弔

부상자 여러분의 조속한 쾌유를 빕니다.

- 경상북도의사회 회원일동 -

9.14 대구·경북 결의대회 태풍 「루사」로 무기연기

경상북도의회사회는 실패한 의약분업을 철폐하고 불합리한 보험정책을 저지하기 위하여 대구시의사회와 권역별 결의대회를 2002년 9월 14일 대구 국채기념보상공원에서 오후 5시에 공동 개최기로 했다.

본회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9월 3일 시군의사회장 및 국권투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전회원이 참석키로 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해 왔으나, 8월 31일 제15호 태풍 「루사」의 영향으로 김천지역의 수해가 심각하여 국민정서등을 감안하여 연기하게 되었다.

의협에서는 권역별 시도의회사회 집회 일정을 호남권 8월 31일, 충청권 9월 7일, 영남권 9월 14일, 수도권 9월 17일 각지역 릴레이 형식으로 결의대회를 개최기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실패한 의약분업 시행으로 인한 건보재정파탄 이후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각종 고시등을 통하여 보험급여를 제한해 왔다.

영남권(부산) 의사결의대회 참가

제15호 태풍 「루사」의 영향으로 대구·경북 결의대회가 무산됨에 따라 본회에서는 지난해 9월 14일(토) 부산시청 앞에서 열린 영남·제주권(부산) 결의대회에 참가했다.

이날 행사는 3천여명의 이지역 의사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실패한 의료정책을 규탄하고 의사가 없는 의료정책, 왜곡된 의료현장, 고통받는 국민을 위해 전 의료계가 나서기로 결의했다.

본회에서는 변영우회장과 이원기의장, 정만진

기획이사, 문실길의무이사, 김병곤 군위군회장이 참석했다.

포항시의사회 의권투쟁사 발간



정부의 잘못된 의약분업을 바로잡기 위해 길거리로 나선 의사들의 의권투쟁에 대한 열기는 아직도 가슴속에 뜨겁게 자리잡고 있다.

포항시의사회는 의권투쟁과정(1999~2002)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지난 2월 「의권투쟁사」를 발간했다.

이원기 포항시의사회장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의료정책에 대항하여 거대한 공권력과 시민단체와 언론의 포화를 맞으며, 맨주먹으로 싸운 것은 의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고 발간사에서 회고했다.

대국민 홍보용 전단지 제작키로

- 시군의사회장 및 국권투회의서 -



경상북도의회사회는 지난해 4월 9일(화) 오후 7시 의사회관에서 긴급 시군의사회장 및 국권투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4. 17 전국 의사 1차 총과업에 적극 참여키로 하는 한편 대국민 전단지 제작해 배포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실패한 현행 의약분업 철폐 및 의사의 진료권 사수를 위해 의협에서 결정한 전국 의사 총과업에 전회원이 동참키로 결의했다.

이번 총과업 투쟁의 당위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시군단위 임시총회 또는 반별 모임을 갖기로 하고 1,000만명 서명은 개원회원당 500명 이상 받기로 했다.

본회에서는 대국민 홍보용 신문간지(전단지) 30만매를 제작해 일간지(조선, 동아, 매일, 영남) 신문지국을 통해 전도민에게 배포키로 했다.

포항시의사회 임시총회 개최



포항시의사회는 지난해 10월 22일(화) 오후 7시 시그너스호텔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10. 27 전국 의사 결의대회에 전회원이 참가하기로 했다.

이날 임시총회는 이원기회장의 인사에 이어 본회 변영우회장의 격려사가 있는 다음 대한의사협회 안양수 정책이사로부터 중앙회의 의료정책 전반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특히 실패한 의약분업 철폐를 위하여 10. 27 전국 의사 결의대회의 중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보고가 있는 다음 의료기관 세무와 관련한 교육이 있었다.

파업투쟁 관련 시군임원회의개최

경상북도 의사회는 4. 17 전국 의사 제1차 파업투쟁과 관련하여 시군의사회 및 병원장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중앙회의 지침에 따라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변영우회장은 지난해 4월 11일 포항시의사회를 필두로 안동시와 구미시의사회 임원 및 지역 병원장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의료현안과 관련한 공동관심사에 심도있게 논의했다.

〈시군의사회 회의 일정〉

- 포항시의사회 : 4월 11일(목) 19:00
- 안동시의사회 : 4월 12일(금) 12:00
- 구미시의사회 : 4월 12일(금) 19:00

권역별 결의대회 전원참가 결의

- 시군의사회장 및 국건투회의서 -

경상북도 의사회는 지난해 9월 3일(화) 오후 7시 의사회관에서 시군의사회장 및 국건투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9월 14일 예정인 대구·경북 의사결의대회에 전회원이 참가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적으로 릴레이 형식으로 열리는 권역별결의대회가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연령제한 없이 참가키로 하는 한편 의협발전성금 납부에 대한 독려와 1,000만명 서명은 계속 받기로 하고, 수재민돕기 행사를 당일 병행하기로 했다.

권역별(대구·경북) 결의대회는 9월 14일(토) 대구 국채보상기념공원에서 대구시의사회와 공동으로 개최키로 했었다.

경북의학제 준비위원회서 경기종목 및 규칙등 마련

경북의학제 실무준비위원회(위원장 이석균)는 지난해 5월 8일(수) 오후 7시 경산에서 회의를 갖고 보다 많은 회원과 가족이 참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준비위원회에서는 실외 경기로 다양한 경기종목을 선택하고 가족을 위한 번외경기과 어린이 경기등을 신설했다.

단체경기로는 기존의 테니스, 바둑, 윷놀이 대회와 족구, 골프피칭, 2인 3각 릴레이, 줄다리기 경기를 추가했으며, 번외경기로는 투호놀이와 국궁, 터치볼 경기를 갖기로 했다.

그리고 주경기인 테니스, 바둑, 윷놀이, 골프피칭 경기는 중복출전을 제한하고 족구, 2인 3각 릴레이, 줄다리기는 중복출전도 가능하도록 했다.

1. 경기종목 및 참가인원

경 기 종 목	참가인원	선발기준
제24회 테니스대회	4명	2단 1복
제22회 바둑대회	3명	선수 3명
제16회 윷놀이대회(임원)	4명	임원 4명
제16회 윷놀이대회(선수)	4명	선수 4명
제1회 골프피칭대회	5명	선수 5명
제1회 2인 3각 릴레이	8명	4조×2명
제1회 족구대회	6명	선수 6명
제1회 줄다리기대회	무제한	무제한

2. 종합점수 및 배점기준

경 기 종 목	등 위 별 점 수				비 고
	1위	2위	3위	4위	
테니스대회	50	40	30	20	
바둑대회	50	40	30	20	
윷놀이(임원)	50	40	30	20	
윷놀이(선수)	50	40	30	20	
미니골프피칭	50	40	30	20	
2인 3각 릴레이	50	40	30	20	
족 구	50	40	30	20	
줄다리기	50	40	30	20	

3. 경기규칙

경 기 종 목	경 기 규 칙
테 니 스(4명)	- 대한테니스연맹의 경기규칙 준용 - 예선전 단판, 결승전 3판 2선승제
바둑대회(3명)	- 흑 5호반 공제, 전체호선 - 제한시간 : 각 30분
윷 놀 이(8명)	- 선수조 4명과 임원조 4명이 출전 - 경기는 4등 먼저나는 팀이 우승 - 예선전 단판, 결승전 3판 2선승제
골프피칭(5명)	15m 거리에서 지름 1.5m 원안에 넣기 10개의 골프공을 피칭한 결과 합산
2인 3각(8명)	- 시군회장 2명, 여자 2명은 반드시 포함 - 발을 묶고 바톤 이어 달리기(50m)
족 구(6인제)	- 예선전 21점 1세트(11점 자리 교체) - 결승전 15점 3세트(2선 승제)
줄 다 리 기 (무제한)	- 기준선에서 1m 이상 끌고 가기 - 승부가 나지 않을 경우 3분 결과로 결정 - 예선전 단판, 결승전 3판 2선 승제
터 치 볼(12명)	출전선수는 팀당 12명으로 구성
투호경기(10명)	1인당 10개를 투척한 결과로 승부
기 타 규 칙	- 출전선수는 회원 및 배우자로 한다. - 각경기종목별 대진은 당일 추첨으로 결정 - 테니스, 바둑, 윷놀이, 골프, 중복출전 불가 2인 3각, 족구, 줄다리기 중복출전 가능 5분전 출전하지 않을시 기권으로 인정 - 종합우승은 각경기종목의 종합점수로 결정 하며 동점일 경우는 우승수로 결정

「7.1 고시」 정부에 철회촉구

- 8.6 긴급회동서 철회합의 -

국민건강투쟁위원회(국건투)는 지난해 7월 16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6월 28일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소화기관용약제 급여제한조치를 7월말까지 철회할 것을 최후 통첩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의 건보재정을 빌미로 일방적 고시는 명백히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고, 국민 건강권을 파괴하는 엉터리 정책”이라고 규정하고 잘못된 고시가 철회될때까지 총력을 다해 투쟁기로 했다.

그동안 의료계로부터 심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던 “소화기관용약제 급여처리기준”과 관련해 지난 8월 6일 신상진 의협회장과 김성호 보건복지부장관 긴급회동을 갖고 철폐기로 전격 합의했다.

한편 의협에서는 이번 합의는 소화기관용약 관련 6. 28 고시에만 국한된 것이며, 의약분업 철폐 및 잘못된 의약분업제도 개선을 위한 투쟁은 계속하기로 했었다.

본회 변영우회장 공단방문 성명서 전달

본회 변영우회장은 지난해 11월 21일 오후 1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사탄압 규탄집회에 이어서 공단을 항의방문하고 김병주 상무이사를 면담(이상용 공단이사장 부재중)하는 자리에서 의료계의 입장과 성명서를 전달하였다.

이날 규탄집회에는 의협회장 등 많은 의료계 대표분들과 마포구의사회장 및 임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동 규탄대회는 사승언 의

협총무이사의 경과보고, 김영수 안산시의사회 총무이사의 구호제창, 김방철 상근부회장의 성명서낭독, 박한성 강남구의사회장의 구호제창이 있었다.



'무면허 의료' 적발, 검찰에 고발

임의조제 등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의협 불법진료행위 적발단(일명 투갑스)의 활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영천지역 무면허 의료행위자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하는 성과를 올렸다.

본회에서는 영천시의사회로부터 무면허 의료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의협에 보고하여 지난 11월말경 해당 지역에 투갑스를 파견했다.

확인 결과 피고발자인 안 모씨는 경북 영천시에 위치한 음성나환자촌에 '오수동의무실'이라는 진료소를 설치하여 음성나환자들에 대한 의료보조 업무를 명목으로 인근 대구 등지에서 찾아오는 피부병, 관절염 등 불특정 환자들을 대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와 투약행위를 한 사실을 밝혀냈다.

의약분업제도 개선방안등 논의 전국 의사 대표자 워크숍서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6월 23일(일) 오후 1시 가톨릭의대 의과학연구원 2층 대강당에서 전국 의사 대표자 워크숍을 열고 의약분업제도 개선등 의료현안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300여명의 지역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상진 의협회장의 인사말이 있은다음 정상혁교수(포천중문의대 예방의학)가 “의약분업 정책의 평가”, 의협 이창훈 의무이사가 “의약분업 대책방안 비교 검토”를 각각 발표하고, 이어 의료제도 연구회의 “의약분업 정책실패와 대안 검토”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은후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분임토의에서는 제1분임토의 주제는 「의약분업 완전철폐안 중심과 국민선택분업안 중심」, 「현행 틀 유지 수정보완안 중심」등 각각 제2, 3분임토의 및 전체토의를 가졌다.

본회에서는 변영우회장을 비롯한 상임이사, 시군의사회 임원등 12명의 대표자가 참석했다.

6. 13 지방선거 입후보자에 의약분업 및 규제개선등 질의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정치, 사회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외협력위원회를 발족하고, 동사업의 일환으로 6. 13 지방선거 입후보자에게 의약분업 및 규제개선과 관련한 정책적 견해를 파악하여 회무에 적극 반영키로 했다.

경상북도의사회에서는 시군의사회장 공동명의로 광역 도지사 및 도의원과 기초단체장 및 시군의회 의원 입후보자등 총 1,285명에게 개별 질의서를 송부하여 6월 5일까지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이번 정책질의 내용으로는 현 의약분업 정책 개선방안, 정책대안으로서 선택분업에 대한 견해, 시범사업, 보건소 문제, 감염성 폐기물처리문제, 방사선 관리 및 검사문제, 의료보호 관련문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광 역			
구 분	대 상	후보수	회 신
도지사	1명	2명	2명
도의원	51명	115명	12명
기 초			
구 분	대 상	후보수	회 신
시장·군수	23명	73명	4명
기초의원	339명	787명	13명

대구지방국세청과 간담회 개최

경상북도의사회와 대구시의사회는 지난해 5월 14일 오후 7시 의사회관 3층 강당에서 대구지방국세청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 대구국세청 개인납세2과 이원우 과장을 초청, 의료계 입장과 국세청의 세정안내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2002년도 소득세 확정신고 관리방향으로는 납세자 자율에 의한 성실신고 정착과 소규모사업자의 간편 장부에 의한 신고확대와 복식부기의 의무자가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 중심의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특징이다.

본회에서는 변영우회장과 상주시의사회 김량회장이 참석했다.

대선관련 한나라당 지지성명

- 시군회장 및 상임이사회의 -



경상북도의사회서는 지난해 12월 5일(목) 오후 7시 대구에서 시군의사회장 및 상임이사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의료정책 전반에 대해 중점논의하고 대선과 관련한 의료계 입장을 밝히는 3개항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날 회의에는 내빈으로 박시균(영주), 박재욱(경산, 청도) 한나라당 국회의원과 시군의사회장 및 상임이사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변영우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의료현안 문제와 관련해 소상히 보고하고 특히 이번 대선은 의료정책 결정에 매우 중요하므로 의료계의 입장이 최대한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의료현안과 관련한 이날 회의에서는 잘못된 현행 의약분업의 근원적인 해결책은 외면한채 미봉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 정부에 대해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으므로 의협 대선의료정책평가단의 평가에 따라 한나라당 이회창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의했다.

또 이번 대통령선거가 잘못된 의약분업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생각하고 대선행동지침에 따라 시군의사회 단위 각종회의를 개최하여 지역 지구당 사무실 방문과 친·인척 및 환

자들에게 의료정책을 상세히 설명하는 한편 연고자 추천은 회원당 20명이상 추천키로 하고 손상된 의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떠한 상황이 닥쳐오더라도 일치단결하여 끝까지 투쟁키로 했다.

대선관련 전국시도의사회 방문

본회 변영우회장은 제16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시도의사회 단위로 일제히 열리고 있는 의료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중앙회의 대선지침'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의협 대외협력위원회 기획분과위원장의 자격으로 대선과 관련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의료정책을 비교분석한 결과에 대해 소상히 설명하고, 한나라당 의료정책을 지지하기 위하여 시군단위 반회 모임 개최와 아울러 연고자 추천 20명 이상과 친·인척 전화걸기, 지역당 사무실 방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도별 정책설명회 참석지역〉

경남도	12. 9(월)	19:30	마산로얄호텔
울산시	12. 10(화)	19:30	울산로얄호텔
수도권	12. 11(수)	19:30	대한의협회관
대구시	12. 12(목)	19:30	대구의사회관
충청권	12. 13(금)	19:30	청주관광호텔



정관개정 및 정책연구소 설립 인준

- 의협 제54차 정기총회 유회 -



지난해 4월 27일(토)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는 의결정족수 미달로 사업계획과 예산을 확정짓지 못하고 유회되었다.

그러나 이날 오전에 열린 본회의에서는 2년여에 걸쳐 마련한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의료계의 숙원 사업이었던 의료정책연구소를 운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정관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회원의 의무와 권리를 분리하여 그 개념을 명확히 하는 한편 250명의 대의원 정수를 시도지부는 각 2명, 의학회는 대의원정수의 100분의 20명, 협의회는 100분의 10명, 군진지부 5명등으로 분배 조정했다.

5월 16일 의협회관에서 속개된 본회의에서는 집행부가 편성한 회비 인상안(가회비 연회비 5만원 인상)은 표결결과 부결되어 200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다시 조정하여 대의원의 서면결의를 받아 집행하기로 했다.

그리고 의료정책연구소 설립계획과 의협발전특별성금 모금 및 사업계획안은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국민 건강권과 의사의 진료권 수호를 위해 모든 직역이 하나로 뭉쳐 현안해결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제33대 의협회장 김재정씨 당선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지난 3월 14일 실시된 제33대 의협회장 선거에서 초대 의쟁투 위원장과 제31대 의협회장을 역임한 김재정후보가 회장으로 당선됐다.

이번 의협회장 직접선거에서 총유효투표수 1만 3,977표(총선거인수 3만 2,764명 투표율 43.8%)중 5,378표(38.5%)를 얻어 2위를 차지한 신상진후보(2,851표 20.4%)를 압도적인 표차이를 보이며 의료계를 이끌어갈 새수장의 자리에 다시 앉게 되었다.

김재정 의협회장 당선자는 2000년 4월 제31대 의협회장으로 취임하여 같은해 7월 의권투쟁을 주도한 이유로 구속수감되었으며, 이후 여러 가지 이유로 2001년 6월 15일 회장직서 물러났다.

김당선자는 선거운동기간에 내세운 주요공약을 살펴보면 △의약분업에 대한 종합대책마련 △불법 의료행위·의료시장 개방등 8만 의사의 생존을 위한 종합대책 △형평에 맞지 않는 군복무기간 단축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실사권 장악 음모차단 등이 골자로 되어있다.

<후보자별 득표현황>

김재정	: 5,378표(38.5%)
신상진	: 2,851표(20.4%)
최덕중	: 2,339표(16.7%)
윤철수	: 1,432표(10.2%)
우종원	: 1,242표(8.9%)
주신구	: 735표(5.3%)

직선 의협회장 선거인 명부현황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14일 선출하는 제33대 의협회장 선거 선거권자를 2003년 2월 20일 최종 32,764명으로 확정했다.

본회는 총 선거인수 1,329명중 706명의 투표로 투표율 53%이며, 시군별 및 시도별 선거인 투표현황은 다음과 같다.

〈시군별 선거인 및 투표현황〉

시군별	선거인수	투표수	투표율	비 고
포항시	308	172	56%	
경주시	178	88	49%	
김천시	57	34	60%	
안동시	120	57	48%	
구미시	194	86	44%	
영주시	48	31	65%	
영천시	54	32	59%	
상주시	31	19	61%	
문경시	39	26	67%	
경산시	102	58	57%	
군위군	3	3	100%	
의성군	20	9	45%	
청송군	23	5	22%	
영양군	4	0	0%	
영덕군	24	8	33%	
청도군	19	10	53%	
고령군	5	3	60%	
성주군	15	10	67%	
칠곡군	30	22	73%	
예천군	14	9	64%	
봉화군	10	9	90%	
울진군	21	11	52%	
울릉군	10	4	40%	
총선거인수	1,329	706	53%	

〈시도별 선거인 및 투표현황〉

시도별	선거인수	투표수	투표율	비 고
서울시	10,972	4,330	39%	
부산시	3,159	1,421	45%	
대구시	2,677	1,207	45%	
인천시	1,323	527	40%	
광주시	1,387	570	41%	
대전시	977	469	48%	
울산시	552	340	62%	
경기도	3,909	1,700	43%	
강원도	943	370	39%	
충청북도	779	370	47%	
충청남도	896	414	46%	
전라북도	1,222	561	46%	
전라남도	849	400	47%	
경상북도	1,329	706	53%	
경상남도	1,470	801	54%	
제주도	320	161	50%	
총선거인수	32,764	14,347	44%	

본회 직선투표를 상위권

지난 3월 14일 대한의사협회 직선회장 선거는 44%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의협 중앙선거관리위는 투표용지 접수를 최종 마감한 결과 유권자 3만 2,764명중 1만 4,347명이 선거에 참여했다고 했다.

지역별 투표율을 보면 울산(62%), 경남(54%), 경북(53%)은 타지역에 비해 평균치를 훨씬 웃도는 투표율을 기록했다.

2002년도 회원정기신고 호조

의협 정관 제6조 및 본회 회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지난해 6월부터 실시된 2002년도 회원정기신고는 1,594명의 회원이 신고했다.

매년 5월에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되고 있는 2002년도 회원정기신고는 반드시 소속 시군의 사회를 경유해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작성방법은 전산으로 입력된 내용중 변동, 오기 또는 누락사항은 추가로 기록토록 되어 있다.

회원정기신고와 관련해 지난해는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본회의가 정족수 미달로 유회됨에 따라 신고업무가 1개월 뒤에 실시되었다.

2002년도 의협회비와 의정회비 등은 지난해와 같이 동결되었으나 의료정책연구회비 60,000원이 신설되었다.

〈2002년도 회비내역〉

구 분	가. 회원	나. 회원	다. 회원	라. 회원	비 고
	개원회원	근무회원	전공의회원	공보의회원	
대한의사협회비	230,000	165,000	95,000	71,000	
의협신보구독료	10,000	10,000	-	-	
의협학술대회등록비	10,000	10,000	10,000	10,000	
의료정책연구회비	60,000	42,000	24,000	18,000	
한국의정회비	50,000	10,000	-	-	
경북도의사회비	200,000	100,000	60,000	-	
계	560,000	337,000	189,000	99,000	

회비 미납회원 “내용증명” 발송

본회에서는 최근 3년간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에 대해 지난 2월 14일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하고 기간내 납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회비납부와 관련해 본회에서 시군의사회와 해당회원에 수차례에 걸쳐 미납회비를 납부해 줄 것을 독촉한 바 있으며, 이와 같은 사실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게 된 것이다.

이는 2001년 11월 30일 시군의사회장회의에서 회비 납부는 회원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의무일 뿐 아니라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권리도 인정하지 않기로 하는 결의에 따른 것이다.

회원들의 회비납부사항과 관련해 사무국의 행정착오가 있을 경우 이를 바로 잡기에 보다 큰 의의가 있다. 그리고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받고 다소 심기가 불편하더라도 부득이 취해진 조치임을 밝히고 많은 이해를 요망했다.

의협 의료배상공제 사업시행 3천만원서 최대 2억까지 보상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는 기존의 공제회 기능에 일반 손해보험사의 기능과 역할을 더한 것으로 지난해 6월 5일부터 회원들에게 새롭게 선보였다.

기존의 공제회 보상한도는 최대 1,000만원이었으나 삼성화재와 함께하는 의료배상공제는 가입종별에 따라 3,000만원에서 최대 2억원까지 보상을 받을수 있다.

의협 공제회 출범 21년만에 새롭게 탈바꿈하는 의료배상공제는 보상액을 현실화하고, 신속한 사건처리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회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그리고 추정 배상공제금이 3,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의협 공제회가 독자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도록 했으며, 3,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삼성화재측과 공동으로 조사를 벌여 지급액을 결정하도록 했다.

가입형태는 기존 과별분류가 아닌 진료계열별로 가입자가 자유롭게 선택할수 있도록 한 것이 큰 장점이다.

경북의사회장배 테니스대회 개최

- 서상철 · 김승기 회원조 우승 -



회원상호간의 친선도모와 건강증진을 위해 지난해 9월 29일(일) 오후 1시 경주 현대호텔 테니스코트에서 열린 제1회 경상북도의사회장배 테니스대회는 서상철 · 김승기회원(구미)조가 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그동안 테니스대회는 경북의학계 행사에서 지구별로 선수가 출전하여 경기를 치루었으나 올해부터는 테니스 동호인 모임의 활성화를 위해 별도의 행사로 개최하게 되었다.

이번 제1회 경북의사테니스대회는 10월 13일(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24회 전국의사테니스대회 참가선수 선발전을 병행하였다. 특히 제1회 대회를 시발점으로 테니스대회의 발전과 동호인 모임의 활성화를 위해 김지홍 회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 경기성적(복식조)

우 승(서부) : 서상철(구미파티마의원)
김승기(김승기가정의학과의원)
준우승(동부) : 김지홍(김지홍정형외과의원)
문신길(포항세명기독병원)

본회 및 시군직원 단합등반대회

경상북도의사회서는 사무직원들의 친목도모와 의사회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일체감 형성을 위

하여 지난해 11월 2일(토) 팔공산 등반대회를 가졌다.

사무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의료가족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대구시의사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사무직원 등반대회는 본회직원과 시군의사회 직원등 총 23명이 참가했다.

- 경북 : 박재영, 권순길, 김태희
- 포항 : 김두중, 이수진
- 구미 : 박민희 • 영천 : 김명숙
- 대구 : 김해수국장의 15명

제1회 회원 및 가족등반대회 성황

- 8. 25(일) 소백산 56명 참가 -



회원 상호간의 친선도모와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난해 8월 25일(일) 개최된 소백산 등반대회에는 회원 및 가족 등 56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루었다.

이날 제1회 회원 및 가족등반대회에는 포항과 안동지역에서 관광버스를 대절해 인근지역 회원과 가족을 태우고 산행 출발 지점인 충북 단양 어의곡리에 오전 10시를 전후해 도착했다.

대한의사산악회측으로부터 등반코스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듣고 시작된 산행은 비로봉을 거쳐 영주시 안정면 삼가리까지 약 5~6시간이 소요되었으며 만포농원에 마련된 점심식사로 하루의 피로를 씻고 다음에 또 만날 것을 약속하고 아쉬운 작별의 인사를 나누었다.

본회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지난 3월 14일 실시된 제33대 의협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본회에서는 김종국회원(구미시의사회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번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규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의사회 회장과 의장이 각각 추천한 3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있다.

〈선거관리위원 명단〉

직 위	성 명	근 무 처	지 역	비 고
위원장	김종국	경북정형외과의원	구 미	구미시 회장
위 원	오세진	오세진비뇨기과의원	포 향	포항시 부회장
	권오일	중앙산부인과의원	안 동	안동시 회장
	김대환	베드로내과의원	영 천	영천시 회장
	박문식	포항성모병원 신경외과	포 향	봉직의 대표
	이원재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내과	경 주	전공의 대표

학생체질검사 교의 협조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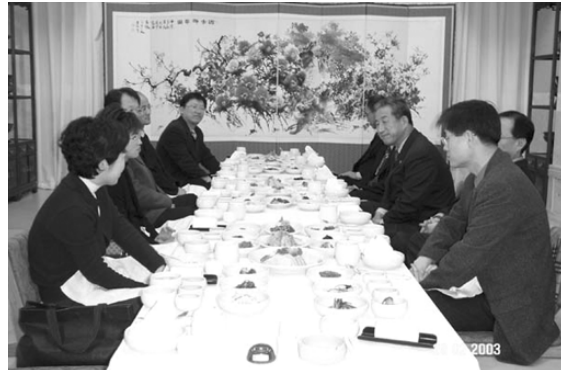
학교보건법 제7조 및 학교신체검사 규칙에 의거 매년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학생체질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교의를 위촉하여 학생체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개원의사 위촉에 어려움이 있어 본회에 협조를 요청해 왔다.

이와 관련하여 본회에서는 시군의사회에 협조공한을 발송하고 지역 학교장의 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학생체질검사 항목은 눈, 귀, 코, 피부, 척추, 가슴통, 영양상태, 기관능력, 정신장애, 언어장애, 알러지성 질환, 구강등으로 되어있다.

시군보건소장 초청 간담회 개최



경상북도의사회는 지난해 12월 28일(토) 오후 7시 경주코오롱호텔에서 도내 의사보건소장을 초청해 의료현안과 관련한 공동 관심사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본회 변영우회장은 보건소장들의 그 동안 노고를 치하하고 특히 의료현안과 관련한 공동 관심사에 대해서는 다같이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북도내 25개 보건소중에서 의사 보건소장은 현재 11명이며 그 외는 보건직과 행정직에서 맡고 있다.

청와대 기획단과 의료현안협의

청와대 비서실 "삶의질 향상 기획단"(과장 장병원)에서는 의약분업등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난해 4월 24일(수) 대구에서 본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가진 간담회에서는 실패한 의약분업과 보험약 일반약으로 전환, 건강보험 진료비 부당삭감등 의료현안에 대해 중점논의했다.

본회에서는 이석균부회장과 정만진기획이사가 참석했다.

본회 의사회지 편집위원회 개최

- 회원들의 특별한 취미생활 소개 -



경상북도의사회 편집위원회(위원장 유동명)서는 2003년도 신년특집 의사회지 편집방향과 원고청탁 대상자 선정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4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했다.

편집위원회에서는 회원들의 관심과 흥미를 제고하기 위하여 회원들의 특별한 취미생활을 소개하기로 하고 주제선정은 “이것은 이런 매력이 있다”로 하는 한편 회원들이 그 동안 애지중지하면서 소장하고 있는 각종 애장품을 소개하기로 했다.

그리고 나의 애장품에는 그림, 서예, 조각, 골동품등을 소개하게 되며 경북의사회기네스에는 신장, 체중, 연령, 자녀수, 바둑, 마라톤, 차령, 당구, 불링, 골프에 회원들의 많은 참여를 요망하고 채택된 회원에 대해서는 기념품을 증정기로 했다.

<편집위원 회의>

- 제1차 편집위원회 : 2002. 11. 28(목) 대구
- 제2차 편집위원회 : 2003. 1. 28(화) 대구
- 제3차 편집위원회 : 2003. 2. 6(목) 대구
- 제4차 편집위원회 : 2003. 3. 21(금) 대구

대구·경북의사회 주관 정책설명회

지난해 10월 16일(수) 오후 7시 30분 대구시의사회관 3층강당에서 열린 의협 의료정책설명회에는 대구·경북의사회 임원소개와 대구시의사회 김완섭회장과 본회 변영우회장의 인사말씀이 있는 다음 의협 김방철 상근부회장으로부터 중앙회의 의료정책에 대해 소상히 보고하고 10. 27 전국집회에 많은 회원이 참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석자 명단>

변영우, 이석균, 정만진, 송재영, 도 황, 서보완, 최길선, 박경옥, 석제홍, 조충래, 이경수, 김성기, 최정규, 김일환, 정철희

대구·경북의사회 임원간담회 개최

지난해 8월 29일(목) 오후 7시 30분 대구에서 본회 주관으로 대구·경북의사회 임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실패한 의료개혁 바로잡기 영남권 대구·경북 의사궐기대회 개최와 관련해 9월 14일(토) 오후 5시 대구 국채보상기념공원에서 개최기로 하고, 이와 관련해 본회에서는 9월 3일(화) 19:30 대구의사회관에서 긴급 시군 의사회장 및 국건투위원 연석회의를 개최기로 했다.

■ 본 회

변영우회장, 이석균부회장, 정만진기획이사

■ 대 구

김완섭회장, 정무달부회장, 김광훈부회장,
이 창기획이사

본회 사무실 확장 이전

그동안 사용해 왔던 경상북도의사회 사무실이 협소하여 업무처리의 불편함은 물론 대외적인 이미지 제고에도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이번, 의사신포 의료기 사무실과 관리인실을 통합하는 구조변경 공사를 해 이전했다.

이번 사무실 확장공사는 지난해 7월 27일부터 약 15일간 실시되어 8월 10일경 이전했으며, 사무실 확장으로 의쟁투 관련회의와 기타회의실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대구지방식의약품청 신축청사 준공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지난해 10월 9일(수) 오후 2시 대구시 달서구 이곡동 1220-9번지 소재에서 신축청사 준공기념식을 이영순 본부청장을 비롯한 의료계 인사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준공기념식에서는 이정식 대구청장으로 부터 공사개요 및 경과보고에 이어 이영순 본부청장의 기념사와 대구광역시 김기옥행정부시장의 축사가 있는 다음 준공기념식수가 있었으며 본회에서는 이석균부회장이 참석했다.

신축청사는 대지면적 925평에 건물연면적 979.8평이며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건축면적 246.26평에 대지 및 공사비용으로 5,628,192천 원이 소요되었다.

영천, 경산시 사무국 설치

영천시의사회와 경산시의사회는 회무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자체 사무국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영천시의사회는 지난해 7월 16일(화) 김대환 회장을 비롯한 역대회장장과 임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가졌다.

경산시의사회는 2월 20일(목) 장기호회장장과 집행부 임원, 역대회장, 회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무국 설치 개소식을 가졌다.

군의원 후보생 위문격려

본회 변영우회장을 비롯한 의료계 인사는 지난 3월 26일 오전 10시 30분 경북 영천시 3사관학교에서 4주차 교육훈련중인 군의원 후보생을 위문 격려했다.

이날 위문방문에는 신상진 의협회장장과 상임이사, 전태준 前의무사령관, 김세중 의대학장협의 회장, 최창락 병협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영천시의사회 임원진과 간담회 개최



본회 변영우회장은 지난해 9월 16일(월) 오후 6시 30분 영천시의사회를 방문하여 사무실 개소를 축하한 후 김대환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의료현안과 관련한 제반사항과 중앙회의 의료정책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경산시 임종 및 사무실 방문



본회 변영우회장은 지난 2월 25일(화) 오후 7시 영빈예식장에서 개최된 경산시의사회 임시총회와 경산시의사회 사무국을 방문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날 경산시의사회 임시총회에서는 지난 2. 18 대구지하철 참사로 인하여 희생된 고인들의 명복과 부상자의 빠른 쾌유와 작고회원들에 대한 묵

념이 있었다.

개회식에서 장기호회장은 전회원이 의사회를 구심점으로 단결해야만 난제를 풀어갈수 있다는 개회인사가 있는 다음 변영우 경상북도의사회장은 격려사에서 회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반회운영과 사무국을 설치한데 대해 축하와 격려의 말씀이 있었다.

본회의에서는 전회원이 단합할수 있는 방안을 모색키로 하는 한편 의료현안과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하고 신임 임원진에게 선임패를 전달했다.

의료계 인사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면담

본회 변영우회장과 대한의사협회 신상진회장을 비롯한 의료계 인사는 지난해 8월 27일(화) 오전 9시 30분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후보를 면담하고 의료현안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서 국민에게 엄청난 고통과 부담을 안겨주고 의사의 진료권을 훼손하는 현행 의약분업은 철폐한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는 의료계 입장을 전달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논의했다.

발전성금 1억 5천만원 전달

본회 변영우회장은 지난해 3월 29일 열린 제 5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회원들로부터 모금한 의협발전 특별성금 1억 5천만원을 신상진 의협회장에게 전달했다.

의협발전 특별성금은 1. 27 전국 의사 결의대회에서 국건투, 정치활동, 정책연구소 설립추진을 위해 개원회원 30만원, 근무회원 10만원, 전공의 및 공중보건의 회원 3만원씩 모금키로 했었다.

의료계인사 초청 간담회 개최

경상북도의회는 지난해 5월 23일(목) 오후 7시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대구·경북지역 의료계인사 초청간담회를 개최하고 의료계 융화와 발전방향에 대해 많은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의료계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의약분업과 관련한 제반 현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앞으로 공동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지역 의료계인사 간담회에는 이의근 경북지사가 자리를 함께했으며, 본회에서는 변영우회장과 신은식 의협감사, 신현수 안동의료원장이 참석했다.

대구지역에서는 대구시의사회 김완섭회장과 대구가톨릭병원 장성국병원장, 대구파티마병원 김상철 의무원장, 대구의료원 이동구원장이 참석했다.

상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기념식은 이의근 경북지사(남효채 행정부지사 대독)의 개회사와 이원식 경주시장의 환영사가 있는 다음 보건의료단체를 대표해 본회 변영우회장의 축사가 있었다.

축사를 통해 변영우회장은 준비안된 의약분업으로 인하여 국민불편과 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약분업의 본래의 목적인 약의 오남용도 전혀 막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여자태권도대회 의료지원

제1회 코리아 경주국제여자태권도 오픈대회가 지난해 4월 18일(목) 오후 3시 경주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경주국제태권도오픈대회 조직위원회 주최로 경주시와 대한태권도협회(경북태권도협회)에서 주관했으며 본회와 경주시보건소에서는 의료지원을 했다.

보건의 날 기념행사 개최



지난해 4월 7일(토) 오전 11시 경주 서라벌문화회관에서 열린 제30회 보건의날 기념행사에는 보건의료 관계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 투쟁기구 “국건투 2기 출범”

지난해 5월 3일(금) 오후 4시 열린 의협 국건투와 상임이사, 시도지사회장 연석회의에서 국민건강수호투쟁위원회 제1기를 해체하고 새 투쟁기구인 제2기 국건투를 출범시켰다.

새로운 투쟁체의 명칭은 국건투 2기로 위원장에는 신상진회장을 선출하고 위원은 시도지사회장, 각 지역대표 1인, 각 직역대표, 상임이사로 구성했다.

1,000만명 서명지 전국최고

경상북도의사회서는 “실패한 현행 의약분업” 철폐를 위한 대국민 1,000만명 서명지 126,802명분을 지난해 11월 1일 의협에 제출했다.

지난 1. 27 장충체육관 전국의사대회 결의사항으로 실시된 1,000만명 서명운동은 내원환자와 가족들을 주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본회에서는 의료기관당 500명이상 서명을 받도록 했다.

의협은 의약분업 폐지에 대한 국민여론이 담긴 서명용지를 근거로 약사법 개정등 “국회청원”을 계획했다.

〈시군별 서명지 제출현황〉

시 군 별	개원대상	서명취합	비 율(%)
포 향 시	204	21,771	21.3
경 주 시	103	10,941	21.2
김 천 시	47	8,148	28.4
안 동 시	61	8,141	26.7
구 미 시	149	22,181	29.8
영 주 시	42	15,365	73.2
영 천 시	52	10,875	41.8
상 주 시	32	4,516	28.2
문 경 시	32	2,440	15.3
경 산 시	89	9,588	21.5
군 위 군	5	560	22.4
의 성 군	12	2,541	42.4
청 송 군	5	71	2.84
영 양 군	1	650	130
영 덕 군	13	489	7.5
청 도 군	15	951	12.7
고 령 군	7	215	6.1

시 군 별	개원대상	서명취합	비 율(%)
성 주 군	12	2,041	34
칠 곡 군	32	1,070	6.69
예 천 군	10	931	18.6
봉 화 군	6	831	27.7
울 진 군	18	2,486	27.6
울 릉 군	1	0	0
계	948	126,802	26.8

의료현안 관련 결의문 채택

- 3. 9 시군회장 및 상임이사회 -

경상북도의사회서는 시군의사회장 및 상임이사 연석회의를 지난해 3월 9일(토) 동대구호텔에서 개최하고 의료현안에 대해 정부당국과 의협 집행부에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건강보험 재정과탄의 원인이 잘못된 의약분업을 강행한 정부당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정책을 뒤로한채, 의사탄압 정책으로 있을뿐만 아니라 의료수가 인하조치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결의문에서 직선 의협회장에게 자신감을 갖고 현 사태에 적극 대처해 줄 것과 회원들에게 1,000만명 서명운동 및 의사협회 발전성금, 의협회비 100% 납부운동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정부당국에 대해서는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한 도덕교과서 문제는 원칙에 따라 처리해 줄것과 의료수가 2.9% 인하에 대해서는 의료계로서는 도저히 받아 들일수 없으므로 즉각 철회해 줄 것을 천명했다.

의료계 최대 현안은 임의조제 근절

2003 시군의사회 정기총회

2003년도 시군의사회 정기총회에서는 의료계가 풀어나가야 할 최대 의료현안으로는 의약분업과 관련한 약사의 임의조제 및 대체조제를 꼽았다. 그리고 갈수록 어려운 의료환경 맞고 있는 개원가의 활성화를 위한 건강보험수가 현실화와 건강보험제도전반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회칙 및 경조규정 일부개정

- 포항시의사회 정기총회 -



포항시의사회는 지난 2월 27일(목) 오후 7시 귀빈예식장에서 2003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정책이사 제도신설 등 8개 조항의 회칙을 부분 개정하고 경조규정도 일부 개정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변영우 경상북도의사회장과 정장식 포항시장, 신은식 의협감사, 서호승 포항남구보건소장 등 내빈다수와 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원기회장의 개회인사와 변영우도의사회장의 격려사가 있었다.

본회의에서는 2002년도 주요회무보고와 결산 보고를 이의없이 받아들이고 2003년도 사업계획에 따른 131,620,000원의 예산안을 원안통과

시키고 회칙개정에 있어 회원증가로 인하여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을 개정함과 동시에 정책분야 업무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정책이사 제도를 신설했다.

의안토의에서는 건강보험 진료비 삭감과 진료수가 인하철폐, 약사 불법 의료행위 근절, 의협 홍보실 강화, 정부기관 홍보강화 등에 대해서는 도의사회 건의안으로 채택하고 회원동호인 모임 활성화와 의료봉사단체 지원, 총회 유인물 사전 배부 등에 있어서는 자체 처리안으로 채택했다.

<시상자 명단>

- 공로패 : 김지홍(김지홍정형외과의원)
고정미(고내과의원)
- 감사패 : 마창성(영남일보 제2사회부 기자)
서상덕(포항시 환경위생과)

신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확정

- 경주시의사회 정기총회 -



경주시의사회서는 지난 2월 26일(수) 오후 7시 경주 힐튼호텔에서 2003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년도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안을 원안 통과시켰다.

이날 정기총회는 변영우 경상북도의사회장과 회원 등 약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백승인회장의 개회인사에 이어 변영우도의사회장의 격려사

와 의료현안과 관련한 주요회무에 대해 상세히 보고했다.

본회의에서는 2002년도 감사보고와 주요회무 및 결산보고를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2003년도 사업계획을 뒷받침하는 57,798,628원의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마련한 원안대로 받아들여졌다.

의안토의에서는 의료기관 간판의 무분별한 광고행위로 인하여 회원상호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과대광고행위에 대해서는 자율정화 차원에서 강력 대응키로 했다.

〈상상자 명단〉

- 감사장 : 정진수(경주시보건소 의약계)
- 이재용(경주소방서 119 구급대)
- 엄권섭(경주경찰서 정보과)

회칙개정 및 의료현안 논의

- 김천시의사회 정기총회 -



김천시의사회서는 2월 11일(화) 오후 7시 대어초밥에서 2003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새 회장에 박경욱회원(박경욱내과의원)을 새회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정기총회 개최식에는 경상북도의사회 변영우회장을 비롯한 회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허석 김천시의사회장의 개회인사와 변영우도의사회장의 격려사에 이어 의료현안과 관련한 주요회무에 대해 소상히 보고했다.

본회의에서는 2002년도 회무와 4천 600여만 원에 대한 결산보고를 이의 없이 받아들이고 신년도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안을 원안대로 확정했다.

의안토의에서는 의료분쟁조정법을 비롯한 의료현안문제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회칙개정과 관련해서는 임원중 부회장 1명에서 2명으로 증원키로 하는 내용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임원명단〉

- 회 장 : 박경욱(박경욱내과의원)
- 부 회 장 : 정근재(김천신경정신병원)
- 최영택(최영택정신과의원)
- 총무이사 : 이경엽(남산신경외과의원)
- 기획이사 : 강승모(강외과의원)
- 학술이사 : 이영석(김천의료원)
- 정보이사 : 이상권(이상권소아과의원)
- 보험이사 : 정세주(정세주내과의원)
- 공보이사 : 김우일(김우일비뇨기과의원)
- 섭외이사 : 배창표(현대정형외과의원)
- 감 사 : 석제홍(석제홍제통의원)

진료비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촉구

- 안동시의사회 정기총회 -

안동시의사회(회장 권오일)서는 지난해 12월 12일(목) 오후 7시 안동파크호텔에서 2002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년도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안을 원안통과 시켰다.

이날 권오일 국회의원(한나라당, 안동)과 회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정기총회 개최식에는 권오일회장의 개회인사에 이어 변영우 경북도의사회장의 격려사(유동명 부회장 대독)와 권오일 국회의원의 축사가 있었다.

제2부 본회의에서는 2002년도 회무보고 및 결산보고와 감사보고를 이의없이 받아들이고 신년도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안을 집행부에서 마련

한 원안대로 수정없이 통과시켰다.

의안토의에서는 의료기관 감염성폐기물 업무 간소화, 의료기관 진료비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의료기관 조세제도 개선 등 의료현안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그리고 이번 제16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각 당후보의 의료정책 전반에 대해 비교분석하고 의료계가 지지하는 후보가 반드시 당선될 수 있도록 친·인척 전화결기 등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키로 했다.

의료분쟁조정법 조기제정등 촉구

- 구미시의사회 정기총회 -



구미시의사회서는 지난 2월 20일(목) 오후 7시 목화웨딩에서 2003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의료분쟁조정법의 조기제정 등 의료현안에 대해 중점논의 했다.

이날 정기총회는 내빈으로 변영우 경상북도의사회장과 신혜련 구미시보건소장, 원로회원인 박재호회원 등 내빈다수와 회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종국 구미시의사회장의 개회인사와 변영우도의사회장의 격려사가 있었다.

본회의에서는 2002년도 감사보고 및 주요회무와 결산보고를 이의없이 받아들이고 신년도 사업계획을 뒷받침하는 95,401,024원의 예산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의안토의에서는

의료분쟁조정법과 의료보험수가 현실화, 약사 임의불법 조제행위근절 등 의료현안에 대해 중점논의했다.

<시상자 명단>

- 감사패 : 서동희(구미시보건소)
이정숙(구미시청)
- 공로상 : 박재호(대산외과의원)
류성훈(류외과의원)
김철기(김철기소아과의원)
지성구(경북외과의원)
김봉재(구미정형외과의원)
서상철(파티마의원)

전회원 건강검진 캠페인 전개

- 영천시의사회 정기총회 -



영천시의사회서는 지난 2월 19일(수) 오후 7시 흥회타운에서 2003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년도 주요사업의 일환으로 영대영천병원과 협의해 자칫 소홀하기 쉬운 회원들의 건강검진을 실시키로 했다.

이날 정기총회는 변영우 경상북도의사회장을 비롯한 내빈다수와 회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개회식에서 먼저 2월 18일 뜻밖의 대구지하철 방화 사고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 및 작고회원들에 대한 명복과 부상자들의 빠른 치유를 빌었다.

이어 김대환회장의 개회인사와 변영우도의사회장의 격려사가 있다음 서용덕 영천시보건소장과 한승세 영대영천병원장의 축사가 있었다.

본회의에서는 2002년도 결산보고와 신년도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안을 원안 통과시키고 의안토의에서는 의료기관 조세문제와 의료분쟁조정법, 약사 임의조제 근절대책 등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양당 의료정책 비교분석

- 영주시의사회 정기총회 -

지난해 12월 11일(수) 오후 7시 영주 청솔식당에서 개최된 2002년도 영주시의사회 정기총회에서 이기훈회원(이기훈정형외과의원)을 새 회장으로 선출하고 제16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의료정책 전반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날 정기총회는 박시균 국회의원(한나라당, 영주), 권영창 영주시장과 회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도의사회 변영우회장의 격려사(대독)에 이어 박시균 국회의원, 권영창 영주시장의 축사가 있었다.

이어 본회의에서는 2002년도 주요회무보고와 2003년도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안을 심의 통과시키고 의안토의에서는 건강보험수가 현실화와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의료기관 조세대책 등에 대해 중점 논의하고 제16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의료정책에 대해 비교 분석하고 의료계의 주장이 최대한 관철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한편 영주시의사회서는 아직도 수해와 추위로 이어지는 길고 긴 시간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이웃을 돕기 위해 권영창 영주시장에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임원명단>

- 회 장 : 이기훈(이기훈정형외과의원)
- 부 회 장 : 이재석(서울산부인과의원)
- 재무이사 : 허찬욱(허찬욱이비인후과의원)

건강보험수가 현실화 등 논의

- 상주시의사회 정기총회 -

지난해 12월 20일 청기와식당에서 열린 2002년도 상주시의사회 정기총회에서는 김종술회원(가톨릭의원)을 새회장으로 선출하고 의료현안에 대해 중점논의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02년도 주요회무 및 결산보고와 2003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 심의에서 원안통과 시키고 의안토의에서는 건강보험수가 현실화와 의료기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의료기관 조세제도 개선, 임의조제 근절을 위한 의료감시 강화 등 의료현안에 대해 중점논의했다.

<임원명단>

- 회 장 : 김종술(가톨릭의원)
- 부회장 : 서동혁(서동혁제통의원)

불법대체조제 근절대책 논의

- 문경시의사회 정기총회 -



문경시의사회는 지난 2월 20일(목) 오후 7시 영흥반점에서 2003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새회장에 박승구회원(박승구소아과의원)을 선출하고, 총무에는 최석모회원(성모제통의원)을 선임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변영우 경북도의사회장과 원로회원인 전경홍회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명근회장의 개회인사에 이어 변영우도의

사회장의 축사를 겸하여 주요회무에 대해 상세히 보고하고 의료현안 문제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는 시간을 가졌다.

본회의에서는 2002년도 결산보고와 2003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집행부에서 마련한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의안토의에서는 의료분쟁조정법과 약국 불법대체조제 등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임원명단〉

- 회 장 : 박승구(박승구소아과의원)
- 부 회 장 : 강찬규(강찬규내과의원)
- 총 무 : 최석모(석모제통의원)
- 감 사 : 강용호(성모안과의원)

의료기관 조세대책 논의

- 경산시의사회 정기총회 -



지난해 12월 16일(월) 오후 7시 30분 경산 운문산맥에서 열린 2002년도 정기총회에서 장기호회원(현대연합의원)을 새회장으로 선출하고, 의협 대선의료정책평가단에서 대통령후보의 의료정책을 비교 분석한 자료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한후 전회원이 적극 참여키로 했다.

이날 개회식에는 변영우 경상북도지사회장과 회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정규 경산시의사회장의 개회인사가 있는 다음 변영우도지사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이번 대선을 “실패한 의료개혁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

우리가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열린 본회의에서는 2002년도 주요회무보고와 결산보고에 이어 2003년도 사업계획에 따른 신년도 예산안을 원안통과시키고, 의안토의에서는 의료분쟁조정법 조속제정, 대체조제 및 임의조제 근절, 의료기관조세대책 등 의료현안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임원명단〉

- 회 장 : 장기호(현대연합의원)
- 부 회 장 : 장유석(장유석외과의원)
- 기획이사 : 이용우(장산방사선과의원)
- 학술이사 : 허영구(허영구내과의원)
- 재무이사 : 정용태(은재소아과의원)
- 법제이사 : 박종각(박종각비뇨기과의원)
- 보험이사 : 김병훈(김병훈내과의원)
- 의무이사 : 최한철(최한철외과의원)
- 공보이사 : 이덕영(하양중앙내과의원)
- 정책이사 : 김대현(성모연합내과의원)
- 감 사 : 조영철(파티마내과의원)
- 류지훈(류이비인후과의원)

수가문제 및 의료현안 논의

- 청도군의사회 정기총회 -

청도군의사회는 지난 2월 18일(화) 오후 7시 북조리식당에서 2003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새회장에 이재동회원(제일의원)을 선출하고 총무에는 이상헌회원(현광의원)을 선임했다.

이날 정기총회는 회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철희회장의 개회인사에 이어 박해동총무이사로부터 2002년도 회무보고와 결산보고를 받고 이의없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신년도 사업계획을 뒷받침하는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마련한 원안대로 가결한 후 의안토의에서는 건강보험 수가문제와 의료분쟁조정법, 의료기관 세제문제 등 의료현안에 대해 중점 협의했다.

대민의료봉사사업 적극 추진

- 성주군의사회 정기총회 -



성주군의사회는 지난 2월 13일(목) 오후 7시 남경식당에서 2003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새회장에 방중경회원(덕산의원)을 새회장으로 선출하고, 총무에는 최영근회원(제일신경외과의원)을 선임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경상북도의사회 변영우회장과 원로회원인 이철상회원 등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성하경 성주군의사회장의 개회인사가 있는 다음 변영우도의사회장은 격려사에서 의료현안과 관련한 주요회무에 대해 상세히 보고했다.

본회의에서는 2002년도 회무보고와 결산보고를 이의없이 받아들이고, 2003년도 중점사업으로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대민봉사 사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의안토의에서는 건강보험 의료수가 문제와 임의조제 및 대체조제의 근본적인 문제해결 등 의료현안과 관련해 중점 논의했다.

<임원명단>

- 회 장 : 방중경(덕산의원)
- 총 무 : 최영근(제일신경외과의원)

의료기관 조세대책 중점논의

- 칠곡군의사회 정기총회 -



칠곡군의사회는 지난 2월 14일(금) 오후 7시 왕갈비식당에서 2003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새회장에 김영조회원(김영조내과의원)을 선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변영우 경상북도의사회장과 원로회원인 최형석회원 등 3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김상관회장의 개회인사에 이어 경북도의사회 변영우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주요 의료현안에 대해 소상히 보고했다.

본회의에서는 2002년도 2천 500여만원 결산보고와 2003년도 사업계획을 뒷받침하는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개원회원 40여명으로 성장한 회세에 부응할 수 있는 회칙을 제정했다.

의안토의에서는 의료기관 조세문제와 의료광고행위에 따른 제반문제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임원명단>

- 회 장 : 김영조(김영조내과의원)
- 부회장 : 이원석(박외과이내과연합의원)
- 감 사 : 최병국(중앙의원)
- 이태규(왜관정형외과의원)

지방공사「울진의료원」개원

- 8개과 105병상 갖춰 -

지방공사 울진의료원이 지난 2월 17일 문을 열고 진료에 들어갔다.

2000년 3월 착공해 지난 8월 준공된 울진의료원은 105병상 규모로 건축비 157억원과 의료장비 구입비 30억원 등 총사업비 217억을 들여 울진읍 연호정 일대 1만여평 부지에 신축됐다.

울진의료원은 내·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진단방사선과, 마취통증의학과, 응급실 등 8개 과목을 두고 있으며 원장과 진료부장, 내·외과 계열 각 1명씩 모두 4명의 전문의는 경북대병원 의료진으로, 나머지는 기존 의료원의 공중보건의를 배치했다.

경북대병원과의 협진 체제 구축에 따라 안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신경외과, 성형외과 등은 순회진료를 실시하게 되며 장례식장도 함께 운영한다.

의료원은 울진의 명승지중 하나인 연호호수 인근에 위치하는데 주변 야산에 등산로 등을 갖춰 치료와 요양을 겸할 수 있다.

초대원장으로 취임한 장세국 교수는 “시설이 포항의 종합병원 수준을 유지하는 등 명실상부한 종합병원으로서의 기본 요건을 갖추고 있어 군민 건강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쿤두즈 사막에 한국 인솔 펼쳐

- 한동대학교 선린병원 -

“포화에 이지러진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에게 희망 빛이 비칠 수 있도록 병든자를 정성껏 치료하는 동시에 폐허 위에 새로운 생명의 숨결이 들릴 수 있도록 따뜻한 한국의 정성을 심어주었다.”

포항 한동대학교 선린병원(원장 이견오) 의료봉사팀 21명을 인솔해 의료사각 지대인 아프가

니스탄 북부지역 수도인 쿤두즈에서 해외봉사를 했다.

이들 봉사단은 지난해 8월 27일부터 9월 3일까지 쿤두즈에 있는 한국기아대책기구 사무실에서 빵과 과일 등으로 숙식을 하며, 전쟁의 폐허 속에 기와와 질병에 허덕이고 있는 사막으로 이어진 인근 자연부락을 순회하며 현지인 4,000여명을 진료, 재기의 용기와 희망을 불어 넣었다.

의료봉사팀은 현지에서 내과·외과·소아과·산부인과·정형외과·치과·방사선과 등 과목별로 나누어 현지인을 대상으로 진료봉사를 실시하고, 임상병리검사도 병행했다.

이들 의료봉사팀이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이 아닌, 마실 물을 구하기도 어려운 데다가 말라리아 모기가 득실 거리는 북부 쿤두즈를 봉사지역으로 선택한 데에는 이 원장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 원장이 선린병원장으로 부임하기 이전인 서울 서한복음병원원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월 한 달간 아프가니스탄 북부군 아브라함 압둘라 장군이 서한 복음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은 후 귀국, 이 원장에게 의료봉사단을 요청한데서 비롯됐다.

포항의료원 ‘최우수 공기업’ 뽑혀

- 진료과목 특성화로 5년 연속흑자 -

포항의료원(원장 변승열)이 전국 최우수 공기업으로 선정됐다. 전국 126개 지방공사·공단을 대상으로 지난해 경영성과를 평가한 결과다.

행자부는 “포항의료원이 진료과목 특성화와 경쟁시스템 도입등을 통해 19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는 등 뛰어난 경영성과를 거두었다”고 선정이유를 밝혔다.

포항의료원은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1993년 7억 6,400만원, 1994년 9억 1,000만원등 만성적자에 시달려 왔다. 하지만 IMF 경제위기를

겪은 후 ‘공기업도 수익성 없으면 망한다’는 심정으로 1998년부터 경영합리화에 착수했다.

먼저 포항지역 4개 종합병원과 대등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진료과목 특성화’를 시도했다. 인공관절, 척추질환 등 노인성질환 전문클리닉을 설립해 타 병원과 차별화에 나섰다. 또 정신병동을 190개 병상 규모로 강화했다. 기존 해안 지역의 알코올성 정신질환자와 급속한 공업화·도시화에 따른 정신질환자를 흡수한다는 전략이었다.

변승열 포항의료원장은 “꾸준히 경영합리화를 추진, 공공성과 수익성을 함께 갖춘 모범적인 지방공기업으로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수재민을 위한 의료봉사

-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에서는 태풍 루사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입은 김천시 수재민을 돕고자 지난해 9월 17일 의료봉사단을 파견, 김천시 대덕면 일대(추량1,2리 중산1,2리)를 찾아 수해로 인해 시름을 앓고 있는 주민들을 위로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재민들에게 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의료봉사단은 김경제 교수(정형외과)를 단장으로, 내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흉부외과 교수 6명과 약사, 간호사, 행정직원 등 20명으로 구성되어 140여명에게 각종 검사와 진료, 처치 및 약처방을 하였다.

한편, 지난 9월 3일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교

직원은 수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수재민 돕기 성금을 지역언론에, 교수 부인회에서는 수재의연금을 구미시청에 각각 전달한 바 있다.

제3차 베트남 의료봉사

- 포항세명기독교병원 -



년2회 실시하고 있는 제3차 베트남 의료봉사를 지난해 11월 11일에서 16일까지 4박 5일간 캄보디아 국경근처 안퍽면, 띠엥면 지역을 다녀왔다.

의사, 간호사, 진료지원부서 및 포스코 기독교인 연합회원들과 함께 한 이번 의료봉사활동에서 의료진과 진료 지원부서 12명이 의약품, 구호품으로 쌀, 라면, 간장, 의류를 600여명에게 무료 진료와 함께 전달하였으며, 포스코 기독교인 연합회에서는 회원2명이 참여하여 학용품을 준비하여 전달하였다.

포항세명기독교병원에서는 현지에 우석정 의료 선교사를 파송하고 매년 2회에 걸쳐 의료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베트남을 다녀온 직원을 중심으로 베사모(베트남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를 만들어 월 일정액을 지원하고 있고, 이 베사모 후원금으로 현지에 신학교를 열어 2002년도에 12명의 베트남인 선교사를 배출하여 의료 봉사팀이 돌아오는 11월 16일 졸업식이 있었다.

“베사모”모임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며, 포항세명기독교병원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년2회 베트남 의료봉사활동을 계획하고

의과대학장에 고복현 교수 경주병원장에 이영현 교수



동국학원은 제 8대 동국의대 학장에 고복현교수(정형외과, 왼쪽) 제4대 경주병원장에는 이영

현교수(내과, 오른쪽)를 3월 1일 임명했다.

신임 고복현학장은 73년 경북의대를 졸업하고 95년 및 2001년 동국대의학연구소 소장을 역임했다.

신임 이영현 병원장은 79년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83년 영남의대, 89년부터 동국의대 교수로 재직해 오면서 경상북도의사회 학술이사직을 맡고 있다.

계명대 경주동산병원장



계명대학교는 제7대 경주동산병원장에 편영식교수(정형외과)를 3월 1일 임명했다.

신임 편영식병원장은 66년 경북의대를 졸업하고 81년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했으며 96년 계명대동산의료원 기획실장을 역임했다.

영대 영천병원장 취임



영남대학교는 제3대 영대영천병원장에 김용진교수(해부병리과)를 3월 1일 임명했다.

신임 김용진병원장은 79년 경북의대를 졸업하고 대구가톨릭병원과 포항성모병원 병리과장을 역임했으며, 영남의대 교수로 재직해 오면서 기획

조정실 차장과 사무국장을 역임했다.

울진의료원장 장세국 교수



지방공사 울진의료원 초대 원장에 장세국교수(경북의대 비뇨기과)가 지난 2월 17일 취임했다.

초대 원장으로 취임한 장세국교수는 64년 경북의대를 졸업하고 85년부터 경북의대 교수로 재직해 오면서 92년 경북대병원 진료부장, 93년 진료처장과 98년 대한비뇨기과학회장을 역임했다.

안동병원장 이윤호 회원



안동병원 제4대 병원장에 이윤호회원(안동여성병원 산부인과 주임과장)이 지난 1월 3일 취임했다.

신임 이윤호병원장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의과대학에서 산부인과교수로 재직해오면서 영동세브란스병원 산부인과 과장, 대한산부인과학회 편집위원 등을 역임해왔다.

심사평가원지역심사위원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02년 7월 5일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대구지역 심사위원장으로 인주철교수(경북의대정형외과)를 선임했다. 관련 규정에 따라 공채의 경우 심사평가원장이 임용하고 의약단체 추천의 경우는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용하게 되며 임기는 2년이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



본회 변영우회장이 지역보건의료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자문과 심의를 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보건의료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위원회에서는 지역내 보건의료실태조사와 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결과에 대해 자문과 심의를 하게되며 임기는 2년이다.

시도 총무이사회의 참석



본회 정만진기획이사가 지난 10월 15일(화) 개최된 의협 시도지사 총무이사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의 주요회무보고와 의료현안에 대해 중점논의했다.

의협 선거관리위원회 참석

한국문인 신인상 수상



전경홍회원(문경, 동산가정의학과의원)이 2003년도 한국문화회 시상식에서 신인문학상을 수상했다.

수필 「새재나들이, 새벽골프」 2편으로 종합문예지 “한국문인”에 등단하여 지난 3월 22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문학상 시상식에서 수필부분 신인상을 받았다.



제33대 의협회장 선거와 관련해 본회 선거관리위원회 김종국위원장(구미

시 회장, 왼쪽)과 박문식 위원(포항성모병원 신경외과장, 오른쪽)이 각각 참석했다.

김종국위원장은 지난 2월 8일(토) 오후 5시 열린 의협 선거관리위원회에 참석했으며, 박문식 위원은 3월 14일(금) 실시된 의협회장 선거 개표위원으로 참석했다.

공직의사봉사상 수상



대한공공의사회는 지난해 11월 16일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2002년도 신설된 의협 공직의사 봉사상을 김주열회원(울릉보건의료원장)에게 수여했다.

한편 김주열 원장은 상금으로 받은 200만원을 거택보호자등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쾌척했다.

개원의 평의원회 참석



지난해 7월 13일(토) 오후 7시 의협 회의실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개원의협의회 평의원회에 김지홍회원(포항, 김지홍정형외과의원)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개원회원들 여론을 수렴하여 정책개발의 활성화등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의협 자보대책위 참석



지난 3월 7일
(금) 오후 7시
의협회의실에서
개최된 자동차
보험위원회에 본
회에서는 권영철(포항, 권영철
정형외과의원)이 참석했다.

대구 하계U대회

2003년도 대구 하계 U대회
조직위원회는 지난해 4월 15일
금호호텔에서 의무위원회를 개
최하고 본회 변영우회장과 신현
수회원(안동의료원장)을 의무
위원으로 위촉했다.

동국의대 졸업식

본회 변영우회장은 지난 2월
17일(월) 오전 11시에 동국의
대 문무관에서 개최된 2003년
도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졸업식
에 참석해 윤원경 모범 졸업생
에게 대한의사협회장상을 수여
했다.

**공제회 가입하여
안심하고 진료하자**

시·군의사회 신임회장



박 경 욱
(김천의사회장)



이 기 훈
(영주의사회장)



김 대 환
(영천의사회장)



김 종 술
(상주의사회장)



박 승 구
(문경의사회장)



장 기 호
(경산의사회장)



김 교 준
(군위의사회장)



이 재 동
(청도의사회장)



방 종 경
(성주의사회장)



김 영 조
(칠곡의사회장)



전 우 진
(봉화의사회장)

정태길회원 별세



정태길 회원
(구미, 대동의원)이 지난해 4월 12일 향년 82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故 정태길회원은 1966년 울진군보건소장과 1966년 대구시보건과장, 1985년 선산군의사회장을 맡으면서 지역의사회 발전과 지역주민의 보건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이인성회원 별세



이인성 회원
(안동, 안동성소병원)이 지난해 8월 17일 향년 77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故 이인성회원은 1953년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1987년 건국대의 학장과 건국대부속병원장을 역임하면서 후진양성을 위해 크게 기여했다.

윤주식회원 별세



윤주식 회원
(포항, 보성외과의원)이 금년 1월 23일 향년 71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故 윤주식회원은 1958년 경북의대를 졸업하고 1963년 육군대위로 예편한 후, 보성외과의원을 개설해 오면서 시민보건향상을 위해 크게 이바지 해왔다.

박종길회원 별세



박종길 회원
(경산, 제일의원)이 지난해 4월 17일 향년 77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故 박종길회원은 1950년 경북의대를 졸업하고 1966년 제일의원을 개원해 오면서 의료계 발전과 지역주민의 보건향상에 크게 이바지 해왔으며, 경산시의사회장과 경북도의사회 제7대 의장직('88~'90)을 역임했다.

신내철회원 별세



신내철 회원
(경주, 신내철산부인과의원)이 지난해 10월 16일 향년 54세를 일기로 별

세했다.

故 신내철회원은 1974년 경북의대를 졸업하고, 1984년 신내철산부인과의원을 개설하여 시민보건향상에 크게 이바지하였으며, 경주시의사회장(2000~2001)을 역임하면서 의료인의 사회적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지대하다.

조철균회원 별세



조철균 회원
(문경, 평안의원)이 금년 2월 15일 향년 90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故 조철균회원은 1951년 평안의원을 개설해 오면서 지역 의료계 발전과 시민보건향상을 위하여 크게 기여해 왔으며, 참의료인상 구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변영우 회장 동정

<2002년 관내출장>

3. 7	회보편집위원회	대구	6. 24	안윤식 정무부지사 퇴임식	대구
3. 9	전체이사회 및 시군회장회의	대구	6. 25	경북도 119구급대 회의 참석	경주
3. 13	군의관 입소식 행사 참석	영천	7. 2	이의근 경북도지사 취임식 참석	대구
3. 16	영남지역 의사회장회의	경주	7. 7	구미시의사회 골프행사 참석	구미
3. 19	본회 3월 상임이사회 참석	경주	7. 11	대구 하계U대회 회의 참석	대구
3. 20	2001년도 본회 회무감사	대구	7. 12	의료과오와 형사책임 특강	대구
3. 29	본회 제51차 정기대의원총회	경주	7. 14	안동시의사회 골프행사 참석	구미
3. 30	한동대 선린병원장 취임식	포항	7. 22	경북체육회 이사회 참석	경산
4. 6	제30회 보건의날 행사 참석	경주	7. 25	본회 7월 상임이사회 참석	경주
4. 9	시군의사회장 및 국건투회의	대구	7. 31	경북 영양식단전사회 참석	구미
4. 11	포항지역 병원장 회의 참석	포항	8. 5	회무관계 사무국 방문	대구
4. 12	안동지역 병원장 회의 참석	안동	8. 9	포항권 임원 간담회 참석	포항
"	구미지역 병원장 회의 참석	구미	8. 25	제1회 회원 및 가족등반대회	영주
4. 23	본회 4월 상임이사회 참석	경주	8. 29	대구·경북의사회 임원회의	대구
4. 28	제6회 포항시의사의날 행사	포항	8. 30	본회 8월 상임이사회 참석	경주
5. 8	경북의학제 준비위원회 참석	경산	9. 2	김천수해지역 현지답사	김천
5. 13	본회 5월 상임이사회 참석	경주	9. 3	시군의사회장 및 국건투회의	대구
5. 14	대구지방국세청 세무간담회	대구	9. 5	김천수해지역 진료팀 위문	김천
5. 15	대구 U대회 회의 참석	대구	9. 6	대구지방식의약청 회의 참석	대구
5. 23	지역의료계 인사 간담회	대구	9. 7	회무관계 본회 사무국 방문	대구
5. 25	2002 춘계종합학술대회	경주	9. 10	시군의사회장 및 국건투회의	대구
5. 26	제24회 경북의학제 개최	경주	9. 12	TBC 무료개안수술 회의 참석	대구
6. 2	회무관계 본회 사무국 방문	대구	9. 13	대구시의사회 진료팀 위문	김천
6. 4	한나라당 안강 유세현장 참석	경주	9. 15	신은식회원 부친상 조문	대구
6. 5	이의근 도지사후보 포항유세	포항	9. 16	영천시의사회 임원 간담회	영천
6. 6	이의근 선거대책본부 방문	경산	9. 23	회무관계 본회 사무국 방문	대구
6. 10	김찬우 국회의원 방문	영덕	9. 26	김천시청 수재의연금(품) 기탁	김천
6. 11	회무관계 본회 사무국 방문	대구	9. 29	제1회 회원테니스대회 참석	경주
6. 21	사무직원 면접관계 사무국	대구	10. 8	중외제약 심포지움 참석	대구
"	본회 6월 상임이사회 참석	대구	10. 12	경북체육회 이사회 참석	경산
			10. 13	대구시의사의날 행사참석	대구

〈2002년 관내출장〉

3. 7	회보편집위원회	대구	7. 7	구미시의사회 골프행사 참석	구미
3. 9	전체이사회 및 시군회장회의	대구	7. 11	대구 하계U대회 회의 참석	대구
3. 13	군의관 입소식 행사 참석	영천	7. 12	의료과오와 형사책임 특강	대구
3. 16	영남지역 의사회장회의	경주	7. 14	안동시의사회 골프행사 참석	구미
3. 19	본회 3월 상임이사회 참석	경주	7. 22	경북체육회 이사회 참석	경산
3. 20	2001년도 본회 회무감사	대구	7. 25	본회 7월 상임이사회 참석	경주
3. 29	본회 제51차 정기대의원총회	경주	7. 31	경북 영양식단전시회 참석	구미
3. 30	한동대 선린병원장 취임식	포항	8. 5	회무관계 사무국 방문	대구
4. 6	제30회 보건의날 행사 참석	경주	8. 9	포항권 임원 간담회 참석	포항
4. 9	시군의사회장 및 국건투회의	대구	8. 25	제1회 회원 및 가족등반대회	영주
4. 11	포항지역 병원장 회의 참석	포항	8. 29	대구·경북의사회 임원회의	대구
4. 12	안동지역 병원장 회의 참석	안동	8. 30	본회 8월 상임이사회 참석	경주
"	구미지역 병원장 회의 참석	구미	9. 2	김천수해지역 현지답사	김천
4. 23	본회 4월 상임이사회 참석	경주	9. 3	시군의사회장 및 국건투회의	대구
4. 28	제6회 포항시의사의날 행사	포항	9. 5	김천수해지역 진료팀 위문	김천
5. 8	경북의학계 준비위원회 참석	경산	9. 6	대구지방식의약청 회의 참석	대구
5. 13	본회 5월 상임이사회 참석	경주	9. 7	회무관계 본회 사무국 방문	대구
5. 14	대구지방국세청 세무간담회	대구	9. 10	시군의사회장 및 국건투회의	대구
5. 15	대구 U대회 회의 참석	대구	9. 12	TBC 무료개안수술 회의 참석	대구
5. 23	지역의료계 인사 간담회	대구	9. 13	대구시의사회 진료팀 위문	김천
5. 25	2002 춘계종합학술대회	경주	9. 15	신은식회원 부친상 조문	대구
5. 26	제24회 경북의학계 개회	경주	9. 16	영천시의사회 임원 간담회	영천
6. 2	회무관계 본회 사무국 방문	대구	9. 23	회무관계 본회 사무국 방문	대구
6. 4	한나라당 안강 유세현장 참석	경주	9. 26	김천시청 수재의연금(품) 기탁	김천
6. 5	이의근 도지사후보 포항유세	포항	9. 29	제1회 회원테니스대회 참석	경주
6. 6	이의근 선거대책본부 방문	경산	10. 8	중외제약 심포지움 참석	대구
6. 10	김찬우 국회의원 방문	영덕	10. 12	경북체육회 이사회 참석	경산
6. 11	회무관계 본회 사무국 방문	대구	10. 13	대구시의사의날 행사참석	대구
6. 21	사무직원 면접관계 사무국	대구	10. 15	시군의사회장 및 국건투회의	대구
"	본회 6월 상임이사회 참석	대구	10. 16	의협 의료현안 정책설명회 참석	대구
6. 24	안윤식 정무부지사 퇴임식	대구	10. 18	박시균 국회의원 후원회 참석	영주
6. 25	경북도 119구급대 회의 참석	경주	10. 22	한나라당 선대위 발대식 참석	안동
7. 2	이의근 경북도지사 취임식 참석	대구	"	포항시의사회 임시총회 참석	포항
			10. 23	경북도민의날 행사 참석	경주

"	의협신보 회무관계 인터뷰	경주
10. 30	경북체육회 이사회 참석	경산
11. 1	본회 11월 상임이사회 참석	경주
11. 4	전국체육대회 결단식 참석	경주
11. 6	심평원 대구지원 간담회	대구
11. 9	영호남 의료인 친선행사	경주
11. 15	TBC 무료개안수술 출연	대구
11. 17	경북 보건단체 간담회 참석	경산
11. 26	대구지검장 간담회 참석	대구
11. 28	경북의사회지 편집위원회	대구
12. 1	본회 추계종합학술대회 참석	대구
12. 5	시군의사회장 상임이사회	대구
12. 6	제5회 사랑나눔자선음악회	경주
12. 12	의협 의료정책설명회 참석	대구
12. 16	경산시의사회 정기총회 참석	경산
12. 17	포항시의사회 정책설명회	포항
12. 30	경상북도 구급대책회의 참석	경산

<2003년 관내출장>

1. 3	포항시의사회 신년교례회	포항
1. 13	회무관계 본회 사무국 방문	대구
1. 17	경주지원 실무 간담회 참석	경주
1. 24	포항 윤주식회원 문상	포항
1. 25	남효채 경북부지사 부친상	대구
1. 28	경북의사회지 편집위원회	대구
2. 6	경북의사회지 편집위원회	대구
2. 11	김천시의사회 정기총회 참석	김천
2. 12	대구 하계U대회 회의 참석	대구
2. 13	성주군의사회 정기총회 참석	성주
2. 14	칠곡군의사회 정기총회 참석	칠곡
2. 19	영천시의사회 정기총회 참석	영천
"	본회 긴급 회장단 회의 참석	영천
2. 20	문경시의사회 정기총회 참석	문경
2. 21	한동대 선린병원 기념식참석	포항

"	구미시 의사회 정기총회 참석	구미
2. 24	대구지하철 성금 및 분향소 방문	대구
2. 25	경산시 의사회 임시총회 참석	경산
"	본회 2월 상임이사회 참석	경산
2. 26	경주시의사회 정기총회 참석	경주
2. 27	포항시의사회 정기총회 참석	포항
3. 1	대구·경북의사회 회장단 회의	대구
3. 2	최덕중 의협회장후보간담회	경주
3. 3	경북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대구
3. 5	김재정 의협회장후보간담회	대구
3. 8	신상진 의협회장후보간담회	대구
"	시군의사회장 및 전체인사회	대구
3. 10	회무관계 본회 사무국 방문	대구
3. 15	본회 2003년도 회무 감사	대구
3. 27	제52차 정기대의원총회	경주

<2002년 관외출장>

4. 3	시도회장회의 및 국건투회의	서울
4. 6	의협 법 정관 소위원회 참석	서울
4. 10	시도회장회의 및 국건투회의	서울
4. 13	시도회장회의 및 국건투회의	서울
4. 24	시도회장회의 및 국건투회의	서울
4. 27	의협 제54차 정기총회 참석	서울
5. 3	의협 국건투회의 참석	서울
5. 11	의협 시도회장회의 참석	서울
5. 12	광주시의사회 초청행사 참석	광주
5. 16	의협 국건투회의 참석	서울
5. 18	의협 제54차 정기총회 참석	서울
5. 22	WTO DDA 공청회 참석	서울
5. 31	의료윤리 심의 공청회 참석	서울
6. 8	시도회장회의 및 국건투회의	서울
6. 23	전국의사 대표자 워크샵 참석	서울
6. 29	의약분업 관계 공청회 참석	서울
7. 6	한일 의료정책 세미나 참석	서울

진찰료 통합관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사항

1. 의원 진찰료 통합

－ 의원급 진찰료 ‘나’ 군 수준으로 통합하고, 재정절감액으로 ‘가’ 군 손실분을 보전

구 분	현 행	진찰료 통합
가 군	초진 : 10,500원(189.52점) 재진 : 7,670원(138.43점)	초진 : 9,950원(179.63점) 재진 : 7,120원(128.54점)
나 군	초진 : 9,950원(179.63점) 재진 : 7,120원(128.54점)	
다·라군	초진 : 9,590원(173.04점) 재진 : 6,760원(121.95점)	

2. ‘가’ 군 손실분 보전방안

－ 만성질환관리료 인상 및 범위 확대

구 분	현 행	보 전 방 안 적 용
수가인상	650원(11.70점)	1,300원(23.40점)
대 상 질 환 확 대	• 주상병 － 고혈압 : I10~I13, I15 － 당뇨병 : E10~E14	• 주상병 및 부상병 － 고혈압 : I10~I13, I15 － 당뇨병 : E10~E14를 상병 • 주상병 － 정신병 및 행동장애 : F00~F99, G40~G41 － 호흡기결핵 : A15~A16, A19 － 심장질환 : I05~I09, I20~I27, I30~I52 － 대뇌혈관질환 : I60~I69 － 신경계질환 : G00~G37, G43~G83 － 악성신생물 : C00~C97, D00~D09 － 갑상선의 장애 : E00~E07 － 간의 질환 : B18, B19, K70~K77 － 만성신부전증 : N18
산정지침 개 선	기관당 한 환자에 대하여 월 1회 이내	기관당 한 환자에 대하여 연간 12회 이내 (단, 월 2회 이내)

－ 소아가산료 인상

구 분	현 행	보전방안적용
만 1세 미만	초진 : 500원(9.03점) 재진 : 200원(3.61점)	초진 : 1,500원(27.09점) 재진 : 600원(10.83점)
만 1세이상 만3세미만		초진 : 1,000원(18.06점) 재진 : 400원(7.22점)
만 6세미만		초진 : 500원(9.03점) 재진 : 200원(3.61점)

3. 시행일 : 2003년 3월 1일

의료법 중 개정된 내용의 시행시기별 규정(요약)

1. 2002. 3. 30. 개정의료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제8조제1항제5호, 제30조제8항, 제51조제1항 및 제2항, 제52조제2항, 제53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동조제4항, 제55조제2항, 제67조[제51조제2항(제6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부분에 한한다], 제69조[제51조제2항(제6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부분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조, 제9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시행시기별 분류(밑줄 친 부분은 개정된 내용임)

● 2002. 3. 30 (즉시)시행조항

○ 전문과목 명칭 변경 관련

- 제3조 [의료기관] ③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사 및 치과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고 주로 입원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개정 99. 9. 7>

1) 입원환자 10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

2) 내과 · 외과 · 소아과 · 산부인과 · 진단방사선과 · 마취통증의학과 ·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과(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병상을 가진 경우에 한한다) 및 치과를 포함한 9개의 필수진료과목. 다만, 300병상이하의 종합병원은 내과 · 외과 · 소아과 · 산부인과 중 3개 과목과 진단방사선과 · 마취통증의학과 ·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의 필수진료과목 <전문개정 2002. 3. 30, 즉시시행>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각 필수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 다만,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9개 진료과목,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7개 진료과목에 한한다. <전문개정 2002. 3. 30, 즉시시행>

-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한 의료인에 대한 제한 관련

- 의료인의 결격사유 요건 추가.

- 제8조 [결격사유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5. 이 법 또는 형법중 제233조 · 제234조 · 제269조 · 제270조 ·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 및 단체를 기망한 경우에 한한다),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 지역보건법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 응급의료에 관한법률 ·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 혈액관리

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약사법·모자보건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관련법령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개정 2002. 3. 30, 즉시시행>

○ 허위진료비 청구자에 대한 개설허가 취소 규정 신설

- 제51조 [개설허가의 취소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료업을 정지하거나 그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의료기관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8호에 해당할 때에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의 폐쇄를 명하여야 하며, 의료기관의 폐쇄는 제30조제3항 및 제3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의료기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2. 3. 30, 즉시시행>

8.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때 <신설 2002. 3. 30, 즉시시행>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내에, 의료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당해 업무정지기간중에 각각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지 못한다. 다만, 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는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지 못한다. <개정 2002. 3. 30, 즉시시행>

- 제67조 [벌칙]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제1항, 제25조제3항, 제30조제4항, 제31조제1항단서, 제46조제1항, 제48조제3항, 제51조제2항(제6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또는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9조, 제20조제1항 또는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02. 3. 30, 즉시시행>

○ 허위청구자에 대한 면허취소시 재교부 기간을 3년으로 규정

- 제52조 [면허의 취소 및 재교부]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자라 할지라도 그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하거나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제1항제3호·제5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한다. <개정 2002. 3. 30, 즉시시행>

○ 자격정지 요건 추가

- 제53조 [자격정지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1년

의 범위 내에서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상의 판단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개정 81. 12. 31, 87. 11. 28, 94. 1. 7, 97. 12. 13 법5454, 2000. 1. 12>

6.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허위청구한 때 <신설 2002. 3. 30, 즉시시행>

④ 의료기관은 당해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자격정지기간중 의료업을 할 수 없다. <신설 2002. 3. 30, 즉시시행>

◎ 담합관련 개설제한 요건 추가

• 제30조 [개설] ⑧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신설 2002. 3. 30, 즉시시행>

1) 약국의 시설내 또는 구내인 경우

2) 약국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3) 약국과 전용의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 2003. 3. 31 시행조항

◎ 병원감염 예방 관련 신설

• 제4조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병원감염을 예방하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2. 3. 30, 시행일 2003. 3. 31>

◎ 전자처방전 관련

• 제18조 [진단서등] ①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의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한다)하지 못한다. 다만, 진료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환자를 직접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 부등에 의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2. 3. 30, 시행일 2003. 3. 31>

• 제18조의2 [처방전의 작성 및 교부] ①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약사법에 의하여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2. 3. 30, 시행일 2003. 3. 31>

③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전자처방전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2. 3. 30, 시행일 2003. 3. 31>

- 제66조 [벌칙] 3. 제12조제2항, 제18조의2제3항, 제21조의2제3항, 제25조제1항, 제30조제2항(제6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개정 2002. 3. 30, 시행일 2003. 3. 31>

◎ 진료기록 관련

- 제21조 [진료기록부등] ①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 그밖의 진료기록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를 비치하여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2. 3. 30, 시행일 2003. 3. 31>

②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의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제33조제2항에서 같다)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2. 3. 30, 시행일 2003. 3. 31>

- 제66조 [벌칙] 3. 제12조제2항, 제18조의2제3항, 제21조의2제3항, 제25조제1항, 제30조제2항(제6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개정 2002. 3. 30, 시행일 2003. 3. 31>

◎ 전자의무기록 관련

- 제21조의2 [전자의무기록]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제2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등을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이하 “전자의무기록”이라 한다)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

②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하는데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2. 3. 30, 시행일 2003. 3. 31>

◎ 무면허의료행위의 요건 추가

- 제25조 [무면허의료행위등 금지] ③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 3. 30, 시행일 2003. 3. 31>

◎ 원격의료 관련 신설

- 제30조의2 [원격의료] ① 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 한한다)은 제3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

하여 원격지의 의료인에 대하여 의료지식 또는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이하 “원격의료”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

② 원격의료를 행하거나 이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원격의료를 시행하는 자(이하 “원격지의사”라 한다)는 환자에 대하여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는 경우와 동일한 책임을 진다.

④ 원격지의사의 원격의료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이하 “현지의사”라 한다)인 경우에는 당해의료행위에 대하여 원격지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는 한 환자에 대한 책임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지의사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2. 3. 30, 시행일 2003. 3. 31>

○ 병원감염예방을 위한 감염대책위원회의 설치·운영 규정 신설

· 제37조의3 [병원감염의 예방] ① 종합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의료기관의 장은 병원감염예방을 위하여 감염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염대책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기타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 3. 30, 시행일 2003. 3. 31>

○ 의료광고의 범위중 의료인의 경력 허용 및 경력에 대한 과대금지

· 제46조 [과대광고등의 금지] ①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의료업무 또는 의료인의 경력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02. 3. 30, 시행일 2003. 3. 31>

③ 누구든지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조산방법이나 약효등에 관하여 대중광고·암시적기재·사진·유인물·방송·도안 등에 의하여 광고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02. 3. 30, 시행일 2003. 3. 31>

· 제67조[벌칙]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제1항, 제25조제3항, 제30조제4항, 제31조제1항단서, 제46조제1항, 제48조제3항, 제51조제2항(제6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또는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9조, 제20조제1항 또는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02. 3. 30, 2002. 3. 31시행>

· 제69조[벌칙]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제3항·제4항, 제20조제2항·제3항, 제21조, 제24조, 제25조제2항, 제30조제1항·제3항(제6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6항(허가의 경우에 한한다), 제31조제1항 본문, 제34조, 제35조제1항, 제41조제3항·제4항, 제46조제2항·제3항·제4항, 제47조,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와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2. 3. 30, 2003. 3. 31시행>

◎ 의료기관평가 신설

- 제47조의2 [의료기관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의 질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이하 “의료기관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전문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평가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평가의 결과가 우수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⑤ 의료기관평가대상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평가에 응하여야 한다.
- ⑥ 의료기관평가의 시기·범위 및 절차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 3. 30, 시행일 2003. 3. 31>

◎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휴업 또는 폐업시 업무개시명령의 요건 개정

- 제48조 [지도와 명령]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 또는 폐업하여 환자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2. 3. 30, 시행일 2003. 3. 31>
- ③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개정 2002. 3. 30, 시행일 2003. 3. 31>

◎ 의료기관회계기준 준수 신설

- 제49조의2 [의료기관회계기준] ①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의료기관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종합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의료기관회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회계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 3. 30, 시행일 2003. 3. 31>

◎ 과징금처분 규정 개정

- 제53조의2 [과징금처분]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

기관이 제5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의 부과는 의료업정지처분이 국민보건에 큰 위해를 가져오거나 가져올 큰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삭제) 이 경우 과징금은 3회를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 <개정 2002. 3. 30, 시행일 2003. 3. 31>

● 2005. 3. 31 시행조항

○ 국가시험등 개정

- 제5조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면허]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예비시험(제3호의 자에 한한다)과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2. 3. 30, 시행일 2005. 3. 31>
 - 1) 의학 또는 치과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 또는 치과의학사의 학위를 받은 자
 - 2) 한방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한의학사의 학위를 받은 자
 - 3)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받은 자
 - 4) 삭제 <94. 1. 7>
- 제9조 [국가시험등] ①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의 국가시험과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예비시험(이하 “국가시험등”이라 한다)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시행한다. <개정 2002. 3. 30, 시행일 2005. 3. 31>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험등의 관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 3. 30, 시행일 2005. 3. 31>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시험등의 관리를 하게 한 때에는 그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2. 3. 30, 시행일 2005. 3. 31>
 - ④ 국가시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 3. 30, 시행일 2005. 3. 31>
- 제10조 [응시자격의 제한등] ① 제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02. 3. 30, 시행일 2005. 3. 31>
 - ②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등에 응시한 자 또는 국가시험등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그 합격을 무효로 한다. <개정 2002. 3. 30, 시행일 2005. 3. 31>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자는 그 후 2회에 한하여 국가시험등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02. 3. 30, 시행일 2005. 3. 31>

결 의 문

건강보험 재정파탄과 의료계의 모든 문제와 갈등은 잘못된 의약분업을 강행한데 그 원인이 있다. 실패한 정책을 인정하면서도 근원적 치료 정책은 뒤로한 채 의사탄압정책으로 만회를 획책하고 있다. 부당한 진료비 삭감, 진찰료 차등 지급 그리고 해피망측한 약품 적정성평가라는 정책까지 동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주적 원칙까지 무시하면서 의료수가를 2.9%인하하였다. 또한 논리에 맞지 않는 통계자료를 언론에 유포시켜 의사들을 매도하고, 그것도 모자라 도덕 불감증에 빠진 이정부는 도덕교과서에까지 의사들을 집단이기주의의 표본으로 올려놓는 후안무치(厚顔無恥)한 행동까지 저지르고 있다.

이에 우리 경북의사회 시군회장과 이사 일동은 갈수록 악화되는 현 의료계의 위기 상황에 분노와 슬픔 그리고 인내의 한계점을 느끼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다 음 **

1. 직선 의협 집행부는 자신감을 갖고 현 사태에 적극 대처해 주기바란다. 아울러 의협의 전 회원들은 지나친 기대와 속발성 정책을 채근하지 말기 바라며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의협을 중심으로 단합하여 투쟁하기를 바란다.
1. 1,000만명 서명운동과 성금납부에 적극 동참한다. 의협 사랑은 회원의 의무를 다하는 것에서부터, 의무를 다하는 것은 100% 회비납부에서 시작됨을 전회원들이 명심해 주기 바란다.
1. 집단 이기주의의 표본으로 매도한 도덕교과서 문제는 의사들의 자존심과 환자와의 신뢰문제가 걸린 중대한 사안이다. 그러므로 추호의 양보 없이 원칙에 입각하여 처리되기를 바란다.
1. 의료 수가 2.9%인하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부당한 진료비 삭감, 90일내 초진료 불인정, 약품 적정성평가서 발부, 일반약품의 증가 등의 의료 탄압 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1.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보다 더한 도덕교과서 왜곡, 금메달을 빼앗아간 병상의 심판보다 더 불공정한 의료 압박 정책이 계속되더라도, 전 회원이 의협을 중심으로 일치 단결한다면 반드시 신뢰와 존경이 꽃피는 의료계의 봄날이 올 것으로 확신한다.

2002. 3. 9

경상북도의사회 시군회장 및 이사 일동

결 의 문

경상북도의회사회 대의원 일동은 제51차 대의원 총회를 맞이하여 경상북도의회사회장과 신상진 의협 회장을 비롯한 의료계의 여러 지도자들로부터 위기에 처한 현 의료계의 상황에 대하여 다양한 설명과 분석 그리고 대응책에 대하여 듣고, 진지한 토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표명하는 결의를 하였다. 시군을 대표하는 우리 대의원들의 이 결의가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위로는 의협 정책에 반영되고, 아래로는 회원 각자가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1. 우리는 현 상황을 의료계의 위기로 간주하고, 이의 극복을 위한 모든 행동은 어떠한 경우에도 의협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의견은 자유롭게 개진하고, 토의와 토론은 격렬하고 진지하게 하되, 결정된 정책에 대해서는 불만스럽더라도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민주주의의 기본이 지켜지기를 바라며, 선부른 소영웅주의나 검증 받지 않은 개인주의를 배격한다.
1. 1,000만명 서명 운동, 성금 모금, 정책 연구소 개설, 4.17 전면 파업 투쟁 등 의협의 모든 정책을 지지하며,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을 다짐한다.
1. 왜곡된 도덕교과서 문제는 실추된 명예가 회복될때까지 철저하게 끝까지 추궁하기 바란다. 어정쩡한 타협은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함만 못할 수도 있음을 상기하라.
1. 보험 재정의 안정화를 위한다는 명목 하에 자행되는 부당한 진료비 삭감, 초재진 구분 변경, 약품 적정성 평가, 비급여약품 증가 등 부당한 의료계 탄압에 대해서는 철저한 연구와 세심한 계획을 가지고 가장 강력하게 대처하라.
1. 의협의 정치 세력화를 실행하기 위하여 의협은 물론 회원 각자도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물심양면으로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관여해 주기 바란다.
1. 실패한 의약분업은 반드시 철폐되어야 한다. 의협은 1,000만명 서명운동과 성금 납부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바라며, 회원 각자는 아집과 편협한 이기주의를 지양하고 의협이 부여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주기 바란다.

2002. 3. 29

경 상 북 도 의 사 회 대 의 원 일 동

결 의 문

우리는 1999년 장충 체육관 결의 대회를 시작으로 2002년 10월 27일 과천 집회까지, 고통과 좌절을 감내하며, 각가지 방법으로 잘못된 의약분업을 철폐하고 잃어버린 의권을 되찾기 위한 투쟁을 계속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의사들을 무시하고 자존심을 짓밟으며 오직 건보 재정에만 초점이 맞추어진 왜곡된 보건의료 정책이 활개를 치고, 의사들은 불만과 갈등으로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인내의 한계를 시험받고 있다.

오늘 제17회 영·호남 의료인 단합 대회에 참석한 호남과 영남의 의료인들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견해를 밝히는 바이다.

** 다 음 **

1. 왜곡된 통계자료와 어용 연구 자료를 이용한 의료 수가 인하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 만일 강압적으로 시행한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1. 대선 후보들은 국민대다수와 대통령까지도 잘못되었음을 인정한 의약분업을 철폐하고 새 틀을 짜겠다는 정책을 공약하다.
1. 우리는 10.27 과천 쉼기 대회에서 내려진 대통령 선거에 임하는 회원들의 행동지침에 따라 적절한 후보를 선택하고, 적극적으로 지지 행동할 것을 결의한다.
1. 정권이 바뀐다고, 저절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행동은 하지 않고, 막연한 기대만 하는 기회주의적인 행동은 최대의 장애물이다. 우리 모두 단합하고 준비하고 행동할 때만이 기회가 온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1. 의료계는 전공 과목, 지역, 연령, 직역에 따라 생각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외부로 나가는 소리는 하나여야 한다. 숲을 보지 않고, 나무만 보는 독선과 아집을 없애고 어떠한 경우에도 의협을 중심으로 투쟁하기 바란다.
1. 의협은 의대생, 전공의, 봉직의, 개원의 그리고 대학의 교수들까지 지치고 회의감에 빠진 모든 의료인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소신을 갖고, 분명한 행동을 해주기 바란다.

2002. 11. 9.

전라북도의사회
경상북도의사회

결 의 문

이 정부는 오판과 오만으로 잘못된 의약분업을 강행하였고, 우리는 이것을 바로잡기 위하여 찬바람 불어오는 여의도와 태풍이 몰아치는 보라매공원을 포함하여 여섯 번의 서울 결의 대회와 두 번의 경북집회, 그리고 수없이 많은 지역 결의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국세청과 사법기관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휴업을 포함한 각가지 투쟁을 전개해오고 있다.

그러나 이 정부는 근원적인 해결책은 외면한채 조삼모사(朝三暮四)의 미봉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이 정부에 기대를 걸 수는 없다. 그러므로 오늘 경상북도의사회 시군 의사회장 및 상임이사 일동은 이 땅에 올바른 의료가 뿌리내리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다 음 **

1. 우리는 의협의 대선의료정책평가단의 평가에 따라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의한다.
1. 우리는 이번 대통령 선거가 잘못된 의약분업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생각하고, 의협의 대선행동지침에 따라 빠짐없이 투표함은 물론 친척, 친지, 환자와 환자 보호자들에게 후보들의 의료정책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을 결의한다.
1. 우리는 향후 어떠한 상황이 닥쳐오더라도 일치 단결하여 잘못된 의약분업을 바로잡고, 손상된 의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02. 12. 5

경상북도의사회 시군회장단 및 상임이사 일동



편

집

후

기

25호, 26호, 그리고 27호!

현 집행부 임기중 펴낸 3권의 경북 의사회지, 이것들은 지난 3년간 우리 경북의사회의 역사책이자 문예 창작집이었습니다. 그 동안 해를 거듭할수록 양적이나 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묵묵히 의사회 일에 협력해 주신 2,000여 회원들은 물론 경북 의사회지의 편집을 위하여 작품을 보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매년 한번도 거르지 않고 옥고를 보내주신 몇몇 회원들께는 무어라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6명의 편집위원들은 짜임새 있고, 신선하고, 읽을 맛 나는 경북 의사회지를 만들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였습니다만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원고를 모으다는 공문을 보냈지만 그것만으로 쉽게 모여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학에 조예가 깊으신 분들과 다양한 경력과 취미를 가지고 독특한 경험을 하신 분들을 찾아서 특별히 원고 청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이 지난해 원고지 100여 장이나 되었던 특집 좌담 “개혁과 위기의 의료계, 그 극복을 위한 우리의 자세”에 이어 올해에는 “이것은 이런 매력이 있다”라는 특집을 마련하였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편집위원들이 특집을 기획하고, 그 대상자를 찾아서 글을 부탁하고, 특별 취재까지 해야하는 일련의 작업들은 힘에 벅찼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고의 취사 선택과 오타자(誤脫字)의 교정까지도 직접 하다 보니, 눈이 아른거릴 정도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회원들의 친목과 단합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경북의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고생이라기보다 보람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어느덧 본의 교향악이 울려 퍼지고, 어느때보다 화려한 대자연의 향연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유달리 잦은 봄비의 축복을 받으며, 만물이 희망의 기지개를 켜며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계만은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입니다. 봄이 아니라 의사의 자존심은 물론 의사로서의 기본권과 생존권마저 삼켜버리려는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회원들이 일치 단결하여야만 합니다. 이와 같은 회원 단합에 경북 의사회지가 일역을 담당할 수 있기를 바랄뿐입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편집상 미비한 점이나 미처 발견하지 못한 오타자나 오류가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행여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선의로 봐 주시고, 다음 편집을 위하여 지적과 충고의 말씀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밤을 세워가며 컴퓨터 입력 작업과 편집을 도와주신 사무국 직원 여러분, 그리고 출판사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 3월 경북 의사회지 편집위원 일동
(유동명, 정만진, 송재영, 문신길, 김재왕, 이경수)

경북의사회지 2003年 3月 第 27 號

발 행 인 / 변 영 우

편 집 인 / 송 재 영

발 행 처 / 경상북도의사회 702-824

대구시 북구 대현2동 404-4

TEL : (053) 941-7785, 7781

FAX : (053) 941-5557

E-mail : cugkma14@hanmail.net

인 쇄 처 / 선 진 애 드

TEL : (053) 555-3336

謹賀新年

謹賀新年



浦項市醫師會	聞慶市醫師會	清道郡醫師會
會長 李 元 基	會長 朴 勝 九	會長 李 在 東
慶州市醫師會	慶山市醫師會	高靈郡醫師會
會長 白 承 仁	會長 張 基 鎬	會長 白 斗 鉉
金泉市醫師會	軍威郡醫師會	星州郡醫師會
會長 朴 炅 昱	會長 金 敎 準	會長 方 鐘 磬
安東市醫師會	義城郡醫師會	漆谷郡醫師會
會長 權 五 一	會長 金 一 煥	會長 金 永 祚
龜尾市醫師會	青松郡醫師會	醴泉郡醫師會
會長 金 鍾 國	會長 鄭 澈	會長 白 承 基
榮州市醫師會	英陽郡醫師會	奉化郡醫師會
會長 李 起 勳	會長 權 寧 大	會長 全 祐 辰
永川市醫師會	盈德郡醫師會	蔚珍郡醫師會
會長 金 大 煥	會長 徐 昌 洙	會長 金 信 一
尙州市醫師會		
會長 金 鍾 述		



히포크라테스 선서

이제 의업에 종사할 허락을 받음에
나의 생애를 인류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노라.
나의 은사에게 대하여 존경과 감사를 드리겠노라.
나의 양심과 위엄으로써 의술을 베풀겠노라.
나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나는 환자가 알려준 모든 내정의 비밀을 지키겠노라.
나는 의업의 고귀한 전통과 명예를 유지하겠노라.
나는 동업자를 형제처럼 여기겠노라.
나는 인종, 종교, 국적, 정당성과 또는 사회적 지위 여하를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게 대한 나의 의무를 지키겠노라.
나는 인간의 생명을 그 수태된 때로부터 지상의 것으로 존중히 여기겠노라.
비록 위협을 당할지라도 나의 지식을 인도에 어긋나게 쓰지 않겠노라.
이상의 서약을 나의 자유의사로 나의 명예를 받들어 하노라.